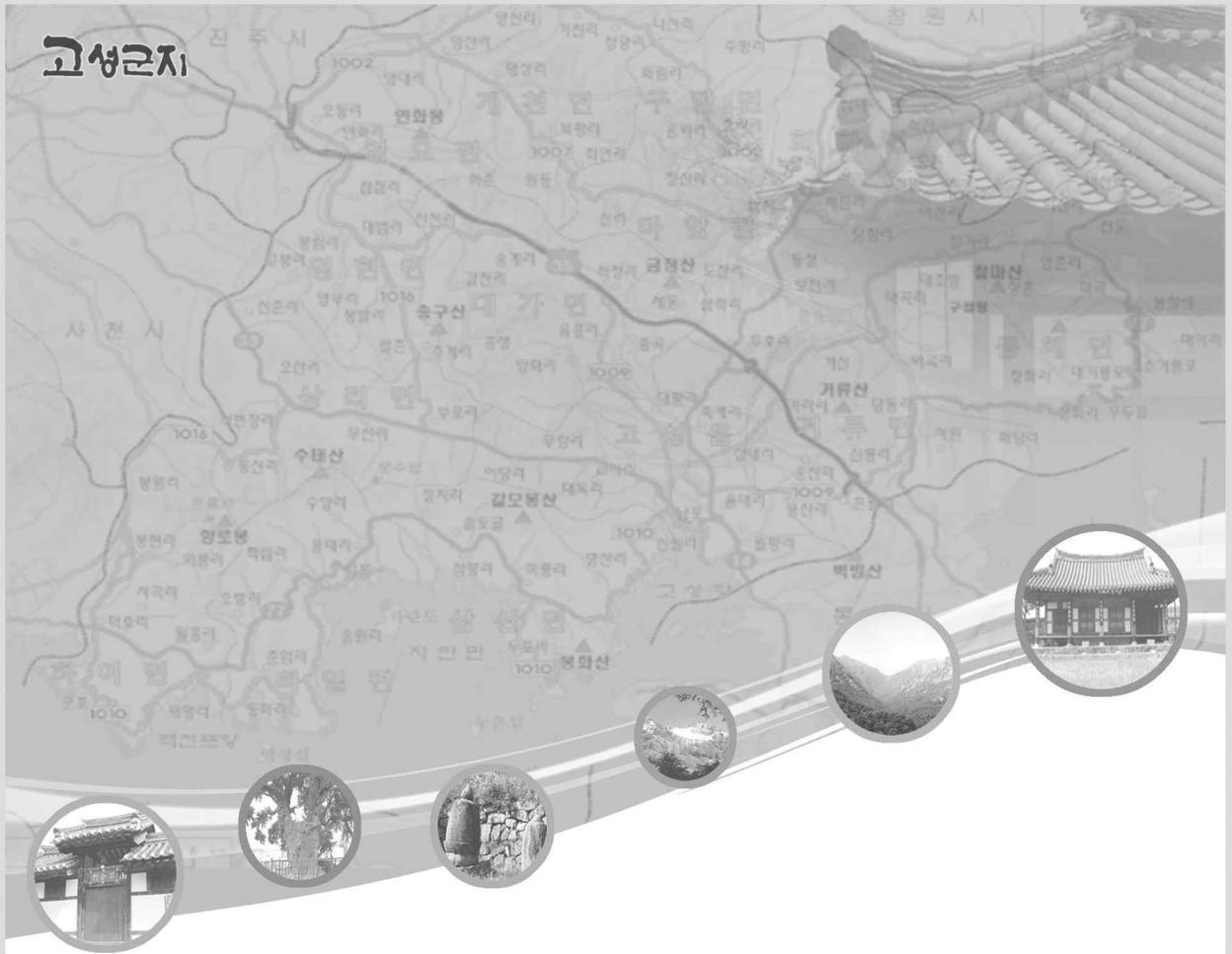


고성군지



제 13편 문화재 · 누정樓亭 · 관광



제 13편 문화재 · 누정樓亭 · 관광

제 1장 고성의 문화재

제 1절 개 관

고성의 문화유산은 지질시대의 공룡발자국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성군 각지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들은 중생대 백악기의 고성의 기후와 환경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적합하였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선사시대 고성에는 수많은 고인돌(支石墓)이 세워진다. 특히 이러한 고인돌들은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등의 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고성의 해안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활동하였음을 말해준다.

삼한시대 고성은 고자미동국(古資彌東國), 고사포국(古史浦國), 고자국(古自國), 구차(久嗟)·고차국(古嵯國)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솔섬 석관묘 유적과 동외동 유적은 소가야 성립의 모태가 된 정치체(政治體)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삼국시대 고성은 소가야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찬란했던 소가야의 문화는 고성 각지에 위치한 대형의 고총고분(高塚古墳)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분군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은 남해안을 무대로 이웃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던 옛 고성인의 위상을 보여준다.

중세에 들어 고성은 남해안 방어의 거점 도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고성군이 설치되고 고성읍과 거류산에 성곽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 활발한 불교의 대중화에 따라 고성군 각지에서도 사찰이 건립되고 불상이 제작되었다.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고성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위한 남해안 방어선의 하나였다. 이런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도 고성고읍성에서 확인된 명문기와에 나타난 ‘양호(養戶)’, ‘이품(二品)’의 명문은 당시 고성지역의 군사 및 조세의 수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원의 내정간섭이 한창이던 14세기 초, 고성에서는 이암(李岫)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배출되었다. 이암은 충선왕 5년(1313) 과거에 급제하여 공민왕 초에는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이르렀으며 송설체의 대가로서 당대의 문장가인 이제현과 함께 문수사 장경비의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이후 고성에는 이암과 그의 동생인 이교를 기리기 위해 갈천서원과 행촌도촌유허비가 건립된다.

조선시대 고성의 문화유산은 임진왜란과 깊이 관련된다. 7년간의 전쟁동안 적극적인 의병활동에 참여한 옥천사(玉泉寺), 운흥사(雲興寺)에 대한 지원은 이들 사찰에서 수많은 불

교문화재들이 제작되는 배경이 되며 전쟁에 참여한 의병들에 대한 포상과 그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고 정씨동생화회문기와 같은 관련 고문서등이 작성된다.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18세기, 고성에서도 커다란 문화적 업적이 탄생한다. 월봉 구상덕의 세심한 기록과 이를 중요시 여긴 후손들의 노력으로 당시 사람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승충명록(勝聰明錄)이 탄생하게 된다. 근현대 사회적 혼란과 모순 속에서 일반 대중을 위로하고자 오광대놀이가 탄생하였으며 창원, 통영오광대의 영향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인 고성 오광대가 탄생하였으며 농사일의 고됨을 덜어주며 고성인들의 음악적 예술성을 잘 표현한 고성농요도 현대에 이르러 정립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한편 자란만의 아름다운 경치를 앞에 두고 고즈넉이 자리잡은 하일면 학동마을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 2절 지정문화재

1. 보물 제495호 옥천사 청동북(固城 玉泉寺 靑銅金鼓)

수 량 / 면 적 : 1점

지 정 (등 록) 일 : 1968.12.19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옥천사 (북평리)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청동북은 불구(佛具) 중에서 범음구(梵音具)에 해당되는 것으로 편면(片面)인 것은 반자(飯子), 양면(兩面)인 것은 금구라고도 하며 종교적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다.

옥천사 청동북은 편면의 반자로 지름 55cm, 너비 14cm이며 표면은 동좌구(撞座區)·내구(內區)·중구(中區)·외구(外區)로 사분되고 당좌는 화문형(花文形) 중권(重圈)속에 1+6의 연자(蓮子)를 두고, 내구에는 연화문(蓮花文)을, 외구에는 당초문(唐草文)을 두었다. 옆면은 중앙에 굽게 돌출된 선이 있어 위 아래로 구분되고, 선 위로 둥근 모양의 고리가 3개 있어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측면에는 청동북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북은 고려사반자(1213)를 제작한 개경의 별장동정(別將同正) 한중서(韓仲敘)가 1252년(고종39년) 고종의 환갑을 맞이하여 추밀원우부승선(樞密院右富承宣) 손정열(孫挺烈), 상서(尙書) 황보기(皇甫琦), 검교상서(檢校

尙書) 유승석(兪承錫) 등의 주도로 60여근의 반자를 주조하여 지리산 안양사에 시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은 안양사가 폐사된 이후 옥천사로 이관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청동북은 무늬가 뚜렷하고 손상이 없어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가지며 옆면의 글을 통해 만든 시기와 유래, 관계자의 성명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보물 제1317호 운흥사 괘불탱 및 궤(雲興寺掛佛幀·櫃)

수 량 / 면 적 : 일괄(1폭, 1점)

지 정 (등 록) 일 : 2001.08.03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괘불이란 ‘거는 불화’ 라는 뜻으로 보통 길이가 7미터에서 1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의식용 불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괘불은 조선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도의식에 사용될 목적으로 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천도의식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영산회(靈山會) 또는 영산재(靈山齋)라 불리는 것으로 운흥사 괘불탱 역시 이와 같은 의식을 위한 괘불이라 볼 수 있다.

운흥사 괘불탱은 영조6년(1730) 당대의 화승 의겸(義謙)을 비롯하여 모두 17명의 화승(畵僧)이 그린 것으로 삼베 바탕에 채색을 하였으며 1,060cm × 738cm의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림은 영산회 의식집(儀式集)의 내용에 따라 영산회상의 대표적인 불보살만을 배치하였다. 그림의 가장 가운데는 영산교주(靈山教主)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있으며 그 상단으로 증청묘법(證廳妙法) 다보여래불(多寶如來佛), 극락도사(極樂導師)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있다. ‘영산교주 석가모니불’은 『법화경』을 설하는 영취산의 교주가 석가모니불임을 뜻한다. ‘증청묘법 다보여래’는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석가의 설법이 묘법임을 찬탄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또 서방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은 ‘극락도사 아미타불’로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주변으로는 여의주와 경책(經冊)을 지닌 문수·보현보살, 보관에 각각 화불과 정병을 지닌 관음·세지보살이 배치된다. 그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여러 문양들과 각 인물마다 표기되어 있는 붉은색 범자(梵字)이다. 문양은 연꽃무늬, 덩굴무늬, 구름무늬와 등근무늬,

잔꽃무늬, 점무늬인데, 그 중에서도 덩굴꽃무늬와 연꽃무늬, 구름무늬는 삼존의 주된 문양으로서 화면 전체에 걸쳐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범자는 각 인물의 이마 위 중앙과 두 눈썹 위, 눈꺼풀, 중간계주와 정상계주 및 육계 정상 또는 보관 하단과 정상, 목 윗부분 중앙과 가슴 위·아래, 그리고 발목 부분에 찍어져 있다.

운홍사 괘불탱은 신체비례가 적당한 인물의 형태와 이목구비의 표현, 조화롭고 밝은 색채의 사용, 세련된 필치의 화려하고 정교하고 다양한 문양, 주된 인물을 중앙에 크게 그린 다음 기타 인물을 뒤로 물러나게 배치하는 구도법 등 의겸의 특징적인 표현수법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는 국보 제302호로 지정된 진주 청곡사영산회괘불탱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괘불을 보관하는 궤는 뚜껑 윗부분 일부가 결손된 것 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괘불탱 조성 1년 뒤인 조선 영조 7년(1731)에 만들어진 이 궤는 '만·왕·십자(卍·王·十字) 및 범자(梵字)' 무늬가 투각되어 있는 궤 부착의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속장식 또한 보기 드문 예로 당시의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다.

3. 보물 제1693호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지 정 (등 록) 일 : 2010.12.2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옥천사 (북평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十王圖]는 1744년 화승 효안(曉岸)의 주도하에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조성되었다. 현재 제1진광대왕도와 제2초강대왕도가 결실되어, 지장보살도 1점과 시왕도 8점이 남아 있다. 이 9점의 불화와 함께 옥천사에는 1744년 효안이 제작한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가 전하였으나, 현재 도난당하여 남아 있지 않다.

지장보살도는 화면 중앙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그 좌우를 2단으로 나누어 하단에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2보살을 그리고, 상단에 대칭으로 6보살을 배치하였다. 상단의 6보살 중 지장보살의 좌우 보살은 정면상을 취하고, 나머지 권속들은 중앙의 지장보살을 바라보게 표현하여 화면의 구도가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다.

시왕도는 한 쪽에 각 1위(位)의 시왕을 묘사한 형식을 취하였다. 각 화면은 용두가 장식된 의자에 좌정한 시왕과 권속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고, 하단에 채운(彩雲)으로 화면을 구

확하여 각 시왕에 해당하는 지옥 장면을 묘사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각 시왕의 권속들이 배치하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이 묘사 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시왕도는 1742년 범어사 시왕도가 가장 이른 예로 알려졌으나, 범어사 시왕도는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 이후 시왕이 각각 1폭으로 조성되는 시왕도는 옥천사 시왕도에 시왕의 의자 뒤로 병풍을 추가한 형식이 다수 제작되었다. 1764년 시왕도(호림박물관 소장)나 1798년 통도사 시왕도 등이 그 예에 속하며, 이는 18세기 후반 시왕도의 전형이 되었다.

현재 옥천사 지장보살도는 색의 오염과 화면 꺾임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본존과 다른 권속들의 상호는 원형이 잘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왕도는 개체한 흔적이 없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지장보살도와 제9도시대왕도(第九都市大王圖)는 바탕천의 재질이 비단이며, 나머지 7점의 시왕도는 모시바탕에 제작되었다. 18세기 명부전 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4. 보물 제1694호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固城 雲興寺 觀音菩薩圖)

지 정 (등 록) 일 : 2010.12.2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운흥사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1730년 의겸(義謙)이 수화승을 맡아 운흥사 삼세불도와 삼장보살도, 감로왕도를 조성할 때 함께 제작한 것이다. 불화 조성에는 의겸 외에도 행종(幸宗), 채인(採仁)이 참여하였다. 운흥사 관음보살도 외에 의겸이 제작한 관음보살도는 1723년 여수 흥국사 수월관음도(보물 제1332호)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1730년 수월관음도(보물 제1204호)가 있다. 그리고 불상으로는 1730년 부산 내 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7호)도 전한다.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보타라각산에 유희좌 자세로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정병, 청조, 1쌍의 청죽, 선재동자를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운흥사 관음보살도의 기본적인 구성과 도상은 1723년 흥국사 수월관음도와 동일한데, 정병과 청죽 1쌍, 청조의 위치가 좌우 바뀌었고, 화면 하단에 용녀와 용왕이 등장하는 점, 복식의 문양이 간략해진 점 등이 차이가 있다. 관음보살의 표현은 1730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와 흡사하다.

머리에 입상의 화불을 모신 보관을 쓴 관음보살은 오른손으로 바위를 짚고, 왼손은 무릎에 올렸으며, 변형된 유희좌의 자세로 암반 위에 앉아 있다. 화면 하단 향좌측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있으며, 향우측에는 여의주를 받든 용녀와 홀을 든 용왕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음보살도의 형식은 1858년 통도사 관음전 후불탱, 1868년 운문사 관음보살도, 1869년 향로암 관음보살도 및 18~19세기 후불벽 배면에 벽화로 그려진 수월관음도 도상으로 이어진다.

운홍사 관음보살도는 의견이 제작한 다른 관음보살도 가운데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용왕과 용녀의 화면 구성이 가장 알맞고, 상호의 묘사도 여성스럽다. 또한 의견 특유의 수목담채풍이 잘 반영되어있어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5.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固城松鶴洞古墳群)

지 정 (등 록) 일 : 1963.01.2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

시 대 :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나지막한 독립구릉인 무기산(舞妓山)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고분군이다. 일제강점기 도리이류조[鳥居龍藏]가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이 일대에 4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후 개간 등으로 모두 멸실되고 현재 송학동470번지 일원에 8기, 기월리에 2기, 고성여중 운동장 및 송학리 마을일원에 4기로 모두 14기가 남아있다.

송학동고분군의 중심고분인 송학동1호분은 무학산의 가장 정상부에 위치하며 장축의 길이가 66m에 달하는 장타원형 형태의 대형분이다. 송학동1호분은 그 형태적인 특징에 의해 일찍부터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송학동고분군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송학동1호분은 전방후원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시굴조사 당시 대부분의 고분들이 경작 및 주거로 인해 훼손되어 있었으며 가장 대형분이 1호분만이 정밀발굴조사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송학동고분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학동1호분은 2기의 봉토분이 연접하여 조성되고 다시 두 봉분 사이를 메워 1기의 고분이 중첩하여 축조되면서 형성되었다. 가장 먼저 축조된 것을 1A호분, 1A호분의 북쪽에 연접하여 설치된 것을 1B호분, 두 고분사이에 메워 축조한 것을 1C호분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 고분이 조성된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로 보여진다.

둘째, 송학동고분군의 고분들은 모두 분구묘(墳丘墓)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분구묘란 분구를 먼저 조성한 뒤 분구 내부에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를 안치하는 형태의 무덤으로 매장주체부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위치한다. 이는 다른 가야지역의 지하식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과 대별되는 요소로서 이러한 분구묘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영산강유역 고분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송학동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분구묘 묘제의 사용은 고대 고성지역이 바다를 통해 영산강유역 세력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송학동1B호분의 중심무덤인 1B-1호분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으로 현실(玄室)의 서쪽 벽 가운데에 연도(軟道)를 둔 양수식(兩袖式)의 석실이다. 특이한 점은 현실과 연도의 벽면과 천정이 모두 붉게 채색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무덤내부를 채색하는 예는 일본의 큐슈(九州)지역과 칸사이(關西)지역의 고분시대 고분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가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성송학동고분군 1B-1호분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무덤 내부에서는 다량의 왜계(倭系) 유물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무덤의 주인은 왜인 또는 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다.

넷째, 송학동1호분에서는 나무덧널무덤(木槨墓)에서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으로 이어지는 삼국시대 무덤양식의 변화과정이 순차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단일고분에서 3종류의 묘제가 확인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송학동고분군의 사적으로서 가치를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성송학동고분군은 삼국시대 고성지역 지배자의 무덤으로 가야의 토착적인 무덤양식을 토대로 분구묘라 불리우는 영산강유역의 무덤양식과 채색고분이라는 일본의 무덤양식을 받아들인 특별한 형태의 고분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고성 소가야의 개방성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성읍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소는 삼국유사 오가야조에 등장하는 소가야의 중심지가 고성이라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 고고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6.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固城內山里古墳群)

지 정 (등 록) 일 : 1963.01.21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번지
 시대 :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적포만(赤浦灣) 입구 해안가 구릉의 해발 20m정도에 위치해있는 60여기의 고분군으로 1963년 1월 사적 제120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도굴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1997~2005년까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송학동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분구를 먼저 조성한 후 그 내부에 매장시설을 구축하는 이른바 분구묘를 기본토대로 조성된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과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이 확인되었다.

1998년 조사에서 발견된 8호분은 하나의 분구(墳丘) 내에 다수의 구덩식돌덧널무덤이 배치된 다곽식(多槨式)무덤으로 송학동고분군의 1A호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의 분구묘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 중심세력의 특징적인 고분축조 방식으로 여겨진다. 8호분에서는 고성지역 양식 토기를 중심으로 신라계(新羅系)의 영락대부장경호(瑩珞臺附長頸壺), 영산강유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공광구소호(有孔廣口小壺) 등이 출토되었으며 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초반으로 여겨진다.

1999년 조사에서 확인된 34호분은 분구의 중앙에 굴식돌방무덤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에 구덩식돌덧널무덤 5기를 배치하였는데 송학동고분군의 1B호분과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돌방[石室]의 형태와 특징에 있어 양수식 석실이라는 점은 송학동1B-1호분과 같으나 매우 세장한 형태의 채색고분(彩色古墳)인 송학동1B-1호분에 비해 세장도가 떨어진다. 34호분에서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각종 소가야계 토기를 비롯하여 영산강계, 신라계, 왜계(倭系)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2000년에는 다곽식 구덩식돌덧널무덤인 1호분과 62호분이 조사되었으며 2001년에는 21호분과 28호분, 2003년에는 굴식돌방무덤인 60, 64, 65호분이 조사되었다. 2005년 조사에서는 능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구덩식돌덧널무덤인 35호분과 37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내산리고분군의 대부분은 6세기 전반에서 중반의 시기에 조성된 고분으로 개별 고분의 규모와 인근에 양촌리고분군과 양촌리토성 등이 위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소가야의 차상위집단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포만과 외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내산리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차상위집단은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읍으로 들어

가기 위한 해상관문(海上關門)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7.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固城 德明里 恐龍과 鳥足痕 化石產地)

지 정 (등 록) 일 : 1999.09.1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65 (덕명리)

시 대 : 원시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재정부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 덕명리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로 양적으로나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며, 중생대 새발자국 화석지로는 세계 최대이다.

이곳은 다양한 퇴적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1억 2천만년 전 생물의 생활흔적이 많이 나오 고 있어, 공룡의 생활상, 자연환경, 퇴적환경, 해륙분포, 새의 진화과정 등을 알 수 있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화석지이다. 또한 이곳은 기묘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 바닷물에 깎여 생긴 해식동굴 등 해안의 경치 또한 뛰어난 곳이다.

이곳의 상죽암이라는 바위에는 새로운 옷을 즐겨 입기를 좋아하던 옥황상제가 하루는 상 죽암의 절경에 감탄하여 저곳에서 베를 짜면 좋은 옷이 될거라면서 선녀들과 베틀을 함께 내려보내니, 선녀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베를 짜서 옥황상제께 금의를 만들어 올렸다는 전 설이 전해오고 있다.

고성 덕명리의 고생물 화석산출지는 과거 생물의 생활 흔적뿐 아니라 자연경치가 뛰어나 고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다.

8. 천연기념물 제475호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固城 桂承寺 白堊紀 堆積構造)

지 정 (등 록) 일 : 2006.12.05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성내리)

시 대 : 원시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계승사 외

관리자(관리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계승사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형성된 물결자국, 빗방울 자국, 공룡발자국 화석 그리고 퇴적 층리(層理) 등이 계승사 경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여러 21종류의 물결자국이 확인되고 있으며 가장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이르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그 밖에도 전형적인 형태의 빗방울자국, 퇴적구조 층리와 용각류(4족 보행, 초식)·수각류(2족 보행, 육식)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연구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9.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固城五廣大)

지 정 (등 록) 일 : 1964.12.24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오광대보존회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오광대보존회

오광대는 탈을 쓴 채 태평소, 북, 장고, 썰매, 징 등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일종의 뮤지컬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오행구조(五行構造)를 다섯 개의 과장으로 모방한 탈놀이라는 연유 또는 다섯 광대가 등장하여 노는 연희라고 하여 오광대라 불리운다. 이전에는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나 현재는 상설적인 하나의 문화공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성오광대는 고성지역의 지신밝기, 풍물놀이, 나례와 같은 민속연희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오광대의 형식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초 창원 출신 고성군 관속인 이순오가 고성읍의 남촌파(南村派) 사람들에게 탈놀이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고성사람들이 통영오광대 연희를 보고 시작하였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 원류에 있어 창원과 통영 오광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광대는 제1과장 문둥이복춤, 제2과장 양반과장, 제3과장 비비과장, 제4과장 승무, 제5과장 저밀주(제밀주)의 5마당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그리고 처와 첩의 문제 등을 민중의 삶의 모습과 함께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밑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매우 신랄하다.

고성오광대는 다른 지방의 오광대에 비해 놀이의 앞뒤에 오방신장춤, 사자춤 같은 귀신 쫓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식무가 없고 오락성이 강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오광대의 탈은 예전에는 종이로 만든 탈이 특색이었으나, 근래에는 오동나무로 만든 나무탈을 사용하기도 하고 종이탈, 바가지탈을 쓰기도 한다. 주된 춤사위는 덧뵈기(탈놀이)춤인데 배역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춤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반주음악으로는 쟁과리, 징, 장구, 북 등 타악기가 주로 사용된다.

10.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固城農謠)

지 정 (등 록) 일 : 1985.12.01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농요보존회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농요보존회

농요란 농민들이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소리라고도 한다.

고성농요는 김석명이 1971년부터 정리한 노동요를 바탕으로 1977년 고성농요 전수회를 창립하고, 1977년 제28회 개천예술제 최우수상 수상, 1978년 제 10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9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1979년 경남 지방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84호로 승격되었다.

고성농요는 구성에 있어 계면조와 메나리조가 공존하는 고성지방의 특색을 그대로 반영하고 후렴구가 없이 교창노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의 노래가 각각 다르며 부모에 대한 효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고성농요는 4·4조의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도리깨타작소리, 삼삼기소리, 물레질소리의 다섯 마당 놀이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마당에서는 모질 때에는 긴등지소리와 짜른 등지소리가 불려지며, 모심을 때는 모심기 긴등지소리와 짜른 등지소리가 불려진다. 시간과 일의 내용에 따라 장단과 노랫말이 다르다. 둘째 마당의 도리깨소리는 고성 특유의 메어 때리기식 도리깨질을 하면서 상도리깨의 지시에 따라 메기고 받는 소리로 매

우 흥겹게 부르기 때문에 힘이 절로난다. 셋째 마당의 삼삼기는 여러 명의 부녀자가 두레 삼을 삼으면서 조상을 공경하고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마당에서는 논매기소리를 하는데 오전에 상사소리, 오후에 방애소리를 하며 논매기를 다 마치고, 큰 머슴을 팽이자루에 태우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치기나 칭칭’ 소리로 한바탕 즐긴다. 마지막 다섯째 마당의 물레소리는 여러 명의 부녀자가 직접 물레로 실을 뽑으면서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한다.

1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옥천사자방루 (玉泉寺慈芳樓)

지 정 (등 록) 일 : 1972.02.1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의 기슭에 위치한 옥천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가 지은 절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6차례의 중창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가람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전후 인조17년(1640)에 학명(學明)과 의오(義悟)대사에 의해 7번째 중창이 시작되어 1654년 단청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옥천사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자방루(慈芳樓)는 옥천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조선시대 영조 40년(1764)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이며 단층기둥 위에 공포를 짠 주심포계 팔작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찰에서 누각은 일반적으로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는데, 자방루 역시 앞마당과 누각의 마루를 거의 같은 높이로 하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입하기 쉽도록 하였다. 대웅전 마당 쪽을 향하는 면은 난간을 설치하여 개방하였고 서쪽과 북쪽 면은 벽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북쪽 면은 7칸 모두 2짝씩의 널판창문을 달아 창호를 개방하였을 때 자방루 앞마당에서 대웅전까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 큰 법회나 야외의식이 있을 때에도 유용하도록 지어졌다. 또한 옥천사에는 상당수의 승군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훈련 및 지휘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

한편 자방루에는 옥천사 괘불의 조성과정을 기록한 「玉泉寺掛佛畫成造記」(1808)가 전하고 있다.

1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옥천사향로 (玉泉寺香爐)

지 정 (등 록) 일 : 1972.02.1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북평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향로란 절에서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진 향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옥천사 향로는 높이 23cm, 입 지름 27.5cm인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입 주위에는 넓은 테를 가진 전이 있다. 테 안쪽으로 ‘의령수도사’ 라고 점선으로 새긴 글자가 있다.

향로 몸체의 둘레에는 4곳에 꽃 모양으로 창을 만들고, 그 안에 봉황을, 남은 공간에는 빈틈없이 덩굴무늬를 새겨 넣었다. 아랫부분의 받침대에는 문양이 없고, 그 형태가 몸체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조선 순조 16년(1816)에 보수하였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향로는 무늬를 먼저 새긴 다음 은으로 입히는 은입사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기법은 표충사 소장 향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작기법과 그 형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시기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0호 옥천사동종 (玉泉寺銅鐘)

지 정 (등 록) 일 : 1972.02.1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북평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조선시대 청동으로 만든 높이 110cm, 입 지름 82.5cm의 종이다.

종을 때는 용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등지고 앉아,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를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용의 한쪽 다리가 일부 결실되어 있다. 종의 윗 쪽 띠에는 2자씩으로 연결된 80여자의 범자가 새겨 있으며, 아래쪽 띠에는 연꽃 당초무늬가 새겨 있다. 범자무늬 아래에는 4곳에 정사각형의 유곽이 배치되었는데, 유곽은 덩굴무늬를 그려 만들었다. 유곽 안에는 9개의 도드라진 유두가 있으며,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삼존불이 양각되어 있다. 아래쪽 띠 위편에는 ‘건륭 41년’으로 시작되는 글이 있어, 조선 숙종 27년(1701)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1862년 진주 민란의 영향이 옥천사에 미치게 되자 종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파괴되었으나 이후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1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운흥사대웅전 (雲興寺大雄殿)

지 정 (등 록) 일 : 1974.02.1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377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와룡산 중턱에 있는 운흥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가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그 뒤의 역사는 전하지 않지만, 임진왜란(1592)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이곳에서 왜적과 싸웠다고 하며, 대웅전은 이 때 불에 타 없어졌다. 그 뒤 영조 7년(1731)에 다시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운흥사의 대웅전은 앞면 5칸·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단순한 맞배지붕집이다.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하는 공포가 복잡한 다포식으로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포가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괘불(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1호)과 조선 후기에 제작한 묘법연화경경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불단의 조각이 특히 화려하다.

1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5호 정씨동생화회문기(鄭氏同生和會文記)

지 정 (등 록) 일 : 1979.05.0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고성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박물관

노비·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父)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급하는 경우도 있

으나, 재주가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주 사후에 부인과 자녀에 의하여, 또는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화회문기이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분깃 [分衿 : 재산 몫을 나눔] 하게 된다. 조선 전기에는 대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재산상속에 있어서 승중자(承重子)에게 봉사조(奉祀條)를 비롯하여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상속되었고, 중자녀의 몫은 훨씬 줄어들었다. 화회문기는 관서(官署 : 관부의 公證 또는 立案)가 필요 없이, 그 문기만으로 완전한 분재문서가 되었다.

화회문기의 내용은, 첫 행에 문기를 작성하는 해의 연호와 연월일 및 화회참가범위를 쓰고, 화회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밝히며, 형제자매의 각 몫 [衿] 을 일일이 기재한 뒤, 끝에 화회분깃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다.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에 따라 문기를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였다.

정씨동생 화회문기는 임진왜란 당시 고성지역의 의병장으로서 활약하다 전사하고 후에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오른 정확(鄭廓)의 재산을 아들 정개건, 정개세가 두 형제에게 분배해 준 문서로서 17세기 초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의병장 가계의 경제적 상황과 당시 화회문기의 작성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양화리석조여래좌상 (楊化里石造如來坐像)

지 정 (등 록) 일 : 1974.12.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67번지 대무량사

시 대 : 통일신라

소유자(소유단체) : 대무량사

관리자(관리단체) : 대무량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의 우방사 절터에 있던 것을 1964년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대무량사로 옮겨왔다.

머리 위에 있던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은 떨어져 나가 시멘트로 보수하였으며, 얼굴은 등

글고 이목구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표정이 부드럽다. 어깨가 넓고 각이 진 건장한 신체이며,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 또한 얇게 표현하여 신체의 윤곽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 부근까지 들어 올려 손가락을 마주 잡고 있으나 끝 부분이 깨져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하체는 상체와 잘 조화되어 안정된 자세를 보이며 두 발은 모두 노출되어 있다.

조각수법, 안정된 자세, 얼굴 세부의 표현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여겨진다.

1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교사리삼존석불 (校社里三尊石佛)

지 정 (등 록) 일 : 1974.12.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235번지

시 대 : 통일신라

소유자(소유단체) : 석불암

관리자(관리단체) : 석불암

중앙에 앉아 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지장보살, 왼쪽에 관음보살이 서 있는 삼존불(三尊佛)이다. 모두 머리와 손, 발 등이 없어진 채로 흩어져 있던 것을 석고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본존불은 왼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으며 옷주름을 부드럽게 새겼고, 두 팔은 모두 내려 무릎 부근에 대고 있다. 수염의 표현과 꼭 다문 작은 입이 인상적이며 귀는 길지 않다.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본존불과 같은 얼굴이며,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입었다. 관음보살은 주먹을 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으며 머리에는 관을 썼다. 팔·다리 등의 근육, 옷을 입는 법, 건장한 신체 등으로 보아 불교의 수호신인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불신만 남아 있으나 대좌와 불상 뒤편에 있는 광배의 일부, 돌사자 조각 등이 부근에 흩어져 있다.

1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옥천사대웅전 (玉泉寺大雄殿)

지 정 (등 록) 일 : 1974.12.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북평리)

시 대 : 통일신라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옥천사는 연화산 기슭에 있는 절로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이 지었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인조 17년(1639)에 다시 지었다.

옥천사 대웅전은 절의 중심에 있는 법당으로 석가모니를 모시는 건물이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효종 8년(1657)에 용성화상이 다시 지었으며,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1층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계 양식이다. 내부의 천장은 2단으로 된 우물천장이고, 불단이 있으며 그 뒤에는 탕화가 걸려있다. 대웅전 앞에는 좌우에 당간지주가 있다.

옥천사 대웅전은 조선시대 법당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1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운흥사소장경판(雲興寺所藏經板)

지 정 (등 록) 일 : 1979.12.29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와룡리)

시 대 :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고성 운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관련 목판들이다. 전체 16종 194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목판들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새겨진 것들로 대승 경전과 불교 의식 관련 문헌들을 인출하기 위해 판각한 경판들이다. 이 가운데 정토 신앙의 근본 경전인 『불설아미타경』 15장은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을 숙종 28년(1702)에 다시 그대로 새겨 간행한 복간본이다. 그밖에도 『계초심학입문』 2장, 『고봉화상선요』 1장, 『금강반야바라밀경』 14장, 『대방광불화엄경』 33장, 『독성청』 1장, 『묘법연화경』 31장, 『범본문』 4장, 『북두진경』 8장, 『사명일상주근공』 8장, 『송고왕관세음경감응』 6장, 『운수단』 14장, 『제반문』 46장, 『진언집』 16장이 있다.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판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운흥사가 조선 후기 목판 인

쇄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2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향교 (固城鄉校)

지 정 (등 록) 일 : 1983.08.1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3길 41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재단법인 경남향교

관리자(관리단체) : 재단법인 경남향교

고성향교는 지방 교육 시설로 성현을 제사하고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고성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530년(중종 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향교는 현의 서쪽 5리 지점에 있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고성향교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나 1607년에 현령 정여린(鄭如麟)과 도감(都監) 이현(李顯)에 의해 재건되었다. 1832년에 간행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에는 향교의 위치에 대하여 ‘문묘는 현의 북쪽 5리에 있다. 이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1832년 이전에 향교의 이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69년(고종 6년) 고성현(固城縣) 춘원면(春元面) 발생한 호적분규사건(戶籍紛糾事件)의 결과 고성현이 통제영(統制營)의 직속 관할이 되고 고성향교 역시 죽림리(竹林里)로 이설된다. 1874년 고성현 치소를 다시 되돌리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이듬해인 고성으로 환읍하게 됨에 따라 향교도 고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후 1904년에 대성전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들을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향교는 고성의 서쪽에 있는 낮은 구릉의 계곡 상류부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완만한 경사면에 높은 곳에는 제향 영역을, 낮은 곳에는 강학 영역이 남북축선상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이다. 제향 영역은 대성전과 대성전 정면의 내삼문을 두고 좌우에 동무와 서무를 둔 ‘口’ 자형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동무와 남쪽에는 사주(四柱)문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5칸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정면에 0.5칸의 틈간을 두고 나머지 2칸은 통칸마루방이다. 대성전 내부에는 중앙 후면에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우 정면쪽으로 각각 2명의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공포 양식은 외1출목(出目) 2익공 양식이며 상부가구는 출목도리를 제외한 도리가 다섯 개인 5량가이다. 강학 영역은 명륜당과 명륜당 정면에 풍화루(風化樓)가 있고 우측에는 동재(東齋)에 해당하는 경신재

(敬身齋)가 있으며 좌측에는 서재(西齋)가 비대칭형으로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몸체에 좌우에 정면 0.5칸 측면 1칸을 마루를 부가하여 평면은 ‘ㄷ’ 자형이다. 평면은 중앙에 마루 3칸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각각 1칸을 두었다. 공포 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다섯 개인 5량기이다.

2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 고성옥천사소장품 (固城玉泉寺所藏品)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시 대 : 조선시대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고성 옥천사에 소장되고 있는 총 110점의 유물로서 다양한 종류의 역사 및 종교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 법고와 삼존위목대, 동제향로, 바라 등이 있다. 크기가 가로 81cm, 세로 78cm인 법고는, 독경을 하거나 염불을 외울 때, 리듬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옥천사유물전시관에 전시중에 있다. 삼존위목대는 가로 34.5cm, 세로 54.5cm 크기로, 구름과 용·봉황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아름답게 채색하였다. 동제 향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옥천사 동제향로에 비해 세장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향로 동체부에 범자를 비롯한 명문을 새기고 연꽃무늬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그 외 불교 집전 행사용 도구인 바라가 있고, 1981년에 제작된 신상탱화와 큰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 있으며, 예불 행사용 불구인 핑소와 동제 밥그릇 등이 있다.

2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고성운흥사감로탱화 (固城雲興寺甘露眞畫)

지 정 (등 록) 일 : 2000.08.31
 소 재 지 : 쌍계사 성보박물관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효(孝) 사상과 결합하여 크게 성행한 감로탱화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해 그린 불교그림

으로, 부처를 극진히 대접하여 조상의 영혼이 지옥세계로부터 구제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은 크게 세부분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의 맨 윗부분에는 불·보살의 모습이 표현되었고, 중간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성반(盛飯)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먹지 못해 고통받는 아귀왕과 함께 지옥장면, 싸우는 모습, 형틀에 묶여있는 모습, 광대패놀이, 호랑이에게 쫓기는 모습 등등 인간이 그 업보에 따라 겪게 되는 갖가지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2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고성운흥사미타회탱화(固8城雲興寺彌陀會幀畫)

지 정 (등 록) 일 : 2000.08.31

소 재 지 : 쌍계사 성보박물관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부처를 묘사한 탱화로, 화면 가운데 주불인 아미타부처를 크게 배치하였다. 아미타불은 양어깨를 모두 덮고 있는 옷을 입고, 오른발을 왼무릎에 얹고 있는 길상좌(吉祥坐) 모습이다. 그림의 맨 위부분에는 아미타부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 성중(聖衆)의 무리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흰옷(白衣)을 걸친 관세음보살을 위시한 아미타 8대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있다.

이 그림은 운흥사약사탱화(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58호)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도와 인물의 형태, 색채를 보여주고 있어 동일 작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2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8호 고성운흥사약사탱화(固城雲興寺藥師幀畫)

지 정 (등 록) 일 : 2000.08.3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중생을 모든 병의 고통에서 구하고 치유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약사부처를 그림으로 그린 탱화이다.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부처를 가운데에 크게 배치하고, 약사부처 주위로는 맨 윗부분에 팔부신중을, 그 아래로는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들을 그렸다. 그리고 화면의 맨 아래 부분에는 좌우로 각각 두 분씩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연꽃대좌에 앉아 있는 약사부처는 양 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고 오른 발을 왼 무릎에 올려놓은 길상좌(吉祥坐)의 자세로 큼직한 키 모양 광배를 갖추고 있다.

2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3호 구상덕 승총명록

지 정 (등 록) 일 : 2006.04.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고성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박물관

『승총명록』은 월봉 구상덕(月峯 具尙德, 仇尙德 : 1706~1761)이 영조 원년(1725) 7월부터 같은 왕 37년(1761) 8월까지 기록한 것이다. 나이로 치면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부터 56세로 별세하기 바로 직전까지 쓴 37년간의 일기이다. 따라서 그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만 빠져 있을 뿐 청장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시절에 대한 일상생활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책명인 『승총명록』의 의미는 ‘기억은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쓴 기록’이라는 뜻이다.

구상덕은 일생동안 고성에서 살았다. 충원부에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한 차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경상도 인근 고을에서 실시되는 지방 과거 시험[鄉試]에 응시하기 위해 경상도의 몇몇 고을에 가 본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평생 동안 고성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일생동안 고향인 고성에서 칩거해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제자를 가르친 평범한 인물이며 이 일기도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그대로 쓴 기록이다. 비록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기록한 일기이기는 하나 18세기 농촌사회의 실상과 그 사회에서 사는 일반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관아일기나 사환일기, 기행일기, 생활일기 등 여러 종류의 일기가 많이 세상에 소개되었고 이중에는 시기가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승총명록』처럼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하루하루의 기후와 물가에 대한 내용 등도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기후 및 경제분야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승총명록』은 고성지역뿐만 아니라 18세기 조선사회를 생생하게 그려낸 매우 중요한 기록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고성보광사목조대세지보살좌상(固城普光寺 木造大勢至菩薩坐像)

지 정 (등 록) 일 : 2008.10.30

소 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산리 44-7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보광사

관리자(관리단체) : 보광사

조선 후기 삼존상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17세기 전·중반의 목조상들과 비교해 규모도 작아지고 어깨도 약간 위축되었다

진주 연화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62호)과 비교할 때 보광사 불상은 불신은 작아졌지만 신체의 비례라든지 긴 콧날, 사선으로 접힌 승각기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며, 단지 우측 어깨의 대의 주름이 물방울 모양을 이루지 않고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은 본존상과 협시상이라는 격의 차이에서 표현의 간략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11호 고성 장의사 석조관음반가상(固城藏義寺 石造觀音半跏像)

지 정 (등 록) 일 : 2011.04.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9길 295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장의사

관리자(관리단체) : 장의사

장의사 보광전普光殿의 주존불로 대좌를 비롯해 보관, 불신 등이 모두 한 돌의 불석으로 조성되었다. 이 상은 암좌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올린 반가좌의 자세를 하고있으며, 보타락가산에 있는 관음보살상을 표현한 것이다. 상반신에 비해 암좌 위에 앉은 하반신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아래가 매우 무겁다. 방형의 얼굴은 이마와 턱이 좁고, 눈이 가늘고 길며, 콧등이 편평한 코와 얇은 입술에는 미소가 있다. 어깨는 좁고 빈약하며, 그 위에 매우 두꺼운 천의를 슬처럼 걸쳐 양 겨드랑이를 지나 양 팔로 걸쳐 바깥으로 넘겼다. 하반신에는 균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짧은 요의를 입어 끈으로 묶었다. 형식적인 상반신의 천의 모습과는 달리 두 다리 아래 주름진 치견(侈絹) 등은 얇고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장의사의 보살상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범어사 대성암 각해선림 석조불상과 닮았으며, 역시 표충사 박물관에도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석조보살상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관음보살과 관련된 불상이나 불화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바다에서 생업활동을 하는 이들의 무사안일을 비는 신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2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8호 고성 운흥사 목조삼세불좌상 (固城雲興寺 木造三世佛坐像)

지 정 (등 록) 일 : 2013.05.0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고성 운흥사 대웅전에 3구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본존상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우측에 아미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를 협시로 둔 삼세불의 도상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 존상 모두 자세 및 법의를 제외한 신체 비례, 얼굴 등의 특징이 거의 비슷하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와 머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어깨가 넓고 상반신이 당당하며 다리 폭이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본존의 수인은 향마촉지인으로, 오른손은 손가락이 땅을 내려 촉지인을 하고,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아 손바닥

을 펴고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 엄지와 맞대고 있다. 우측의 아미타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좌측의 약사상은 손의 위치가 우측의 약사상과 반대로 되어 있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방형의 얼굴에 턱은 둥글게 깎았으며, 양 볼과 턱이 통통해 보인다. 눈은 수평으로 가늘게 뜨고 있으며, 비교적 큰 코, 가늘고 작은 입술 등이 표현되어 있다. 본존불의 경우 법의가 변형 통견식으로 오른쪽 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왼쪽에는 어깨를 덮고 길게 내려와 있다. 승각기는 가슴에서 가로로 주름지게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양 불상의 경우 통견식의 법의가 손목까지 길게 내려와 주름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리 사이에는 넓은 가운데 옷 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왼쪽 무릎 앞으로 넓적한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2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5호 고성 이방 박영장 불망비 (固城 吏房 朴靈長 不忘碑)

지 정 (등 록) 일 : 2014.01.02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35번길 78-1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현의 이방 박영장의 공덕을 잊지 않고자 숙종 7년(1681)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불망비(不忘碑)이다. 이 비석은 최초 건립 이후 그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영조 30년(1754)년 홍수 때 발견되어 그 후손들이 다시 세웠다. 이후 비가 다시 매몰되자 철종 6년(1855) 그의 7대손 춘옥(春玉) 등이 그 간의 내용을 함께 새겨 다시 비석을 세우고 옛날 비는 비석의 좌우에 두었다고 하나 현재 마지막에 새긴 비석만 전하고 있다.

지방 수령의 치적을 기린 공덕비는 많이 내려오고 있으나 지방의 아전인 이방을 기리기 위한 비석은 매우 드물며 또한 3번에 걸쳐 비를 세운 것도 드문 경우로서 희소성 있는 금석문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30.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東外洞貝塚)

지 정 (등 록) 일 : 1974.12.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27 고성읍 중앙로 113번길 일원

시 대 : 삼한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동아대학교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동아대학교 외

동외동패총은 고성읍의 중심부에 위치한 낮은 구릉 경사면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유적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초기 사료조사 때부터 주목받아 관련 유리건판 사진들이 남아있으며 이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969~1971년, 1974년, 1995년의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다. 동외동에 대한 첫 번째 발굴조사는 1969~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팀은 적갈색연질토기(赤葛色軟質土器)에서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로의 변화과정을 밝히고자 동외동유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층부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와 더불어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층부에는 김해식토기 및 경질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은 삼한시대 적갈색토기에서 김해식토기를 거쳐 경질토기(硬質土器)로 바뀌어나가는 토기제작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1974년 천도교당의 건축을 위해 공사를 하던 중 대량의 패각층(貝殼層)과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수습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철 제련(製鍊)을 위한 송풍구가 발견되었으며 광형동모(廣形銅鏃), 동검손잡이, 중국제 청동거울편, 인문도(印文陶)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고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정치체가 중국의 한(漢)나라, 그리고 왜(倭)와 활발하게 교류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한편 동외동패총 발굴조사에서는 토광묘와 석관묘, 옹관묘가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고성지역 고대인들의 특징적 장례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1995년의 발굴조사는 국립진주박물관에 의해 동외동유적의 정상부 평탄한 지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탄지에서는 수많은 중복 수혈(竪穴) 유구(遺構)가 발견되었는데 조사단은 이 유적을 고대 제사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 수혈유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무늬청동기(鳥文靑銅器)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동외동패총에서는 탄화곡물(炭化穀物), 물개뼈 등의 자료들이 다량 발견되어 삼한시대 고성에 자리잡은 고자국(古自國)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31. 경상남도 기념물 제36호 오방리지석묘 (梧芳里支石墓)

지 정 (등 록) 일 : 1977.12.30

소재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산45 외 2개소
 시대 : 청동기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북방식(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남방식(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자란만으로 흘러드는 오방천의 동편 낮은 구릉과 평지에 위치한 오방리지석묘는 모두 남방식 지석묘로 북쪽 구릉지대에 2기, 평지에 1기가 있으나 평지의 것은 상석의 위치가 이동되어 있으며 주변 식목으로 인해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하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지하에는 시체를 안치한 돌널무덤[石棺墓]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방리 고인돌은 인근의 학림리, 석지리 지석묘와 함께 자란만 연안에 분포한 고성군의 청동기시대 무덤구조 연구와 문화 모습을 복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2. 경상남도 기념물 제37호 학림리지석묘 (鶴林里支石墓)

지정(등록)일 : 1977.12.30
 소재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571-7외 7개소
 시대 : 청동기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하일면 학림리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자란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학림천의 동편에 위치하는 6기의 남방식 지석묘이다. 원래 8기가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 6기만이 확인된다. 학림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며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상류에 위치한 학림리 773번지의 것이 높이 2.5m, 길이 3m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1968년 경지정리과정에서 돌널무덤 및 붉은간토기등이 확인되어 일부 지석묘의 하부

구조는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림리 지석묘는 자란만 주변의 소하천 주변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는 오방리, 석지리 지석묘등과 함께 청동기시대 고성지역 연안의 문화를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33. 경상남도 기념물 제38호 석지리지석묘 (石芝里支石墓)

지 정 (등 록) 일 : 1977.12.28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69
 시 대 : 청동기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홍성권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봉현천의 지류인 석지천의 동편에 위치한 남방식(바둑판식) 지석묘이다. 지석의 크기는 길이 2 ~ 3m, 너비 1.2 ~ 2m정도이며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5기의 지석묘가 인접하여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열을 이루고 있으며 지석의 하부에서 다량의 할석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1980년대 경작과정에서 지석이 파괴되며 그 아래서 돌널무덤과 돌화살촉, 돌칼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청동기시대 집터도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석지리 야산 남쪽의 양촌마을과 음촌마을에서도 지석묘가 확인되며 청동기시대 유물이 지표에서 수습된다.

석지리 지석묘는 오방리, 학림리 지석묘와 함께 자란만 연안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이들 지석묘 모두가 소하천의 동편에 위치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34. 경상남도 기념물 제82호 고성북평리찰피나무 (固城北坪里찰피나무)

지 정 (등 록) 일 : 1986.08.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시 대 :
 소유자(소유단체) : 청련암
 관리자(관리단체) : 청련암

찰피나무는 피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열매는 염주를 만드는데 쓰이며, 불교에서는 보리수라 부른다. 추위와 공해에는 강하지만 건조한 기후에는 잘 견디지 못해 서울·수원 등지

에서 자라고 있다. 나무의 형태가 아름답고, 잎의 질감과 색깔이 독특하며, 여름에 피는 꽃은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공해에도 강해 도심지의 가로수·공원수·생태공원에 좋다.

북평리의 찰피나무는 높이 약 15m, 둘레 2.18m에 달하고 있어 나이는 2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 앞에는 옛날부터 스님들이 앉아서 참선 수도하던 넓적한 돌들이 놓여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스님들이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파여 빗물이 고일 정도이다. 불교에서는 흔히 찰피나무를 보리수라 하여 귀하게 여기고 있으나, 석가모니가 도를 닦고 진리를 깨우쳤던 동인도 지역의 보리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이다.

북평리 찰피나무는 2006년 태풍 ‘위니아’의 피해로 고사하여 문화재해제를 검토하였으나 그 뿌리에서 근맹아(새싹)가 10여개 돋어나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3m정도의 높이로 자라나 있다.

35. 경상남도 기념물 제86호 고성장산숲 (固城章山 숲)

지 정 (등 록) 일 : 1987.05.19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231-2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김해허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김해허씨문중

고성 장산숲은 약 600년 전 조선 태조(재위 1392~1398)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성한 숲이라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길이가 1000m에 달했다고 하나 지금은 길이 100m, 폭 60m 정도만이 남아있다.

현재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약 250여 그루로 우리나라 온대 남부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소태나무, 검노린재나무, 배롱나무, 쥐똥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선 성종(재위 1469~1494) 때 이퇴계 선생의 제자였던 허천수 선생이 이 숲에 정자를 짓고 연못을 만들어 낚시와 산놀이를 즐겼다고 하며, 연못 중앙에는 조그만 섬이 만들어져 있어 숲의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해주고 있다.

고성 장산숲은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숲으로 옛 선조들의 자연이용이 슬기로웠음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연유산이다.

36. 경상남도 기념물 제138호 고성좌이산봉수대 (固城佐耳山烽燧臺)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산52-1, 오방리 138, 139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봉수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을 말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좌이산 봉수대는 하일면사무소에서 공통로를 따라 공통박물관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이산 등산로 표지판이 나온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올라가 좌이산 정상석 지점을 지나 가장 높은 두 번째 봉우리로 5분 정도 가면 봉수대가 나온다.

봉수대는 연안에 위치한 해발 415.3m인 좌이산의 정상에 위치하여 자란만 일대의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봉수대에서 동쪽으로는 통영 우산봉수대가, 서쪽으로는 사천 각산봉수대가 보이며 남쪽으로는 통영 사량진 주봉봉수대가 보인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좌이산 봉수대는 통영 주봉봉수대로부터 신호를 받아 사천 각산봉수대로 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 하였는데 봉수대는 연대, 방호벽, 거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변에 부속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부속건물지 내부 암반에서는 공룡발 자국이 1기 확인된다. 고성군 내 다른 봉수대들에 비해 그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37. 경상남도 기념물 제139호 고성소을비포성지 (固城所乙非浦城址)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398-4번지 일원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해안구릉의 9분 능선상에 위치한 석축성으로 성곽의 전체둘레는 330m이며 동서길이에 비해 남북방향의 길이가 짧은 주형(舟形)이다.

성곽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발굴조사되었는데 그 결과 생토층을 다듬어 그 위에 냇돌을 깔고 자연대석을 기단석(基壇石)으로 올린 후 내부는 소형할석으로 채웠으며 성석은 장대석을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교대로하여 쌓아올렸다. 성벽의 잔존높이는 지대석으로부터 4m정도이다.

성곽에는 동·서·북문을 두었는데 특히 북문이 가장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북문은 체성을 절개한 형태로 초축(初築) 당시 북문지의 규모는 정면 755cm, 측면 470cm정도이다.

성곽의 방어시설로는 3개의 치성(雉城)과 해자(壕字)가 발견되었다. 치성의 규모는 각각 3.2m×1.3m, 6m×4.2m, 7.2m×5.3m이며 체성과 함께 축조되었다. 해자는 자연암반층을 깊이 2m, 폭 6.4m의 규모로 U자상으로 굴착하여 설치하였다.

성곽의 내부에서는 군사관련 중심건물과 병사들의 숙소 등 8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북문지 서측으로 제련과 관련된 시설이 20기 이상 확인되어 성곽 내부에 공방시설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기와 및 자기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문기와도 일부 확인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15세기대의 분청사기(粉靑沙器) 편(片)을 들 수 있다.

성곽의 초축시기는 출토된 유물과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성종 22년(1491)으로 볼 수 있으며 영조 32년(1756)까지 여러 차례 수축(修築)을 거쳐 20세기에 들어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38. 경상남도 기념물 제140호 고성옥천사일원(固城玉泉寺一圓)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산50-1번지 외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외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연화산 도립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은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서 비슬산 옥천사를 화엄10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옥천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활동의 근거지로서 활약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왕실에 사용하는 종이를 공급하는 어람지(御覽紙) 제작소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근대에는 한국 불교정화운동을 이끈 청담(靑潭) 이순호가 출가한

사찰로 유명하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반영하듯 이곳에는 옥천사 청동북(보물 제495호), 옥천사 시왕도(보물 1693호) 등을 비롯한 수백 점의 유형문화재들과 대웅전, 자방루 등 수려한 고건축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 주변으로 청연암, 백련암, 연대암 등 유서 깊은 암자들도 자리 잡고 있어 그 존재 자체로 크나큰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39. 경상남도 기념물 제221호 고성천왕점봉수대 (固城天王岾烽燧臺)

지 정 (등 록) 일 : 1999.08.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산1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성군 대가면사무소에서 ‘충효테마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나온다. 여기서 50분 정도 등산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봉수대가 나타난다.

천왕점봉수대는 고성읍을 비롯한 고성의 내륙지역이 잘 조망되는 봉화산 정상부 해발 353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노선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동쪽으로는 동해면의 곡산봉수대에 응하고 남쪽으로는 통영 우산봉수대에 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경남고고학연구소(현재 재단법인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봉수대는 타원형의 평면 형태와 요철상의 단면을 가진 것으로 잔존 높이 3m 정도의 방호벽과 3기의 원형 연조(煙籠)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수대 서쪽 사면으로 폭1m정도의 우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왕점봉수대는 발굴조사 이후 복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호벽 및 축대등의 시설물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0. 경상남도 기념물 제236호 곡산봉수대 (曲山烽燧臺)

지 정 (등 록) 일 : 2001.09.27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산52-2번지 장거리 산130-1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곡산봉수대는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를 따라 내곡리에 이르기 전 북촌에서부터 구절산 등산로를 따라 2km정도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곡산은 지금의 구절산이며 그 예전에는 포도산으로 불리었다.

동해면 구절산 지선의 해발 316m지점에 위치한 곡산봉수대는 당항만을 통해 고성읍으로 드나드는 길목을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봉수의 노선은 2직봉 노선 간봉 2로이며 연변봉수이다. 대응봉수는 서쪽으로 천왕점봉수, 북쪽으로 진해(鎭海 : 현재의 마산합포구 진동면)가을포봉수와 대응하고 있다.

2004년 시굴조사를 통해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능선부를 정지하여 고대(高臺)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평면 말각방형상(抹角方形)의 연대(煙臺)를 축조하였다. 연대의 평탄면에는 5개소의 연조를 설치하였는데 남동쪽의 2기는 원형, 북서쪽 3기는 방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봉수대의 주변으로 석축 및 건물지가 일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자기류가 주를 이루며 상평통보(常平通寶)가 1점 수습되었다.

곡산봉수대는 초축시기는 세종6년(1425) 간행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며 고종32년(1895) 영남읍지(嶺南邑誌)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근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굴조사 이후 봉수대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토유물은 고성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41. 경상남도 기념물 제271호 고성 삼락리 허원필 묘역 (固城 三樂里 許元弼 墓域)

지 정 (등 록) 일 : 2010.02.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178-1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김해허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김해허씨문중

송와공(松窩公) 허원필(許元弼, 1492-1529)은 조선 전기의 무관이다. 성종~중종대에 용성군수 등 벼슬을 두루 역임하다가 1529년(중종 24년)에 사망하여, 그 묘를 현재의 삼락리에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에 남아 있는 묘표나 묘갈의 기록과 다르지 않다.

묘역은 전면 축대와 뒤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축대와 담장 모두 얇은 판상(板狀)의 청석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다. 담장으로 둘러진 묘역 전체의 범위는 30×30m 정도이고, 축대의 높이는 최대 2m, 담장은 1m 내외이다. 그 안에 2기의 분묘가 나란히 있고, 그 사이에 묘표와 향로석이 일자로 놓여 있다. 내계석을 ㄷ자 모양으로 둘렀고, 각 1기씩의 상석이 놓여 있다. 내계석 앞에는 박석을 깔았다. 좌, 우에 각 1기의 망주석이 있고, 묘같은 향 좌측에 위치한다.

여러 특징으로 볼 때, 비록 이 분묘가 방형분의 외형을 갖춘 고급스러운 묘는 아니나 조선 전기 분묘의 구조적 특징과 부수되는 석조물의 조각수법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좋은 자료이다.

42.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마암면석마 (馬岩面石馬)

지 정 (등 록) 일 : 1974.02.1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608

시 대 : 미상

소유자(소유단체) : 석마마을

관리자(관리단체) : 석마마을

마암면 석마리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옆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2구의 말(馬) 조각상이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길이는 각각 1.5m, 2.1m 이고, 높이는 45cm, 50cm로, 암수 한 쌍인 듯 보이나 구별할 수는 없다.

말은 가축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마을의 나쁜 일을 막는 수호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체적인 말의 형태는 둥글며 얼굴은 땅을 쳐다보는 모습이다. 전설에 의하면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피해를 주자 백발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한 쌍의 돌말을 만들고 큰 제사를 지내었다 한다. 그 후 다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자 이 돌말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석마 앞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오전 9시경에 모여 준비를 하고 오전 10시경 지내는데 그날 밤에 돌말 앞에 콩 한 말을 바치고 다음날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로, 다른 동제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또한 말의 영혼에게 보내는 축문을 읽으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점도 특색이 있다.

상고시대에 만들었다고 전하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곳의 말 숭배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말을 숭배하는 것은 유목민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전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제사의 일부로 섬기는 예는 더러 있으나, 이처럼 동제의 주신으로 섬기는 예는 매우 보기드문 모습이다. 또한 비슷한 예가 고성 동해면 철마산성의 철마, 통영 안정리 달골산 제사유적의 철마에서도 확인되어 고성을 중심으로 말 숭배신앙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3.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6호 고성봉동리배씨고가 (固城鳳東里裴氏古家)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1길 67-42 (봉동리)

시 대 : 근현대

소유자(소유단체) : 달성배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배찬열

고성 봉동리에 있는 배찬열씨 초가이다. 안채는 4대채 살고 있다고 하며 아래채는 배찬열씨 할아버지 때 지은 것이라고 한다.

안채는 앞면 2칸·옆면 1칸 크기로 옆면과 뒷면 벽채는 막돌을 쌓고 틈은 진흙으로 메웠다. 아래채는 앞면 3칸·옆면 1칸 크기로 앞쪽 반칸에 툇마루와 아궁이를 놓았다. 가운데 칸이 온돌방이고, 양쪽 칸은 헛간이다. 안채는 민가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44.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2호 고성 학림리 최씨종가 (固城 鶴林里 崔氏宗家)

지 정 (등 록) 일 : 2011.07.1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동들담길 53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최원석

관리자(관리단체) : 최원석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27번지내 고성 학림리 최씨종가는 약 330년전 하일면 학동마을에 정착하면서 축조한 건축물로 토담과 납작한 돌로 축담을 층층이 쌓은 후, 그 위에 건축물

을 축조한 형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안채와 사랑채, 고방채, 토담으로 잘 쌓은 창고, 집안의 텃밭, 마을의 특색인 돌축대, 축대위로 토담과 넓은 돌덧개 지붕으로 된 닭장, 안채뒤 장독대는 계단식 돈대로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고풍스러움을 풍긴다

4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호 수림서원 (繡林書院)

지 정 (등 록) 일 : 1983.07.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 4길 201-54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달성배씨 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달성배씨문중

서원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사립교육기관으로 교육 이외에도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봉사하는 기능 역시 수행하였다.

수림서원은 고려의 개국공신인 무열공 배현경을 비롯하여 달성배씨 문중의 배정지·배인경·배맹관·배상곤·배경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향사는 음력 10월 10일이다.

조선 철종 7년(1856)에 건립되어, 고종(재위 1863~1907)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하였다가 복원되었다.

건물은 앞면 5칸·옆면 3칸으로 왼편에 방 2칸, 가운데에 대청 2칸, 오른편에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정문인 조제문은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의 솟을대문으로 가운데 1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당 오른편에는 앞면 3칸·옆면 3칸 크기의 팔작지붕으로 된 산해정이 자리잡고 있다.

4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호 도산서원 (道山書院)

지 정 (등 록) 일 : 1983.07.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구만면 화림3길 88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전주최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전주최씨문중

인조 원년(1623),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고성의 의병장 최균(崔均)과 최강(崔綱) 두 형제의 공을 높이 새기고, 이것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지들이 건립하였다. 숙종 39년(1713)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 철폐되었다가 지방 유림들에 의해 1960년 다시 세워졌다. 향사일은 음력 3월 중정이다.

건물의 배치는 맨 뒤에 사당인 숭의사(崇義社)를 두고,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진수재와 홍학재가 있으며 대문인 양지문이 ‘口’ 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강당은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양지문은 앞면 3칸·옆면 1칸 규모를 가진 솟을대문으로 가운데 1칸은 출입문으로 사용한다. 양지문 왼편에는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홍학재를, 오른편에는 앞면 4칸·옆면 2칸 크기를 가진 진수재를 배치하였다.

4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호 갈천서원 (葛川書院)

지 정 (등 록) 일 : 1983.07.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620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갈천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갈천서원

고려시대 문신인 행촌 이암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현재의 갈천서원이 있던 자리는 조선전기에 건립된 금봉서원(金鳳書院)이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금봉서원이 소실된 후 숙종 38년(1712) 이를 다시 복구하면서 이름을 갈천서원으로 바꾸었다.

원래 금봉서원에는 고성출신의 두 명현인 고려말의 명신(名臣)인 행촌 이암(李崐)과 조선초기의 문신인 어득강(魚得江)만이 배향되었으나 갈천서원으로 재건되고 경종 원년(1721) 노필(盧璣)이 철종 5년(1854)에는 행촌 이암의 동생인 도촌 이교(李嶠)가 추가로 배향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는 사우, 강당, 내삼문과 정문인 불사문이 있다.

강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불사문은 앞면 5칸·옆면 1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가운데 1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우에는 행촌

이암·묵계 여필·관포 어득강·도촌 이교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향사는 음력 3월 상정과 음력 9월 중정에 이루어진다.

4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호 도연서원 (道淵書院)

지 정 (등 록) 일 : 1983.08.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4길 152-39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도연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도연서원

숙종13년(1687) 허기(許麒)·허천수(許千壽)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허기는 고려말의 인물로 홍건적의 침략 때 공민왕을 호종한 공으로 중랑장과 장군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신돈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고성 죽도(竹島)로 유배된 인물이다. 이후 1780년대 허재(許裁)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폐쇄되었다가 1920년에 다시 세워졌으며 허유전, 허영, 허유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강당, 사당인 추원사, 돈화실, 명성실, 내삼문, 외삼문인 일원문이 있다.

강당은 앞면 5칸·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강당 뒤쪽 높은 곳에 있는 추원사는 앞면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돈화실과 명성실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에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정문인 일원문은 앞면 3칸 솟을대문으로 가운데 1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그 윗부분에 난간을 설치한 누대(樓臺)를 둔 것이 특이하다.

향사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 중정에 지낸다.

4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호 위계서원 (葦溪書院)

지 정 (등 록) 일 : 1983.07.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2길 186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함안이씨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함안이씨종중

현종 10년(1844) 함안(咸安)이씨(李氏)종중(宗中)의 이인형(李仁亨)·이의형(李義亨)·이영(李翎)·이현(李顯)·이응성(李應星)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66년 다시 건립하였다. 이후 이규(李逵), 이예형(李禮亨), 이지형(李智亨)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매헌 이인형(1436~1498)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김종직의 제자이다. 세조 1년(1455)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젊은 나이에 벼슬하는 것이 교만한 성품을 기른다 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세조 14년(1468)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조판서의 직함을 얻었다. 앞면 5칸·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공간은 배우는 공간으로 훌륭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당인 승덕사는 앞면 5칸·옆면 3칸의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향사는 매년 3월에 이루어진다.

5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호 호암사 (虎巖祠)

지 정 (등 록) 일 : 1983.07.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1길 87-4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영양천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영양천씨문중

중국 노(魯)나라 영양(潁陽) 출생인 천만리(千萬里)공을 모신 사당이다. 사당 경내에는 호암사, 내삼문, 강당, 외삼문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강당 우측 배면 한 단 위에 자그마한 서고가 자리하고 있다. 둘레에는 돌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담장을 경계로 외삼문과 강당, 내삼문과 사당의 두 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내의 지반은 석축으로 마무리한 5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 석축 위에 건물이 1동씩 서 있으며 각 석축과 석축 사이는 자연석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암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3량 구조 맞배지붕이며 안에는 천만리의 시호장과 목판이 보존되어 있다. 내·외삼문은 맞배지붕에 솟을대문이고, 외삼문의 가운데 1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천만리 장군은 조선 중기에 명나라에서 귀화한 무신으로, 종북산 천고봉 만인암 밑에 살았다하여 성을 천씨(千氏)로 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천만리 장군은 아들 상(祥)과 함께 이여송을 따라 조선에 왔다.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울산에서 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머물러 살았으며, 선조는 그의 공을 생각하여 화산군에 봉하고 그의 아들 상도 한성윤에 승진시켰다. 영양 천씨의 시조를 이루었으며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5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9호 고성읍성 (固城邑城)

지 정 (등 록) 일 : 1983.12.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서외리, 수남리 일원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2003년 발굴조사된 고성읍성은 세종 30년(1448) 연안방어를 위해 축조된 평지석축성(石築城)이다. 『문종실록』에 의하면 읍성은 둘레 3,011척, 높이 12척, 여장(女牆) 높이 2척, 치성(雉城) 12개소, 옹성(甕城)을 두른 문 3개소, 여장 575타, 성내 우물 4개소의 규모로 방형의 전체적으로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성곽의 축조는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를 기본으로 구릉 정상부를 평편하게 정지하고 그 위에 지대석(地帶石)과 기단석, 그리고 상석을 쌓아 올렸으며 외벽 면석은 주로 자연대석을 사용하였다. 내벽은 외벽 기단석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 잡석 및 기와 편 등으로 채운 다음 그 위에 활석으로 쌓아 내외협축(內外協築)하였다. 한편 고성읍성 내부에서는 동외동폐총과 동시기인 삼한시대의 집자리와 인근 사천 늑도유적에서 발견된 삼각점토대토기(三脚粘土帶土器)편(片)들이 발견되었다. 1917년에 촬영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을 공룡형의 천정을 가진 성문과 2 ~ 3m가량 잔존한 성벽이 확인되므로 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당시 성벽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읍성의 체성부(體城部) 남쪽으로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1597~1598) 왜장 깃카와히로시[吉川廣家]가 읍성에 덧대어 왜성(倭城)을 축조되었으며 현재까지 왜성이 잘 남아있다.

5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0호 거류산성 (巨流山城)

지 정 (등 록) 일 : 1983.12.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시 대 : 통일신라~고려

소유자(소유단체) : 국(산림청)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거류산성은 고성읍의 동쪽에 위치한 거류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석성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거류산을 유민산(流民山)이라 했다. 전하기로는 삼국시대 소가야가 신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쌓은 성곽이라 알려져 있지만 시굴조사결과 초축 시기는 삼국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로 볼 수 있으며 초축 이후 수차례 수축을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곽내부에는 인위적인 평탄면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축들이 확인되어 성곽 내부의 주둔을 위한 군사시설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류산성의 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시대 고성지역의 촌주(村主) 출신으로 강주장군(康州將軍)이 된 유문(有文)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나말려초(羅末麗初)의 시기 고성지역은 삼국시대에 이어 남해안 교역의 중심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유문과 같은 고성의 호족(豪族)은 자신의 거점지역의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인 거류산에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거류산 성에서 출토된 선문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기와가 9세기 전반에 축조된 고성고읍성에서 확인되어 축조시기 및 주체와 관련하여 두 성곽사이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5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1호 철마산성 (鐵馬山城)

지 정 (등 록) 일 : 1983.12.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외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철마산성은 철마산 정상 아래 능선을 따라 산 정상을 둘러 쌓은 테피식 산성으로 소가야 때 쌓은 성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고성평야 동쪽에 있는 철마산은 지리적으로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다에 둘러 싸인 곳이다. 특히 북쪽에는 임진왜란 때의 전적지인 당항포만이 있어 남해안을 관망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곡선을 이루고 있는 성벽은 자연 암벽 사이에 돌을 쌓은 형태인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둘레 250m, 높이 3m 정도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철로 말(馬) 수습기를 만들어 세웠으나, 왜적이 침입하면서 가져가서 다시 인근 주민들이 돌로 만들어 세웠다고 하며, 석마(石馬) 1필이 남아있다고 전해지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성 주위에 내산리고분군(사적 제120호), 양촌리에 무덤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소가야가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잔존한 성곽의 축조수법과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 연안방어를 위해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마(鐵馬)를 만들었다는 점은 마암면 석마리에 위치한 석마(石馬)와 인근 안정리 달골산 유적에서 확인된 철마와 더불어 고성지역의 말 숭배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5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고성장산리허씨고가 (固城章山里許氏古家)

지 정 (등 록) 일 : 1985.01.23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길 21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허태영
 관리자(관리단체) : 허태영

사당과 안사당, 그리고 가옥 한채와 2층 건물로 구분된 구조이다.

사당은 조선 고종 2년(1865)에 세워 허씨 4대 선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가옥은 1912년에 지은 집으로 손님 접대나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 2층 건물은 1912년에 지어 현재 집무실로 사용 중인데 가옥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안사당은 고종 22년(1885)에 지은 것으로 솟을대문 형식이며 대문 양쪽에 방이 있다. 예전에는 손님을 접대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5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옥천사명부전 (玉泉寺冥府殿)

지 정 (등 록) 일 : 1985.11.1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북평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명부전은 명부(冥府), 즉 지옥(地獄)과 관련된 전각(殿閣)으로 명부의 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십왕(十王)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죽은 이의 죄와 고통을 구체해준다는 지장보살과 전생(前生)의 업(業)에 따라 후생(後生)에 태어날 곳을 정해준다는 십왕에 대한 간절한 신앙으로 이어져 거의 모든 사찰에서 명부전을 갖추게 되었다.

옥천사 명부전은 원래 대웅전(大雄殿) 좌측의 팔상전(八相殿) 건물을 명부전으로 사용하다 고종 32년(1895)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건물을 대웅전 오른쪽 옛 궁선당(窮禪堂) 터에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부전 내부는 지장보살상과 후불탱화를 중심으로 십왕상, 판관, 사자, 인왕, 동자상 등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원래 각 왕들 뒤에는 각기 그에 해당하는 시왕도를 걸어두었으나 현재 전시 및 도난방지를 위해 유물전시관과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5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운흥사영산전 (雲興寺靈山殿)

지 정 (등 록) 일 : 1985.11.1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영산전(靈山殿)은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과 팔상탱화(八相幀化)를 봉안한 사찰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산은 영축산(靈鷲山)의 줄임말로 석가가 설법했던 영산불국(靈山佛國)을 상징한다. 다시말해 영산전은 부처가 설법했던 불교의 성지를 현현시킨 것이다. 영산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갈라보살(羯羅菩薩)과 미륵보살(彌勒菩薩)을 협시로 봉안하고 후불탱화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걸어 영축산에서 석가의 『법화경(法華經)』 설법을 묘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8폭의 팔상도를 봉안한다. 팔상도는 석가모니불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으로 석가가 인간세계로 내려와 열반에 들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산전은 팔상전을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팔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운흥사의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주심포식 건축물이다.

5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소천정 (蘇川亭)

지 정 (등 록) 일 : 1986.08.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1길 149-29
 시 대 : 조선시대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전주최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전주최씨문중

고성 소천정(固城 蘇川亭)은 소계(蘇係) 최강(崔綱)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정자이다. 최강은 1585년(선조 18) 무과에 급제한 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소호(蘇湖) 최균(崔均)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성, 진해 사이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임진왜란 뒤에는 경상도좌수사,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그 공으로 의숙(義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자가 건립된 터는 최강이 어릴 때 무술을 연마한 곳이다.

소천정은 구릉의 서북사면부에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소천정은 정면 4칸, 측면 면 1.5칸의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된 1칸, 뒷마루가 딸린 온돌방 2칸, 마루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양식은 정면의 뒷마루 상부에만 소로로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며 나머지는 장여수장집이다. 상부가구는 도리가 세 개인 3량가이다. 정면에는 소원문(溯源門)이라는 대문이 있는데 3칸 규모의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이곳에는 포전실록 1매, 선무원종공신녹훈 교지 1매 등의 유품도 소장하고 있다

5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2호 고성송계리이씨고가 (固城松溪里李氏古家)

지 정 (등 록) 일 : 1986.08.06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4길 13
 시 대 : 근대
 소유자(소유단체) : 이겸수
 관리자(관리단체) : 이겸수

세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약 90여년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은 안채, 사랑채, 곳간채, 헛간채, 솟을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앞면 6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곳간채와 헛

간채는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인데 헛간채는 방앗간과 창고를 겸하고 있다.

5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8 고성학림최영덕씨고가 (固城鶴林崔泳德氏古家)

지 정 (등 록) 일 : 1990.12.20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금단길 150-7 (학림리)
 시 대 : 근현대
 소유자(소유단체) : 최영덕
 관리자(관리단체) : 최영덕

고성 최영덕 고가固城 崔泳德 古家는 최태순이 1869년(고종 6)에 건립한 주택이다. 최태순은 학동마을 일대의 땅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부농이었으며 만석꾼집으로 통했다고 한다. 문화재명은 현재의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최영덕 고가로 명했다. 낮은 구릉의 사면끝자락에 남동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가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좌측에는 전주최씨 종가인 학림리 최씨종가(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2호)가 있다. 남향한 안채를 중심으로 정면에 사랑채를 두고 좌우에는 아래채와 곳간채가 있어 전체적인 배치는 튼 ‘口’ 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5칸의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부엌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 마루 2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세 개인 3량가이다. 사랑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온돌방 1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2칸, 마루 2칸, 툇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 마루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면에 0.5칸 규모의 반침을 두어 겹집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포양식은 소로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다섯 개인 5량가이다. 대문채는 5칸 규모의 솟을대문이다.

6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고성양화리법천사지부도군 (固城楊化里法泉寺址浮屠群)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280, 281, 274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조선시대 고성의 큰 사찰로 알려진 법천사의 옛 터에 자리하고 있는 7기의 부도와 1기의 부도비(浮屠碑)이다. 부도란 승려의 시신을 화장한 후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두는 곳으로,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는데, 1기의 비와 부도에 ‘계봉화상(鷄峰和尚)’ 이라 적혀있고, 다른 부도들에도 ‘조옹대사’ 등의 승려 이름이 적혀 있어, 모셔둔 사리의 주인공을 밝히고 있다. 2014년 부도군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봉화상비의 나머지 부분이 발견되어 현재 고성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다.

부도들은 모두 종모양의 탑신(塔身)을 지닌 석종형(石鐘形) 부도로 조선시대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터 주위의 산골짜기 이름들이 나무암골, 진성암골, 운봉암골, 생언암골, 국사당 등 암자의 이름을 따오고 있어 불교 번성기 때에 큰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대무량사가 위치한 맞은편 골짜기에서는 다량의 기와편과 함께 건물의 초석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法」, 「○泉寺」, 「卍」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도 발견되어 법천사의 위치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6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8호 육영재 (育英齋)

지 정 (등 록) 일 : 1994.07.0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금단길 150-7 (학림리)

시 대 : 조선시대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최승환외 4명

관리자(관리단체) : 최승환외 4명

전주 최씨 문중에서 후손들의 학문지도와 육성을 위해 세운 건물이다.

조선 경종 3년(1723) 초가삼간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그 뒤 학생 수가 늘어나자 현종 11년(1845)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다시 세웠다. 입구에 있는 솟을대문과 본관 사랑채, 곡간채 등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관은 앞면 6칸·옆면 2칸 건물로 기둥은 지름이 50cm나 되는 원형기둥이다. 문짝은 매우 정교하고 독특한 모습이며 좌우에 있는 방의 천장은 소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매우 특이한 조형 양식을 보이고 있다.

6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9호 행촌도촌선생유허비(杏村桃村先生遺虛碑)

지 정 (등 록) 일 : 1995.05.0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84번길 35-7 (서외리)

시 대 : 근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이씨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이씨종중

유허비란 옛 선현의 자취를 살피어 후세에 전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비로, 이 두 기의 비들은 고려 후기의 문신인 문정공(文貞公) 행촌(杏村) 이암(李堦)(1297~1364)과 그의 동생 도촌(桃村)이교(李嶠)(?~1361)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이암의 호는 행촌으로 그의 아버지는 철원군 이우(李瑀)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판밀직사사감찰대부(判密直司事監察大夫) 이준비(李尊庇)이다.

고려 충선왕 5년(1313) 과거에 급제하여 비성교감(祕省校勘)에 임명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도관정랑(都官正郎)이 되었다. 이후 충혜왕~충목왕 대까지는 유배와 복직을 거듭하다가 공민왕 때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다. 흥건적이 침략하여 개경을 휩박하자 왕을 모시고 안동으로 피난갔던 공이 인정되어 1등 공신이 되고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이암은 예서와 초서에 뛰어나 동방의 조자양으로 불리었으며 송설체의 대가로서 그의 글씨는 문수사장경비에 나타나있다. 이암의 동생 이교의 호는 도촌으로,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공민왕 때 형부상서(刑部尙書)로서 천추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들의 가문은 고려시대 누대공신재상지종(累代功臣宰相之種 :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문벌세가)으로 권세를 누렸으며, 조선 건국 이후에도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 이암의 손자 이원(李原)은 세종 때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으며 그의 처남은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개국공신인 권근(權近)이다.

한 채의 비각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기의 비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올린 구조이다. 원래는 인근의 다른 곳에 서 있었으나, 1992년에 이곳으로 옮겨 세워 보존하고 있다.

6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8호 고성운흥사명부전목조각상(固城雲興寺冥府殿木彫刻像)

지 정 (등 록) 일 : 2000.08.3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운흥사의 명부전 안에 있는 목조각상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시왕 등이다. 도명존자는 지옥보살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무독귀왕은 문관차림이다. 시왕은 삼존의 양 옆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사자, 판관, 동자상 등이 있다. 명부전의 입구에는 인왕상이 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목조각상들은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6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 고성운흥사목제원패 (固城雲興寺木製願牌)

지 정 (등 록) 일 : 2000.08.31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와룡리)
 시 대 : 조선시대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운흥사
 관리자(관리단체) : 운흥사

운흥사 원패는 왕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기원패로서 왕의 패, 왕비의 패, 세자의 패 모두 3점이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왕의 패에는 황룡을 새기고 왕비의 패에는 봉황과 구름무늬를 새겼으며, 세자의 패에는 용과 새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섬세한 조각이나 정교한 문양을 새긴 기법과 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후기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6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2호 고성청광리박진사고가 (固城淸光里朴進士古家)

지 정 (등 록) 일 : 2001.02.2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청광6길 41 (청광리)
 시 대 : 근대
 소유자(소유단체) : 박상호
 관리자(관리단체) : 박상호

밀양 박씨의 옛집으로 대대로 진사와 효자가 태어났으며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이 집에서 효자 박효근이 출생하였고, 그의 아들 박한회와 손자가 진사를 지냈다.

조선 후기에 지어져 일제시대에 대규모로 고쳐 지은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2동, 곡간채 2동, 대문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문에는 효자정려 현판이 붙어 있다. 앞면 5칸·옆면 2칸의 안채는 부엌, 방, 대청, 갓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동쪽에 담장을 둘러 별당처럼 안사랑채를 배치하였고 중문간채를 바깥사랑채로 이용하였다. 중문에서 안채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담장을 들렀다. 집 주위로는 전체적으로 높은 담장을 두르고 있는데 기와조각을 섞어 모양을 내었다.

일제시대에 다시 고쳐 실용성과 전통성이 잘 조화된 전통한옥인 이 가옥은 조선 후기 건축의 변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6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3호 소산정사 (疏山精舍)

지 정 (등 록) 일 : 2001.02.2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4길 77-7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함안이씨송호공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함안이씨송호공종중

소산정사, 대문간채, 곡간채, 관리사 등으로 일곽을 이룬 뜰자형 건물이다. 1890년대 지어진 건물로 1915년에 다시 고쳐 지어졌다.

소산정사는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인 팔작지붕이다. 한루정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소산정사의 동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대문간채는 앞면 5칸·옆면 1칸으로 중앙에 소산정사로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을 비롯하여 각 건물과 통하는 대문이 있다.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 건물의 실용성에 맞춘 다양하고 변화있는 건물의 특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6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3호 철산정사 (鐵山精舍)

지 정 (등 록) 일 : 2005.07.21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구절로 462-1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함안이씨운포공파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함안이씨운포공파종중

고성 철산정사(固城 鐵山精舍)는 임진왜란 의병장인 이달(李達) 장군의 묘하에 건립한 재실이다. 1880년(고종 7)에 중건된 목조와가(木造瓦家) 건물이며 1940년에 한 차례의 보수가 있었다. 정사는 철마산의 남사면부 끝자락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장좌천의 상류부이다. 강당과 대문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대문의 남동쪽에는 고직사가 있다. 정사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뒷마루가 딸린 온돌방 2칸, 마루 1칸, 뒷마루가 딸린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양식은 장여수장집이며 상부가구는 도리가 세 개인 3량가이다. 대문채는 정면 3칸 규모의 우진각지붕이다

6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47호 고성효락리쌍충록책판(固城 孝洛里 雙忠錄 冊版)

지정(등록)일 : 2008.05.22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쌍충록』에는 임진왜란 때 고성군 구만면에서 의병을 일으켜 고성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소계(蘇溪) 최강(崔綱 : 1559~1614)과 그의 형인 소호(蘇湖) 최균(崔均 : 1537~1616)의 행적과 그들에 대한 국가의 포장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쌍충록은 순조23년(1823) 최균의 8대손 최상갑, 7대손 최광대 등이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여기에 의병활동을 했던 최균, 최강 형제의 행적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임진왜란과 의병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6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35호 고성 청광리 창효각 (固城 淸光里 彰孝閣)

지정(등록)일 : 2011.07.14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오봉산로 62

시 대 : 조선시대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밀양박씨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밀양박씨종중

개천면 청광리 창효각은 죽포공 박영회(1827-1886)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각 내부에 붉은 색을 칠한 나무 기둥을 세워 먼 곳에서도 눈에 잘 띄고, 전면의 단청문양이 선명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화재자료 제292호로 지정된 청광리 박진사고가(개천면 청광리 292-3)와 가까운 거리의 위치하고 있어 주위 주민들 뿐만 아니라 후세에 효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7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69호 고성 청광리 김만중 간찰 및 분재기 (固城 淸光里 金萬增 簡札 및 分財記)

지 정 (등 록) 일 : 2013.10.24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청광4길 47
시 대 : 조선
소유자(소유단체) : 김용대
관리자(관리단체) : 김용대

김만중 간찰은 1687년(숙종 13)에 작성된 것으로 그의 문집인 『돈춘집』에도 수록되어 있지않아 자료적 가치도 크며 김만중 분재기는 1663년에 만들어져 현재 350년이 되는 고문서이며 분재기의 양식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분재기의 작성 연도, 양식의 특이성, 내용의 의미 등은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7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78호 고성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固城 玉泉寺 蓮臺庵 阿彌陀佛會圖)

지 정 (등 록) 일 : 2014.01.23
소 재 지 :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옥천사

관리자(관리단체) : 옥천사

수화승 천여를 비롯한 채종, 선종, 지만 등의 금어들에 의해 1849년에 조성된 것으로 특히 천여는 19세기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이다.

화면 중앙에 아미타불을 크게 묘사한 후 그 좌우에 권속들이 보존을 에워싸듯 원형을 이룬 구도를 갖추고 있다. 본존은 팔각대좌 위 연화좌에 앉아 아미타구품인을 곁하고 있다. 본존의 좌협시 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묘사된 관음보살로 두발이 각각 연화좌를 밟고 선 답할좌 모습에 양 손을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려 정병을 쥐고 있다. 우협시 보살은 관음보살과 거의 대칭되는 모습이지만 보관에 정병이 묘사된 대세지보살이 경책을 지물로 지니고 있다.

72. 등록문화재 제258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지 정 (등 록) 일 : 2006.06.19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17-1번지 등

시 대 : 근현대

소유자(소유단체) : 전주최씨 안렴사공파 종중 등

관리자(관리단체) : 전주최씨 안렴사공파 종중 등

학동마을 옛 담장은 수태산에서 채취한 2~3cm 두께의 납작돌과 황토로 쌓아 다른 마을의 담장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석담은 0.4~1m 높이까지 큰 납작돌을 쌓고, 그 위에 작은 납작돌과 진흙을 쌓아 올린 뒤 맨 위에 큰 판석을 올려 만들었다. 건물의 기단, 후원의 돈대 등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어 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주변 대숲과도 잘 어우러져 남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다.

제 3절 비지정 문화재

1. 울대리고분군(栗垈里古墳群)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고총고분 4기로 구성된 가야고분군으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에 위치한다. 1989년 마산-충무를 연결하는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2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2호분은 직경 22m, 높이 2.9m 정도의 봉분을 완성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굴착하여 5기의 석곽을 축조한 다곽식의 분구묘이다. 5기의 석곽은 봉분의 중앙에 배치된 1호 석곽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에 각각 2, 3호 석곽과 4, 5호 석곽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유물은 고배, 개, 장경호 등의 소가야식 토기를 중심으로 재갈과 등자, 철모, 철촉 등의 마구와 무기류, 청동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2. 연당리고분군(蓮塘里古墳群)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에 있는 가야고분군으로, 남강의 지류인 영천강 상류(영오천)의 소규모 곡저평야를 끼고 있으며 해발 100m 낮은 산지가 연접하여 이루어진 능선 허리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능선 정상부를 따라 26기의 봉토분이 축조되어 있고, 능선의 사면에는 봉토가 없는 수혈식석곽묘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1991~1992년 경남대학교박물관에서 14·18·20·23호분 등 4기의 봉토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조사된 4기의 고분은 직경 11~12m, 높이가 1.6~2.8m의 봉분과 그 내부에 수혈식석곽 또는 횡혈식석실을 축조한 봉토분으로, 특히 평면 장방형의 현실에 연도가 중앙에 설치된 횡혈식석실은 진주 수정봉, 옥봉고분군, 의령 중동리고분군 등에서도 확인되는 백제계 묘제로 파악되고 있다. 유물은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등 소가야식 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 신라계 토기 일부와 철검, 철부, 살포 등의 농공구류와 대도, 철모, 철촉 등의 철제무기류가 출토되었다.

3. 고성고읍성(固城古邑城)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토성은 고성읍 서외리에 동서방향으로 뻗은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 구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토성의 외벽은 후대의 계단식 경작지의 조성으로 인해 유실되어 내벽만이 남아있다. 토성의 북쪽에는 외황이 토성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면과 토층조사를 통해 토성은 초축 된 이후 최소 3차례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초축 성벽의 잔존규모는 길이 1,100cm, 너비 495cm, 높이 200cm 정도이다.

토성은 먼저 기저부를 요철상으로 굴착한 후 내부에 기와편과 조개껍질 등을 혼입한 암갈색 점질토를 채워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기저부 조성 시 초축기단석렬의 1단도 함께 축조하였다. 초축기단석렬은 길이 30~40cm, 두께 5~20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2단을 축조하였다. 2단은 1단에서 20cm 정도 들어 쌓았다. 초축성벽관축토는 초축 기단석렬에서 50cm 정도 들어 관축하였다. 초축관축토는 크게 3공정으로 나뉜다. 기반암알갱이와 목탄알갱이 등이 혼입된 적갈색 점질토와 기반암이 다량 혼입된 갈황색 사질점토를 교대로 관축하는 것이 하나의 공정이며, 이와 같은 공정이 2차례 이루어진 후 세 번째 공정은 적갈색 점질토와 갈색 사질점토를 혼용하여 관축하였다. 초축기단석렬과 토층을 통해 확인되는 영정주의 간격은 460cm 정도이며, 1차 수축기단석렬의 동쪽 가장자리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영정주가 확인된다. 초축성벽을 관축하여 축조한 이후 내측에는 초축기단석렬에서 30cm 정도 높이로 갈색 사질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1차 수축은 초축기단석렬에서 60cm 정도 상부에 초축관축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1차 수축기단석렬은 초축기단석렬에서 20cm 정도 들어 길이 10~30cm, 두께 3~15cm 정도의 할석과 기와를 일부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기단석렬은 6~7단 가량이 확인된다. 2차 수축기단석렬은 중앙에서 일부 확인되며, 1차 수축기단석렬을 기저부로 하여 20cm 정도 들어 축조하였다. 3차 수축기단석렬은 중앙과 서쪽에서 확인되고, 경사가 낮은 동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차 수축기단석렬은 길이 20~45cm, 두께 5~30cm 정도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2~4단 정도가 확인된다. 1단은 2차 수축기단석렬보다 15cm 가량 돌출되었고, 2단은 2차 수축기단석렬과 유사하게 축조하였다.

토성의 북쪽에는 4m 정도 간격을 두고 토성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외황이 확인된다. 외황의 북쪽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구와 계단식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외황의 규모는 현 길이 1,500cm, 너비 680cm, 깊이 110cm 정도이다.

토성의 초축시기는 기저부조성층에서 출토된 선문기와와 성벽의 축조방식으로 보아 9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 1차 수축기단석렬에서 확인되는 기와는 12~13세기에 해당되는 복합문 문양의 기와이고, 3차 수축 퇴적토에서는 선문, 사격자타날문, 어골문, 복합문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들이 출토되며 시기는 고려 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황에서는 선문, 사격자문, 어골문, 원문, 어골문+선문, 어골문+원문 등 다양한 문양을 지닌 기와편과 「一品」, 「二品」, 「三品□大口」, 「保勝」, 「養戶上□」 등의 명문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러한 기와편과 함께 분청자기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명문기와는 고려시대 지방의 군사제도와 수취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토성의 성벽 축조방식과 기저부조성층에서 출토된 유물 및 외황 출토유물 등은 9세기 전반에서 여말선초에 해당되는 유물들이다. 토성의 남쪽에는 세종 30년(1448년)에 축성된 고성읍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토성은 고성읍성이 축성된 시점에 폐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새무늬청동기[鳥文靑銅器]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 고성박물관
 시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고성군
 관리자(관리단체) : 고성군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의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 1974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이어 1995년부터 동외동패총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릉의 정상부 평탄면에서 제사유적으로 보이는 수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무늬청동기를 발견하였다. 새무늬청동기는 가운데 2마리의 큰 새가 마주보고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새 40마리가 양각되어 있으며 거치문, 사각문, 소용돌이문 등 화려한 문양들이 양각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구성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중국 양자강 이남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물로 생각된다. 한편 2003년 전라남도 영광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고성에서 발견된 새무늬청동기와 동일한 문양을 가진 새무늬청동기의 상단부 일부가 발견되어 당시 두 지역 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유물의 상단에 7개의 고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도 2개의 구멍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의복장식 및 관장식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2장 고성지방의 누정

제 1절 머릿말

누정은 한 개인의 산수취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내력과 교육 형태 및 당시 시단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창건자의 산수취향에 따라 세워진 누정은 창건자나 그 추종자들이 평소 교유를 가지면서 시사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심회를 음영하면 시단이 되는 것이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이 부설되면 서원이 되는 것이고, 사후에 후손들이 선조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재실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들 모두를 재실로 통칭하고 있지만, 기실 누정이 먼저 창건되고, 나중에 서당과 재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또한, 누정이라 말하는 것도 <다락 누>라 하듯 누가 이층 형태로 된 것이고 정은 단층 형태로 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며, 누가 관인에 의해서 창건되고 정은 개인에 의해서 창건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우리나라 누정 중에서 어떤 것이 대표적인 형태일까? 이는 보는 이나 시대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날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나, 구수훈(具樹勳)의 「이순록(二旬錄)」에서는, “우리나라 누정 제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경회루이고, 풍경과 변화함을 다 갖춘 것으로는 연광정이고, 가로 지른 난간이 많고 널찍하게 지은 것으로는 북병영 영수당을 제일로 치고 통영 세병관이 그 다음이다. 안주 백상루도 여기에 버금간다. 뛰어난 경치에 깔끔하기로는 축석루가 제일이다.” 라고 평한 바 있다.

구수훈이 평한 말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누정 명칭의 다양성이다. 일반적으로 <누>와 <정>이 다용(多用)되는 것 외에도 영수당이나 세병관에서 보듯이 <당>이나 <관>이 누정의 명명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누정은 그 기능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누정의 이러한 다양·다기한 기능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바, 이러한 복잡다단한 누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유흥상경(遊興賞景)의 성격을 지녔다.

둘째, 시단(詩壇)의 성격을 지녔다.

셋째, 학문을 수양하고 강학하며 인륜의 도를 가르치는 구실을 하였다.

넷째, 각종 집회의 장소 구실을 하였다.

다섯째, 사장(射場)의 구실을 하였다.

여섯째, 고을의 문루(門樓)나 치적을 표상하는 공간 구실을 하였다.

이 몇 가지 기능 중에서 유흥상경의 기능이 단연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유흥상경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단의 역할이나 집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여 후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레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누정으로 발달하게 된다.

고성지방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누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성지방 누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왜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관내에 수군통제영이 자리 잡았던 군사적 관계로 사장이나 문루의 역할을 한 누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고성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방 누정문학의 실체에 접근해 보려 한다. 구체적인 누정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 2절 고성지방의 누정 현황과 누정 시문

1) 고성지역 누정현황

고성지방에서 현재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누로는 안청루(晏淸樓), 침해루(枕海樓), 수향루(受降樓)¹⁾, 천척루(千尺樓)²⁾, 진해루(鎭海樓)³⁾, 관해루(觀海樓)⁴⁾가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교의 문루로 풍화루가 따로 있다. 향교 문루인 풍화루를 포함한 안청루와 침해루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고성에 속하고, 나머지는 현재 통영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문루이다.

또한, 50여 개소의 정이 남아있다. 원래는 자연의 승경을 관람하는 기능으로 창건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모두 추모의 공간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현판도 선조를 추모하거나 회상하는 약간의 시문만 남아 있다.

가장 많은 현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노산정(鷺山亭)이다. 기문 1개, 상량문 1개, 시 20개 등 다수의 현판을 보유하고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은 기문을 남긴 이는 현재 모두 4편의 기문이 걸려있는 하겸진(河謙鎭)이며, 시는 주로 후손들의 추모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정자에서 시사를 이룬 듯 다소 많은 인사들의 시가 현

1) 고성읍지에는 ‘재남문의’ 로 기록되어 있고, 「총서」에는 ‘재통영’ 이라 기록되어 있다.

2) 고성읍지에는 ‘재남문의일리’ 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총서」에는 ‘재통영원문호’ 로 기록되어 있다.

4) 관해루는 「동국여지승람」에 “견내량 북쪽에 있다” 고 하고, 「고성군지」 關防조에는 ‘見乃梁留防’ 이라 하고 작은 주(注)로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고 한다. 현재 이곳은 사등면에 있다. 당시는 고성지역에 속하나 현재로서는 통영지역에 속한다.

관으로 걸쳐 있다.

기타, 하이면 사곡리에 있는 황산수정(皇山樹亭), 구만면 주평리에 있는 취석수정(醉石樹亭), 구만면 화림리에 있는 당상쌍정(堂上雙亭)과 같이 정자나무(亭子樹)의 명칭을 따서 붙인 경우도 있고, 영오면의 오하정, 하일면의 선학정 등은 단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개천면 나동리의 면화정(免禍亭)은 화를 면한 기념으로 세워진 공간이다.

2) 역사문헌에 남아있는 갖가지 누정과 누정 시문

(1) 누(樓)

① 안청루(晏淸樓)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청루는 소가야성의 남쪽 문루라고 했다.⁵⁾ 소가야는 바로 현재 고성지역이다. 신증의 기록으로 볼 때, 현성(縣城)의 문루(門樓)임이 분명하지만, ‘금명제남루’라 했으므로 신증이 편찬된 성종조에 들어서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안청(晏淸)’이란 말이 ‘안온하고 조용하다’는 뜻을 지녔고, ‘제남(濟南)’이란 말이 ‘남방을 제압하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서, 원래는 경사(京師)에서 먼 지방이나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조용한 지방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추후에 보다 능동적인 군사적 의미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안청루의 개명은 제남루라는 명칭을 갖기 전의 고성지역이 현성의 문루가 있었던 여느 성곽과 다름없이 누각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전해오는 선초 김수온(金守溫)의 시를 살펴보면, 삼살개도 잠든 밝은 달밤에 술기마저 눕혀놓은 변방 성각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것이 15세기 변방 고성의 풍경이었던 것이다.

이 시의 원제가 ‘차고성안청루운(次固城晏淸樓韻)’인 점을 보아서 원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평성대 동남쪽은 모두 일취여서 (聖代東南盡一徼)

여러 성의 강리가 다 염추로다. (郡城疆理極炎陲)

강은 대마도(對馬島)와 연하여 물결이 넓고 (江連馬島波瀾闊)

땅은 진한(辰韓)에 속하니 굴이며 유자가 달렸도다. (地入辰韓橋柚垂)

아전들 물러난 관아에는 봄이 적적하고 (衙吏退朝春寂寂)

삼살개 잠든 밤에는 달빛마저 명량하다. (老龍眠月夜熙熙)

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370쪽 참조). 이곳은 현재 고성경찰서 남쪽 50m에 위치한다.

변방의 백성들이 얼마나 임금의 덕화를 입었는지 알고싶거든 (邊氓欲識君王化)
 치설(稚揲) 높은 누각에 눕혀놓은 수기(戍旗)를 보게나. (雉堞樓高臥戍旗)

② 침해루(枕海樓)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 누정(樓亭)조에는 고성현의 폐문루라 하였고 일명 남두루(南斗樓)라 하였다.⁶⁾ 민종혁(閔宗赫)의 시에서 남쪽 성각의 특성을 부각한 점으로 보아 ‘안청루-제남루’ 로 이어졌던 남문루가 다시 ‘침해루-남두루’ 로 개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⁷⁾ 또한 안청루와 침해루가 각기 다른 문루일지라도 고성 읍성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모두 남쪽 오랑캐의 침입을 살필 수 있는 남쪽 망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누각이 망루 역할을 했음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외로운 성이 남쪽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 (孤城一帶壓南溟)
 왜구를 물리친 지 몇 해이던가. (活去龍蛇問幾齡)
 병기며 전함을 저장함이 하늘의 옥심이라면, (天欲貯兵藏桐艦)
 시인목객과 정자에서 놀고 싶은 게 인간의 소망인 게지. (人謨留客設池亭)
 파도가 맑게 한 교실은 밝은 거울이 되니, (波清鮫室開明鏡)
 구름이 애워싼 푸른 산은 화병같이 펼쳐졌네. (雲擁螺鬢列畫屏)
 칼날을 문지르는 큰 뜻에는 강개한 마음 있거니, (撫劔雄圖多慨感)
 탄환같이 조그만 대마도가 눈앞에 푸르구나. (彈丸馬島眠前靑)

③ 풍화루(風化樓)

향교의 문루를 풍화루라 칭하는 점에서는 타 지역과 다른 점은 없고, 현재 ‘고성문화원 뒤 진주 쪽으로 100미터 대동아파트 입구’ 에 위치하고 있다. 고성(철성)향교는 태조2년(1393, 계유) 국호를 조선으로 고친 무렵인 당시 신처강(辛處康)이 태수였을 때 창건을 보게 되었다 하나 이에 대한 문헌이나 기문에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임진병화로 인하여 향교가 회진됨에 그 이전의 기록들은 더욱 밝힐 수 없다.

다만 명륜당에 걸어있는 기문에 의하면, 선조40년(1607)에 와룡공 이현(李顯)이 도감

6) ‘縣閉門樓改號南斗樓’ (오홍목, 「고성총쇄록」, 누정조) 「영남누대지」(임병섭, 1974)에는 그 출처는 알 수 없으나 ‘在 固城하니 開門樓라. 후에 南斗樓라 하다’ 고 하고 민종혁(閔宗赫)의 같은 시를 인용하고 있으나 개문루가 되면 남문이 되므로 총서의 폐문루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7) 읍내에 있다고 명시한 「고성읍지」를 참고할 때 같은 지역에 문루를 두개나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필자는 안청루와 침해루를 같은 곳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같은 건물을 두고 명명 했다가 보다는 이후 같은 자리에 창건되었거나 혹은 증건된 누각의 명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都監)으로 행현령(行縣令) 정여린(鄭如麟)과 같이 이 향교를 이 건하여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룡은 주부(主簿) 병희(竝喜)의 아들로, 일찍이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그리하여 1774년 태수 민창렬(閔昌烈)이 쓴 철성향교풍화루중건기(鐵城鄉校風化樓重建記)와 순조24년(1824) 장의겸중수도감(掌議兼重修都監)을 맡은 최광여(崔光礪)의 풍화루중수기(風化樓重修記) 등을 참조할 때, 임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중수 내력은 대략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자료는 「固城文化遺蹟誌」를 참조할 수 있다.

고성향교는 1860(철종11)에 지금의 통영군 광도면 죽림리로 이전하였다. 당시 고성현령은 김이성(金以性)이었는데 이 때 고성치소는 호적분규로 인한 민요(民擾)의 수습책으로 통제영 관내인 춘원면으로 일시 이전했을 무렵이다. 1875년(고종12)에 치소가 고성으로 복읍됨에 따라 향교도 옛터인 고성읍 교사리로 이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지방문화재 제64호) 다만 30여종의 기문 현판이 걸려있으나 모각된 글씨가 흐려서 알아볼 수 없었다. 이를 판독할 수 있게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⁸⁾

이 지역의 누에서 읊어진 시문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왜를 접한 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안청루나 침해루에서 보듯이 변방의 풍경을 그려진 누정 시문의 등장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시문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시문도 누정에서 읊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당항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읊은 아래 시를 들 수 있다. 이 시문은 전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시문으로 보이는데, 청사에 영원히 남을 전쟁 영웅의 용지를 피력한 이러한 시문은 전후 피로연을 베푸는 누정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숫고래와 암고래가 바다 가운데 출몰했으니, (鯨鯢出沒海之央)
 이 광랑을 누가 있어 한 손으로 막으리. (狂浪誰能一手障)
 눈물 씻고 배에 오르니 하늘 또한 노한 듯하고, (酒泣登舟天亦怒)
 당항포 중류에서 적함선 치니 검은 연기 햇빛을 덮었어라. (中流擊輯日無光)
 백우선 한번 들어 지휘하면 삼군이 움직이고, (暫揮白羽三軍動)
 잠깐동안 누른 투구 쓰니 모든 요적 사라졌도다. (乍着金兒灑妖藏)
 머리 돌려 동한(東韓)을 바라보니 날랜 장수 있도다. (回首東韓飛將在)
 그 웅명이 천고에 기록되어 청사에 빛나리. (雄名千古汗青芳)⁹⁾

8) 고성군사, 제4장 문화재 및 사적 조, 1163쪽

(2) 정(亭)

① 낙열정(樂悅亭)의 대숲

「고성총쇄록」 누정조에는 4개소의 <누>, 2개소의 <정>, 1개소의 <관>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의 명칭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낙열정(樂悅亭)이다. 신증에서 죽도는 “일명 悅樂山이라 하며 南門밖에 있다. 온 산이 다 대나무로 덮혀 있다.” 고 하였고, 「총지」에도 남문 밖의 죽도에 낙열정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낙열정은 이 지방 출신으로 문과를 한 허기(許麒)에 의해 건립되었다.¹⁰⁾ 현재 남아 있는 시로는 서거정의 시가 대표적이다. 주인 허기와 서거정의 관계를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지만, 만산에 대나무가 덮힌 모습을 신선이 사는 십이동천으로 생각하며 환상에 빠진 시인 서거정의 모습에서 낙열정이 어느 정도 아름다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의 명칭을 지닌 이 지방 최초의 유흥상경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 여겨진다. 1707년 현령을 지낸 조이진(趙以進)에 의해 증건된 적이 있는 듯하다.¹¹⁾

서거정의 시는 다음과 같다.

작은 섬이 잘록 들어간 푸른 바닷가에, (小島截入滄海濤)
만 가지 대숲 묶은 듯 푸른빛이 무성한데, (萬竹如束靑沈沈)
길이 뚫은 무성한 대숲이 반석 위에 앉았으니, (行穿萬竹坐盤石)
단번에 만고의 속된 마음을 씻어 내노라. (一洗萬古塵土心)
부상에서 처음 뜨는 해는 붉은 빛이 산호 같고, (扶桑初日紅珊瑚)
만경창과 푸른 물결 비늘마다 황금이네. (波濤萬頃鱗鱗金)
눈 속의 황골은 무성한 별처럼 드리웠는데, (雪中黃橘垂繁星)
홀연히 한 쌍의 비취 새가 날아들도다. (飛來忽有雙翠禽)
다시 묻노니, 어느 곳이 신선이 산다는 단구이던가. (且問何處有丹丘)
삼산산도 지척이요, 금오산도 여기로다. (三山咫尺金鰲頭)
왕자 진이나 불러 학을 타고 통소 불며, (欲招子晉騎笙鶴)
열두 동천을 청유하고 싶구나. (十二洞天窮清遊)
구주에 다시 구주를 내려가 놀더라도 (下遊九州復九州)
몽예 같은 인간세상은 삼천추일세. (蟻蠓人世三千秋)

9) 「재조번방지」 권2<고성군지, 298쪽 재인용>

10) 『韓國近代道誌』, 「嶺誌要選」, 고성조(亭齋, 166쪽)

11) 「고성군사」, 286쪽 참조

② 계정(溪亭)을 읊은 사람들

계정은 와룡천변에 있었던 정자로 추정된다. 계축옥사로 고성에 유배를 와서 지낸 휴옹(休翁) 심광세(沈光世)의 시에 ‘제구만이집의계정(題九萬李執義溪亭)’이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자의 주인은 집의 벼슬을 지낸 이경생(李慶生)임이 분명하다. 이 시는 원래 모두 3수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두 수만 소개한다.

긴 여름 사립문은 대낮에도 닫혔거니, (長夏柴門晝不開)
말을 타고 함께 와서 시냇가에 앉았노라. (聯鑣齊到坐溪隈)
황매우는 지나가며 옷깃을 적시더니, (黃梅雨過沾衣袂)
벽수풍이 와서는 술잔을 흔드네. (碧樹風來拂酒盃)

집을 에워싼 시냇물은 꽤옥소리로 들리고, (繞屋溪聲響玦環)
온 수풀 푸른 빛이 소나무 빗장으로 가렸도다. (滿林蒼翠掩松關)
인간을 홀리는 영욕을 얼마간 알겠거니, (幻人榮辱知多少)
어찌하면 선생처럼 이곳에서 늙으리. (爭似先生老此間)

계축년 옥사는 조정의 뜻있는 신하들을 외지로 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연간에 조정의 신하들에게 만연한 풍조가 바로 명철보신(明哲保身)이었다. 이경생은 일찌감치 이곳으로 은둔하여 자연과 벗하며 명철보신하였다. 숲에 덮힌 계정의 경관은 조정을 떠난 주인의 은둔처사의 모습으로 스크랩되면서 유배를 당한 시인 자신도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조선후기 때 후손 농헌(龔軒) 이담년(李聃年)이 읊은 한 편의 시를 살펴보자.

와룡산 시냇가에 대숲이 무성커니, (臥龍溪上竹森森)
새로 엮은 초가집이 더욱 그윽해. (新結芳廬轉窈深)
인간사로 따를 길없는 선조의 업이지만, (人事蔑追先祖業)
지명으로 남아있어 옛 성현 흠모하네. (地名粗記昔賢欽)
겹겹이 살아 움직이는 그림은 산을 에워싼 탑이요, (重重活畫山圍榻)
무성하게 흐르는 빛은 눈이 가득한 비너로다. (冉冉流光雪滿簷)
졸다가 일어난 작은 창은 봄날의 한낮이거니, (睡起小窓春日午)
조용히 무릎을 가슴에 대고 한 수 시를 읊노라. (蕭然抱膝一長吟)

이담년은 영조 때 선비로 이름이 있었던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재능을 지녀 만휴(晩休) 조사석(趙師錫)에게 학문을 배웠고, 영조 때에는 여러 선비들과 함께 동궁 사도의 화를 면하게 해야 한다는 소를 올리다가 화를 입기도 했다.¹²⁾ 그의 부친은 ‘상분단지(嘗糞斷指)’의 효자로 지평 벼슬에 추증된 이태빈(李泰彬)이다.¹³⁾ 후손으로서 선조를 따르지 못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③ 해정(海亭)을 읊은 사람들

해정의 내력은 중건기가 남아 있으므로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창건은 바닷가에 했다가 작약산 아래 화림에 중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현 위치인 듯하다.



오늘날의 해정 모습(1916년 중건)

광해조 이후 우설부 한 편을 남기고 홀연히 남하했다고 하거니와 이 해정이 바로 최수강(崔秀岡)이다. 음사로 참봉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을 뿐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다.¹⁴⁾ 그의 주위에 사간의 벼슬을 지낸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가 살았으니, 둘은 친구로서 청풍명월을 내세우며 은거한 사림으로 보아도 좋을 듯

하다. 친구 간송은 바다를 바라보는 얽막한 산언덕에 자리잡은 해정의 주인이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 전설에 비겨 최선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당시 사림의 명월청풍 취향의 관념적 풍조가 얼마나 강렬하였던가를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병진년(1916년) 중건기가 남아 있고, 구만면 화림리 화촌에 건물이 남아 있다.

필마로 바다가 사는 친구 찾아왔더니, (匹馬來尋海上翁)

문 앞은 청산이요 물은 하늘 이었네. (靑山當戶水連空)

최선 간 뒤 최선 있거니, (崔仙去後崔仙在)

명월청풍이 손아귀에 잡히노라. (明月淸風掌握中)

④ 기타 몇몇 정자들

12) “幼有才慧詞華, 筆名著時, 從萬休趙師錫學, 英廟與道儒疎訟東宮免, 忤黨論, 廢學求志, 與一時名碩, 道義相交” (『韓國近代道誌』15, 『嶠南誌』6, 고성조)

13) 『한국근대읍지』8, 三綱조(164쪽)

14) 『한국근대도지』8 고성편(160쪽)에는 음사로 참봉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득강(魚得江)의 정자>

「고성읍지」 인물조에 의하면, 어득강은 대둔 혼둔산 아래에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¹⁵⁾ 현재 그 정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완천(浣川) 박승렬(朴承烈)의 아래 시를 어득강의 정자에서 읊은 것처럼 소개하고 있으나 착오가 있는 듯하다.

어득강은 고성인으로 병으로 고성 친가에서 기거하던 중, 1513년(중종8, 계유)에 함안군수의 부임을 받아 치적이 매우 컸던 인물이다. 병으로 11월에 그만 두고 돌아갔다.¹⁶⁾ 「고성총쇄록」 제영조에는 박덕손이 어득강의 시에 화운한 시라며 인용하고 있는 이 두 시는 모두 고성과 관련이 있는 시가 아니고 함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이들 시는 어득강이 그가 기거하던 정자에서 읊은 시가 아니라, 함안인 이희조의 동산정을 읊은 시인 것이다.¹⁷⁾

개울 건너 버들과 느릅나무는 동서로 비치고, (隔川榆柳映西東)
 여울 밑 맑은 소(沼)는 거울처럼 비었네. (磯底澄潭鏡影空)
 고상한 이 정자에 절경을 더 보태고 싶으면, (若欲高亭增絕勝)
 암죽(巖竹)에 대순을 길러도 좋으리. (莫妨巖竹長籬籠)

<주점으로 쓰인 무기정(舞妓亭)>

고성의 누정 중에서 주점으로 쓰인 <정>이 있어 흥미롭다. 바로 무기정에 관한 기록이다. 그 내용이 흥미롭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침략의 뜻을 품고 밀사를 보냈을 때, 당항포 해변과 통영을 돌아 고성 무학동에 닿게 되자, 마침 밤이 되었다. 그 당시 주막이 많은 무기정 곽세집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예쁜 기생의 요염한 자태에 매혹되었다. 그러나 의무가 중한 밀사는 돌아올 때 들리기로 하고 남해안을 거쳐 평양까지 염탐하고 내려올 때 고성에 들렀다 한다. 곽세집에 찾아가니 기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기생 월이를 안고 회포를 푼 밀사는 술에 취해 녹아 떨어졌다. 월이가 밀사의 비단보자기를 이상히 여기고 열어보니 전략지도였다. 월이는 생각 끝에 밀사의 그림 그리던 붓으로 고성읍 수남리와 마암리 소소강 사이를 바다같이 그려 놓고 동해면과 거류면을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튿날 밀사는 떠났고, 이듬해 임

15) “文章行業, 世所共推, 構亭於大菴混沌山下, 自號灌圃丈人云, 與李彥迪金安國李禎, 相友善, 官至大司諫, 詩集一券行于世” (「고성읍지」, 140쪽)

16) 「함주읍지」, 인물조

17) 동산정의 주인 이희조가 새로 건립한 동산정 신정 6수(首) 중에서 둘째수이다.

진년에 왜놈이 난을 일으켜 그해 6월5일 당항포에 대선단이 26척 배를 끌고 침노해 왔다. 이 때 이순신 장군이 왜놈을 섬멸하였는데, 만약 월이가 꾸민 지도가 아니었다면 왜놈들이 깊이 내포(內浦)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당항포 1차대승첩도 없었을 것이다. 왜놈들이 속았다 하여 이 포구를 속삭개라 부른다.¹⁸⁾

속삭개 지명 설화이거나, 임란에 얽힌 역사 설화이기도 하다. 정자의 명칭을 기생과 관련지어 무기정이라 칭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여기서 우리는 무기정이란 지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주막이 많은 무기정’ 이라 했다. 언뜻 보면 오늘날 술집으로 통칭되는 주막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곳은 무기정이 먼저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순리에 맞는 것이다. 많은 주점이 생기고 난후에 굳이 그곳을 무기정으로 명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관방의 요충지에 굳이 군대를 위한 위로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유사한 휴식공간은 필요했을 것이다. 전후나 고된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 주변에 자연스럽게 깔떡이들이 물려들기 마련이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무기정 주변의 주막이었던 것이다.

이 무기정은 관람문화의 상징인 정자가 곧 주점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자료가 되는 셈이다. 현대 음식점들의 상호를 <누>나 <정>으로 명명하는 데는 다분히 이러한 전통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끝]

18) 「고성군사」, 지명전설, 328쪽 참조

[부록] 고성군 누정 현황

번호	누 정 명	위 치	건립 및 소유자	현존여부
1	가천정(可川亭)	개천면 청광리	전주 최씨	○
2	갈천정(葛川亭)	대가면 갈천리	김해 허씨	○
3	갈촌정(葛村亭)	대가면 가촌리	경주 김씨	○
4	경남정(景南亭)	삼산면 두포리	진양 정씨	○
5	계산정(桂山亭)	구만면 광암리	김해 김씨	○
6	공북정(拱北亭)		李彦築	×
7	관수정(觀水亭)	在郡東仙洞	菊窩張鳳相建	×
8	관해루(觀海樓)	在見內乃梁北崖	<동국여지승람>	
9	낙열정(樂悅亭)			×
10	남두루(南斗樓)	枕海樓의 별칭		
11	노산정(露山亭)			×
12	농산정(農山亭)	영오면 성곡리	단양 우씨	○
13	덕산정(德山亭)	在郡東頭湖	奉事李明愿建	×
14	동화정(東華亭)	영오면 오동리	달성 서씨	○
15	둔옹정(遯翁亭)	在郡東九節山下	通政崔巨山建	×
16	로산정(鷺山亭)	마암면 장산리	김해 허씨	○
17	만송정(晩松亭)		李煥奎築	×
18	만포정(晩圃亭)	개천면 천광리	함안 이씨	○
19	망운정(望雲亭)	동해면 용정리	김해 허씨	○
20	모선정(慕先亭)	대가면 신전리	칠원 채씨	○
21	백원정(百源亭)	영오면 오동리	달성 서씨	○
22	보인정(輔仁亭)	마암면 장산리	김해 허씨	○
23	부해정(浮海亭)	회화면 배둔리	광주 노씨	○
24	사의정(四宜亭)	고성군 북쪽 귀성촌	회남 김상호	×
25	산해정(山海亭)	마암면 화산리	달성 배씨	○
26	산화정(山花亭)	개천면 청광리	전주 최씨	○
27	서계정(西溪亭)		朴文實遺亭孫翼鎭重建	×
28	서비정(西扉亭)	하일면 학림리	전주 최씨	○
29	석우정(石愚亭)	在郡北石馬洞	縣監李碩權建	×
30	소강정(小岡亭)	개천면 봉치리	김해 김씨	○

31	소산정(疎山亭)			×
32	소천정(蘇川亭)	구만면 낙동리	전주 최씨	○
33	수림정(繡林亭)			×
34	수석정(水石亭)	在郡東仙洞	姜東郁建	×
35	안청루(晏淸樓)	고성군城南門樓	(濟南樓로 개칭)	○
36	연파정(蓮坡亭)	구만면 우연리	함안 이씨	○
37	열락정(悅樂亭)	고성군 죽도(今廢)	함안 이씨	×
38	우정(友亭)	마암면 장산리	김해 허씨	○
39	운오정(雲塢亭)	대가면 척정리	칠원 제씨	○
40	율수정(聿修亭)	在郡北鳳崗山	署正金忠慶所築	×
41	제남루(濟南樓)	晏淸樓의 별칭		○
42	존경정(尊敬亭)	고성군 북쪽 귀담	남주 김홍일이 세움	×
43	죽림정(竹林亭)	대가면 척정리	칠원 제씨	○
44	죽사정(竹史亭)	마암면 장산리	김해 허씨	○
45	침해루(枕海樓)	고성군 開門樓	(南斗樓로 개칭)	
46	천산정(天山亭)		李鎭斗築	×
47	청계정(聽溪亭)	구만면 와룡리	함안 이씨	○
48	청류정(聽流亭)	개천면 나동리	밀양 박씨	○
49	취강정(翠岡亭)	在郡東蓮洞	司果金應仁建	×
50	태허정(太虛亭)			×
51	풍화루(風化樓)	고성 향교문루		○
52	학산정(鶴山亭)		李誠奎築	×
53	해정(海亭)	구만면 화촌리	전주 최씨	○
54	향송정(香松亭)	구만면 주평리	창녕 조씨	○

제 3장 고성의 관광

제 1절 고성관광의 개요

고성의 관광은 빼어난 해안선의 절경과 고성군이 가진 자연사와 관련된 생태환경과 고고학적인 독특한 문화유산이 만들어낸 자원의 가치성을 가진 고장이다. 고성관광은 자연 경관과 자연생태, 그리고 문화적 관광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독특한 관광자원 가치를 지니는 자원이 풍부하다. 고성은 기원전변한 12국 중의 하나인 고자미동국으로 불리다가 기원전 42년에 소가야로 건국되어 2천년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다. 고성의 입지조건은 동서로 39km이며 남북 32km로 한반도의 육지부의 남단인 경상남도의 남부 연안에 위치한다. 고성군은 남쪽으로는 통영시, 서쪽으로는 사천시, 북쪽으로는 진주시, 동쪽으로는 창원시 등 4개의 도시와 경계하고 있으며 진주시를 지나 대전 서울 방향으로 대진 고속도로와진주 분기점에서 서쪽으로는 광주, 순천과 멀리 동쪽으로는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지역의 관광객 수요시장과 연결될 수 있어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기대 되는 입지요건을 가진다. 고성 북단에서 해안선에 이르기까지는 벽방산, 거류산, 연화산과 같은 해발 600m 전후의 산맥이 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바다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관광 매력으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의 남동쪽과 남서쪽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한려수도에 면하고 북동쪽은 진해만과 연결된 배둔만을 안고 있어 해안선으로 빠져드는 아름다운 산악관광지와 해안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낸다. 상리 남단의 무이산과 수태산, 영오면, 영현면과 개천면에 걸쳐 있는 연화산, 구만면의 적석산을 연결하는 북부의 산의 위세가 높은 지형을 이루고 통영과 경계에 있는 벽방산, 동해면의 구절산, 철마산이 중앙부에 고지를 이루는 지형의 산록을 따라 동남과 서남일대의 해안은 쪽빛 바다와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고 그 사이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어촌의 서정적인 풍경, 그리고 한가로이 노니는 듯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 그리고 눈길 가는 곳마다 기이한 절경을 보여주는 해안절리들의 아름다움은 고성의 관광을 설명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고성의 해안경관은 지질구조상의 아름다운 풍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질 구조는 풍화 침식으로 해저에 잠기는 것을 막아 지층 속에 들어 있는 공룡발자국의 화석이나 퇴적구조를 잘 보존해 주고 있어 백악기의 퇴적지층을 발달시켜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는 자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고성의 지질적인 특징은 경관과 고고 자연사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문화재적인 가치가 뛰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고 특히 상죽암을 비롯한 공룡 화석지를 중심으로 하여 테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통 테마 상품은 고성공룡엑스포 뿐만 아니라 공통테마 공원과 더불어 임진왜란 유적 등과 결합시켜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고성을 공룡나라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고성은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두 차례나 승전한 호국 충절이 깃든 당항포와 같은 전적지가 널려있는 역사의 교육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 적인 관광자원과 더불어 선사시대의 석기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대 가야국의 유물, 임진왜란의 고성만 해전의 상흔이 아직도 곳곳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 역사적인 현장마다 많은 역사적 유물이 산재해 있기도 하다. 고성의 무형관광자원도 훌륭하다. 이곳의독특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고성오광대의 본고장이기도 하여 이러한무형문화자산은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도 그 역할이 매우기대 되어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역사와 문화체험 교육장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뛰어 나다.

이렇듯 고성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광, 해양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의 입지적인 조건을 활용한 해안 휴양지, 임진왜란의 교육 현장 관광 등 다양한 관광소재로서의 자원들이 풍부한 미래의 해양역사 관광지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고성의 관광자원 현황과 특징

1) 고성 관광자원의 분류 기준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관광주체인 관광객이 관광동기 내지 관광욕구의 목적물로 삼는 관광대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물론 관광자원에 대한 용어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그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종합적인 정의를 보면 관광객들에게 관광동기나 관광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끔 매력과 유인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로서 보전 보호할 가치를 지니는 소재적인 자원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자원이 지니는 가치는 관광객의 동기나 욕구의 변화와 시대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서비스의 생산요소로서 관광자원을 보고 있다. 이때 생산요소로서의 관광자원이라는 측면은 관광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현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로서 자연적 매력, 인문적 매력, 관광시설매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등으로 주요관광자원들을 개념을 규정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을 지정 개발되어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의 대상이 될 경우 관광자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류

된 것들은 관광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념과 지정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고성의 관광자원의 현재적 잠재적인 이용가치를 중심으로 통해 관광자원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고성 관광자원의 유형과 종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의 분류는 통일된 합리적 기준에 따른 분류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성의 관광자원의 경우에 고성이 가진 관광자원의 특징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류하여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특히 고성의 자연 인문적인 매력 중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자원을 가려내어 후차적인 정리가 따라야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분류기준은 상식적인 사고 체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분류 체계에 의한 것이지만 학자들은 대개가 자원이 자연적인 자연물의 소여인가 인간의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 인가에 따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유무형의 유무에 따라 유형관광자원과 무형관광자원으로 나눈다. 초기에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분류에도 영향을 미친 일본의 쓰다 노부르(津田昇)의 관광자원 분류방식은 관광자원을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분류한다. 그의 분류 방식은 기후, 풍토, 풍경과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과 보전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 성격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원, 기념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사회생활 속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풍속, 행사, 생활 풍습과 같은 것을 문화자원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사회적 관광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공장시설, 건본시와 같은 인간의 산업 활동의 현상이나 시설을 관광하는 것을 산업적 관광자원이라고 분류 하였다. 1983년도에 한국관광공사는 많은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한국관광공사의 분류기준

구분	자원 유형	내 용
유형 관광자원	자연적 관광자원	천연자원, 천문자원, 동식물
	문화적 관광자원	고고학적 유적, 사적, 사찰공원
	사회적 관광자원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
	산업적 관광자원	공업단지, 유통단지, 광업소, 농장, 목장, 백화점
	관광레크레이션 관광자원	수영장,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무형 관광자원	인적 관광자원	국민성, 풍속, 관습, 예절
	비인적 관광자원	고유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곡

이외에도 많은 관광자원의 분류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하찮은 자원이더라도 생명력을

붙여 넣을 경우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시장성이 미흡한 자원이라도 잘만 결합하면 시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잠재적 자원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개념이 혼돈한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광자원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성의 자연경관의 특징을 법제도적인 측면의 자연공원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연자원의 유형과 문화적 자원, 그리고 고성의 자연과 문화, 사회 산업적 속성을 감안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지닌 자원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성의 경관과 자연공원과현황

인공성이 없는 자연환경을 위주로 하는 구성요소로 하는 경관을 자연경관이라 부르는데,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 경관이 지닌 어떤 요인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 경관을 선호 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관광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광매력은 타 지역의 경관을 구경하려는 욕구를 가진 관광객의 마음을 끄는 힘이기 때문에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에는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고성의 경관요인으로서의 자연 자원을 소개하기 전에 자연경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인부터 살펴보자. 경관자연 경관이 인간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자연미, 신비성, 특이성, 보양성의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원시적인 자연미를 갖추어야 한다. 보통 어떤 경관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느낌은 외적 대상이 자기 미의식에 부합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자연미를 객관화시키기는 어려우나 동양에서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과 자연조화에 의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서양에서 이야기 하는 자연미는 자연을 바라보고 예술 작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기막히게 아름답다고 경탄하거나 인간의 왜소함을 느낄 정도로 장중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시적 자연미라는 의미는 예술 작품을 즐기듯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기 위하여 자연미 넘치는 전원 풍경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경관의 자연미 때문에 찾아온 것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신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공 환경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대자연에 묻혀 태고의 신비를 맛보고 영감을 얻고 싶어 한다. 여기서 신비성이란 감추어진, 즉 주지된 것이 아니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 일상적인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관광객이 자신의 감정이입을 통해 주위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경건함과 장엄함은 신비의 감정이며, 이것은 인간을 아주 이상한 흥분, 도취, 황홀, 몰아의 경지로 유도하게 한다. 가령 고성 공룡 발자국의 보행하는 발자국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원시

의 신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러한 신비감을 느끼는 것과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이 가지는 특이성이다. 기이한 동물, 꽃, 바위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정원을 만들었다면 평범함을 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특이성을 가지게 한다. 이때 관광객이 보는 특이성이란 보통상태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며 그러한 특이성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관광경험의 회상단계에서는 모든 경험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긍정적인 특이성은 자연경관의 매력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보양성이다. 인간의 관광에서 보양의 요소는 점차 높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성의 경관적 요인 속에는 보양적인 요소가 발견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고성의 경관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쪽으로는 산악지형으로 남쪽으로는 아기자기한 해안선의 아름다움으로 대표된다. 고성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연형의 지정공원으로서 연화산 도립 공원과 상족암 군립공원이 있으며, 관광지는 당항포관광지가 있다. 연화산 도립 공원은 경상남도가 지정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며, 상족암 군립공원은 고성군수가 고성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 군립공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곳이다. 연화산 도립 공원이 지정된 것은 비교적 자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면서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지역으로서, 그리고 고성 상족암은 백악기 공룡 화석지역의 지형적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이 지정절차를 거쳐 보전하는 지역이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관광자원의 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개략적인 자원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관광매력의 특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표> 법제도적 지정 공원 및 지정관광지 현황

고성의 자연공원및 관광지 현황				
공원 명	위치	지정 연도	면적(km ²)	주요자원
연화산 도립공원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544	1983.	22.26	연화산, 옥천사
상족암 군립공원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1983.	5.11	상족암 공룡화석지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1116	1984	9.9	충무공 디오라마관, 거북선 체험관, 당항포 해전관, 고성자연사 박물관

고성군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연화산은 해발 544m의 산세와 산자락이 장엄하지 않지만 산의 형상이 연꽃형의 자리로 화엄 10대 사찰의 하나인 옥천사라는 고찰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

운 산이다. 옥천사는 입구 주차장에서 약 1km 남짓 아름답디 활엽수림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을 따라 30분 즈음 걸어올라 가다 보면 연화산으로 올라가는 중심부에 마치 연꽃이 필 듯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옥천사는 고찰로 유명하다. 옥천사내에 건축물인 자방루, 향로, 대중, 대웅전, 명부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옥천사 일원 전체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를 관람하는 쓸쓸한 재미가 있다. 연화산은 선유, 옥녀, 탄금의 세 봉우리가 신선이 거문고를 타고 옥녀가 비파를 타는 형국이라는 유래가 전해질 정도로 주변 풍광도 아름답다. 연화산은 연화산 자락의 연꽃이 올라오는 자리에 등지를 틀고 있는 옥천사와 백련암, 청연암, 연대암등의 암자를 중심으로 한 사찰순례와 옥녀봉, 선도봉, 망선봉의 세 봉우리의 연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관광객들이 편한 산행을 할수 있게 해준다. 물론 연화산은 산세가 순탄하고 잘 닦여진 아기자기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연화산에 오르면 산 정상에는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동쪽으로는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당항포가 한눈에 들어와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옥천사 쪽의 입구에는 고성군 관광 사업소와 넉넉한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길손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연화장이라는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천년고찰의 아름다운 숲길과 연화산 등반을 하고 하루 즈음 유숙하고 가도 좋은 관광지이다.

고성 상족암은 고성의 많은 공룡화석 보전지중에서 지형지질적인 특징이 가장 잘 보전된 지역이다. 상족암 군립공원은 지형지질 보전 지역으로 1983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하이면의 덕명리, 월흥리, 하일면, 춘암면 일대의 6km의 해안에 걸쳐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그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고성군에서도 자원의 보전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상족암의 경관적인 특징은 남해안의 수려한 절벽과 둘러싸인 해안선을 따라 남해안을 바라보는 풍광이 수려하고 해변의 넓은 암반과 기암절벽이 조용한 바다의 정일성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에 있다. 상족암 해안에는 1982년에 중생대 백악기의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난 다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과 새발자국과 같은 화석산지가 잇따라 발견되어 이 지층을 따라 인근 41km에 걸쳐 2천개 이상의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등의 다양한 공룡화석들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 3대 공룡화석지로 인정받고 있다. 상족암 일대의 지천으로 널린 공룡발자국 화석은 이구아노돈과 같은 발톱이 삼지창처럼 갈라진 조각류 공룡과 브리키오사우루스와 같은 네발로 걷는 목이긴 초식류 공룡인 용각류의 화석이 대표적인데 대개가 2억 ~ 6천 5백 만 년 전에 지구를 지배해왔던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 공룡들의 발자국이다.

상족암의 지형의 유래는 바위가 밥상다리 같이 펼쳐 있어 쌍발 또는 상족이라 불리 운

다. 이름에서도 보듯이 상족암은 넓은 암반위에 수많은 태고의 공룡 발자국이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날 것 같은 행렬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일정한 행렬을 이루고 있어 공룡들이 집단 서식하던 장소로 추정된다. 바닷물이 빠져 나간 너럭바위 곳곳에 움푹 패인 구덩이 같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어떤 것은 한 줄로 곧게, 또 어떤 것은 어지럽게 찍혀 아름다운 절벽의 공룡들의 발자국을 따라 바윗길을 돌아가면 아름다운 절벽을 돌아 동굴이 나타나며, 동굴 속에서 보면 부서지는 파도소리와 더불어 서정적인 바다풍경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 경이로워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상족암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내 최초의 공룡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어 자연형의 지형 보전과 함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질 지형 생태 관람과 체험 교육 현장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이곳의 시설은 대표적인 공룡인 이구아나돈의 몸체를 형상화한 공룡박물관과 공룡화석, 공룡탑, 전망대, 공룡 화석지 모형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공룡박물관은 면적 1만 여평 규모의 5개의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제 1전시실은 공룡의 계통도와 활동시대, 공룡의 크기와 골격을 만들어 놓았다. 제 2전시실은 공룡발자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 3, 4, 5전시실은 움직이는 로봇공룡과 공룡알, 그리고 각종 화석을 만난다. 그리고 공룡 뼈 조각 맞추기, 크기의 비교, 겉모양과 공룡내부의 비교하기 등과 같이 어린이 체험공간도 갖추고 있어서 체험을 통해 공룡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당항포 관광지는 고성군의 유일한 지정관광지이다. 당항포는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두 차례에 걸쳐 승전고를 올린 장소의 평단하고 넓은 배후지에 건설한 국민관광지이다. 국민관광지라는 개념은 원래 고성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관광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야영지, 휴게소, 숙박시설과 관광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군의 사업 계획과 정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관광지이다. 국민관광지는 그 이후 국민관광지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자연 발생형의 유원지 보다는 좋은 경관이나 관광자원이 있는 장소에다가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관광시설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관광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당항포 관광지는 1989년 1월에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1993년 까지 1차 시설인 관리소,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과 야영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인 관광지로 출발하였다.

현재 당항포 관광지의 위상은 인접 지역의 도시민들의 여가 향유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고성관광의 트레이드마크로서 제 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당항포 관광지는 위의 편의 시설 사업 이외에 앞에 공룡화석 보전지역인 상족암의 공룡을 주제로 하여 당항포 관광지 내에서 공룡엑스포를 통해 역사, 자연유산을 결합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고성공룡 엑스포는 2009년부터 시작한 행사로서 선사와 역사

가 숨 쉬는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가치를 걸고 다양한 공룡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공룡테마와 해양 레포츠 관광을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패턴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휴양관광지를 표방하고 있다. 고성군은 당항포 관광지내의 엑스포 행사를 통해 고성의 자연을 대표하는 고성자연사 박물관과 공룡세계의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엑스포 주제관인 다이노피아관, 그리고 고성의 수석과 자연석 조각공원 등과 같은 자연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명실상부한 역사체험 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충무공의 일대기를 배울 수 있는 충무공 디오라마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체험관, 당항포 해전을 관람할 수 있는 당항포 해전관 등의 관광관람 및 시설을 건립하여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당항포 관광지는 앞으로 임진왜란의 역사와 공룡 테마를 중심으로 한 자연사 체험,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해양 레포츠 marina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중무휴로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거점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3) 고성의 주요 자연형 관광현황

위의 지정관광지나 자연공원의 소개와는 달리 중첩되더라도 자원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자원 특성에 따른 관광활동을 위주로 주요 자연형 관광을 소개하면 산악형과 해안형의 관광자원, 그리고 복합형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다.

고성의 주요 자연관광 자원 현황			
유형	자원 명	주요자원	자원 특성
산악 및 해양 자원	거류산	거류산성, 엄홍길 전시관	당동만의 다랭이는 전경, 고성과 한려해상의 전경
	벽방산	안정사, 백운사	한려수도의 조망, 등산, 진달래, 안정사의 소나무 숲
	향로봉	운홍사, 천진암, 낙서암	수태산에서 무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한려해상공원의 조망
	무이산	문수암, 보현사	사찰, 문수암의 일출, 기도도량, 자란만과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아름다운 풍광 수태산에서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자연형 관광 자원	고성장산 숲	장산 숲과 연못	노산정과 전통 연못의 휴식 공간
	갈모봉 산림욕장	편백 숲	산림욕장과 산책로
	수목원 만화 방초	야생화와 꽃나무	정원의 산책과 꽃, 나무 감상
	소담수목원	야생화와 꽃나무	정원의 산책과 꽃, 나무감상

(1) 산악 및 해안관광자원

고성의 산악 관광자원은 바다를 끼고 정상주위의 암봉이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멀리 한려수도의 섬들을 바라보는 경관이 뛰어나다. 특히 거류산, 무이산, 향로봉, 벽방산은 그 중에서도 해안으로 펼쳐진 풍광이 뛰어난 장소의 조망성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구절산, 좌이산, 무량산, 적석산, 선유산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고성의 산악관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해안 인근의 자리 잡고 있어 조망성이 뛰어난 산악관광자원인 위의 네 개의 산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무이산은 왼쪽으로 고성과 통영 사이에 남해바다가 호수처럼 펼쳐져 한려수도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조망성이 뛰어난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천년 고찰인 문수암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산악관광자원이다. 무이산에 올라서면 바로 앞 자란만에서 사랑도가 바라보이고 점점이 사이에 떠있는 자그마한 섬들 사이로 멀리는 육지도가 눈에 잡히는 한려수도의 경관을 바라보기 좋다. 이러한 경관의 아름다움은 보현암에 까지 이어져, 사찰 너머로 멀리 보이는 바다는 마치 커다란 호수를 연상하게 하는 조망성에 있다. 무이산은 통일신라 성덕왕 5년에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창건했다고 전하는 문수암이 있어 고승들의 수도장으로 유명하다. 이 문수암에는 청담선사의 부도비와 함께 주변의 암벽들이 둘러싸여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비록 문수암은 규모는 작은 절이나 한려수도의 작은 섬들을 거느리고 암봉의 중앙에 자리 잡아 가히 명당이라 할 수 있는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수려한 전망도 전망이려니와 불심이 깊고 선한 마을을 가지면 부처님이 보인다는 곳으로 심란한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불자들이 자주 찾는 산이다. 문수암의 관광자원의 가치는 무엇보다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 산행을 해도 될 정도로 아기자기한 풍광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태산에서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탐방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무이산은 쉽게 찾아갈 수 있어도 경관의 빼어 남 만은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 볼 수 있는 산이며, 자리를 여기 저기 옮겨도 가시적인 풍광이 눈에 잡혀 들어와 싫증이 전혀 나지 않는 좋은 산이다. 이 무이산 등산은 인근의 향로봉에서 수태산과 무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가 주된 종주 코스이며 문수암 앞에는 버스와 승용차를 수 십대나 세울 수 있는 넉넉한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향로봉은 산세가 순한 평범한 산으로 보이지만 남쪽 기슭에 운흥사, 천진암, 낙서암과 같은 고찰을 품고 있다. 이 향로봉에서 문수암이 있는 무이산 까지는 능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종주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잘 정비 되어 있는 명산이다. 이 향로봉의 남쪽 자락에는 운흥사가 있다. 이 절은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지휘하면서 이순신장군과 수륙양

면 합동작전을 했다는 역사속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고찰이다. 특히 운흥사는 절의 탕화나 불교 건축물의 장엄을 그려 넣는 화원 양성소로 유명해 불화의 대가인 의겸스님을 배출한 도장이기도 하다. 현재도 경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괘불이 보존되어 있다. 아기자기 한 향로봉의 정상에 올라서면 신수도를 포함하여 한려해상공원의 수우도, 사랑도와 같은 수많은 남해바다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능선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관목의 숲이 잘 우거져 가을 단풍철에는 노란 용단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부드러움을 주고 있어 가을 단풍철에 등산코스는 등반객들의 인기가 좋다. 향로봉의 등산 코스는 수태산 문수암의 산록과 연결되어 운흥사에서 낙서암을 거쳐 무이산으로 둘러 오는 종주코스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운흥사에는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벽방산은 고성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통영과 고성을 나누어 놓는 큰 산이다. 통영과 고성의 양 시군의 경계지점에 솟아 난 벽방산은 북단을 제외한 삼면이 푸른 남해 바다의 파도가 굽이치는 중앙에 위치해 소가야 도읍지인 고성군과 통영시와 한려수도 전체를 조망하기 좋은 명산이다. 벽방산이라는 이름이 부쳐진 것은 불가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십대제자 중의 하나인 가섭존자가 바리때를 받쳐 든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벽방산의 정상은 해발 650m로 칠성봉이라고 부르며 이 봉우리는 고성, 통영, 거제를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벽방산의 산정은 아기자기한 암봉으로 이루어 졌다. 칠성봉 정상에 올라서면 동남쪽으로 거제도의 계룡산과 노자산이 남으로는 한려수도의 경관이 펼쳐지고 북으로는 거류산과 소가야의 벌판이 동양화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조망을 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러한 조망이 한층 뛰어나 한려수도에 점점이 떠있는 섬이 무려 170여개나 보이고, 쪽 빛 바다에 떠 있는 울망줄망한 섬들이 정겨움을 더해 준다. 벽방산의 관광자원적인 가치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산을 감싸고 있는 기암 괴석과 절벽 그리고 그 사이에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암자들이다. 이 벽방산에는 만리암 옛터를 감싸는 바위 절벽, 은봉암의 뒤쪽 고성만 쪽으로 우뚝 솟아난 마바위, 벽방산 정상 동쪽 능선에 도장처럼 생긴 도장 바위 등 주위에는 각 암자 마다 제각기 다른 전설과 설화들이 불타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듯 기도처로서 좋은 명산이다. 산을 내려오면 붉은 줄기의 적송 숲 아래에 안정사가 있다. 이 안정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가섭암, 은봉암, 의상암과 같은 암자를 거느리고 있고 무애암, 벽암사와 더불어 수행도량으로서 매우 유명한 사랑이다. 안정사로 내려가는 길은 짧기는 해도 노송과 사찰이 어우러짐은 더할 나위가 없고 산의 7부 능선 근방에는 산정까지 이어지는 진달래 군락이 정겹게 피어 있어 4월 중순의 봄 산행은 한려해상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다.

거류산은 고성읍의 동쪽으로 3km가량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고성평야, 북으로는 당항만, 동쪽으로는 구절산과 당동만을 끼고 있고 남쪽 멀리로는 통영시와 경계를 이루며 정상에는 거류산성이 축성되어 있는 사적지가 있다. 이 거류산성은 산 정상에 들을 쌓아 소가야 마지막 왕이 신라의 침입에 방비하기 쌓은 성으로 최근에 성터가 복원되어 있어 고품스러운 역사적 유물과 높이 솟은 바다로의 조망이 뛰어난 명산이다. 이 거류산성의 자취는 가야의 유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역사적 유적이다. 거류산이라는 이름은 전설에 의하면 어떤 규수가 밥을 짓다가 나와 보니 산이 움직여 바다를 향하고 있어 산이 걸어간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으로 그 소리를 듣고 산이 멈춘 후에는 걸어가는 산이라 하여 걸어산이라 불리다가 거류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거류산의 산세는 고성의 다른 산들과 달리 남해를 향하여 우뚝 솟아난 상봉으로 고성에 인물이 많이 나는 것도 이산의 정기 때문이라 하여 고성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산이다. 정상에서 둘러보면 남해안의 절경이 넓게 펼쳐지고 벽방산, 무량산, 구절산과 고성읍과 넓은 고성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이순신의 1,2차 대첩지인 당항포 관광지의 역사적 현장의 바다가 서정적인 풍경을 더한다. 특히 거류산 정상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당동만의 아름다움은 정말 아름답다. 이 당동만의 바다는 파란색 잉크를 풀어 놓은 듯 청색이 되 어둡지 않은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함께 봄과 여름, 가을로 그 청색 바다위로 이어진 구릉에는 초록색이 뒤섞인 다량논이 흘러 내려 마치 다른 색감의 연청과 노란색의 조각보를 이어 붙인 듯 다량논의 아름다운 풍경은 탄성을 지르기에 충분하다. 거류산 등반은 거류산 아래 대숲과 야생차밭을 둘러친 장의사 뒷길의 돌탑군락을 지나 엄홍길 기념관 방향으로 향하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6부 능선 즈음에 바위위에서 동쪽으로 당동만 일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접할 수 있다. 고장의 산악인인 엄홍길 전시장 앞에 버스와 승용차 60여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문암산을 거쳐 거류산 정상을 거쳐 약 3시간 여 정도 소요된다.

(2) 자연형 관광자원 : 숲, 휴양 산책 자원

이밖에도 고성에는 자연 풍광이 뛰어난 산악자원 이외에도 아름다운 숲과 연못, 그리고 계곡, 폭포와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하기 좋은 풍광이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자연형의 관광자원 몇 군데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갈모봉 삼림욕장은 고성읍 이당리에 70여ha의 임야에 편백, 삼나무를 조성하여 산책로와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시설을 갖춘 삼림욕장이다. 이 삼림욕장은 30~50년 정도 된 편백이 울창한 산림으로 이어진 1.6km의 산책로를 중심으로 삼림욕대, 야외 휴식탁자와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성군민 뿐 아니라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에서 삼림욕을 즐기기 쉽도록 잘 조성되어 있다. 입구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삼림욕장으로 들어서 갈모봉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따라 걸으면서 피톤치드가 내뿜는 청아한 냄새를 맡으며 자연의 소리에 파묻혀 피톤치드로 가득 찬 공기를 천천히 여유롭게 들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속을 찾아 온 힐링의 의미가 채워진다. 이 갈모봉 삼림욕장은 주변경관과 더불어 힐링치유의 명소로 너무나 좋은 숲속 체험을 교육할 수 있는 숲속의 교실과 탁자와 삼림욕대, 팔각장의 휴게 시설, 체력단련시설과 같은 시설이 고루 잘 갖추어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쉼터로서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힐링 치유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훌륭하다.

고성 장산숲은 마암면의 장산마을에 있는 연못을 낀 아름다운 정원이다. 장산 숲은 200년이 넘는 울창한 활엽수림으로 조선 성종 때 퇴계 선생의 제자인 천산재 허천수 선생이 노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연못을 파 나무를 심어 물고기를 놓아기르며 즐기던 자연스러운 지금까지 전해 오는 한국형 정원이다. 장산 숲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아름다운 숲 부문의 아름다운 공존상을 수상했다. 장산 숲이 만들어 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 태조 때 정절공 호은(湖隱) 허기(許麒)가 이 마을의 풍수 지리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숲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에는 그 길이가 약 1,000m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지금은 길이 100m, 너비 60m, 면적 6,000m²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숲 안에는 연못을 파고 그 한가운데 신선사상에 바탕을 둔 섬을 조성해 놓아 숲의 경관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 숲을 이루고 있는 주요수종은 느티나무·서어나무·긴 잎 이팝나무·소태나무·검노린재 나무·배롱나무·귀똥나무·팽나무 류 등으로 우리나라 남부의 고유수종들이 모두 250그루나 되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며 동시에 문화적 또 생활 환경림으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이 숲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방풍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숲과 연못, 그리고 못 한가운데의 정자가 아름다운 한번 즈음 들러 명상에 빠져 볼만한 장소이다.

만화방초는 거류면의 은황길의 벽방산 자락에 위치하며 이름은 온갖 야생화와 들풀이 어우러져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 졌다. 만화방초는 원래는 주인이 20년 전 즈음 부터 차밭을 가꾸며 야생화와 꽃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가며 를 심어 공개하지 않던 사유지였으나 주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현재 만화방초는 황톳집 앞에 쉼터를 조성하고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앞으로 계속 숲과 산책로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만화방초를 둘러보자면 황톳집을 건너 장승 숲을 지나면 벚꽃나무와 차밭을 넘어 차밭과 계곡사이로 7백여 종의 야생화를 심어 아름다운 자연형 정원이 있다. 계절별로는 이른 봄에는 벚꽃이 봄부터

마치 나비가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여름에는 산수국이 풍성하고 가을철에는 야생화 밭을 따라 상사화가 붉게 피어 사시사철 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야생화 밭 산책로를 따라 가면 자연 암석원을 지나 조망이 아름다운 벽방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거제의 외도와 같은 인공미 보다는 자연스러운 숲속의 정원처럼 산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소담 수목원은 동해면 외산리 좌부천 마을의 산자락에 있는 원래는 관광농원이다. 하지만 소담 수목원은 오랜 기간 주인의 정성으로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자연스러운 숲과 정원으로 수목원 내의 카페에서 바라보는 남해 바다의 정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다. 소담수목원은 고성외의 자연 풍광을 닮아 그런지 만화방초나 마찬가지로 꽃과 나무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내도록 지나친 욕심 없이 사계절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며 카페 내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핸드립 커피 맛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함 소품들도 구입해 갈 수 있는 말처럼 소담스러운 장소이다. 이 소담원은 3만평의 부지에 1978년부터 주인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가꾸어 가며 조성한 곳으로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소담스러운 자연 풍광과 평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명소이다. 소담수목원은 꽤 넓은 면적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한 시간 정도 산책길에서 온갖 수종의 나무와 꽃을 만날 수 있어 산책을 마치면 어느 사이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쇠락해질 정도로 진정한 휴식처로 한번 즈음 방문해볼만한 곳이다.

(3) 다양한 화석테마 자연형 관광자원

고성군은 경상분지 퇴적층의 남단에 위치하여 백악기 육지기원의 퇴적층이 두껍고 당시 살았던 고성군 전역에서 공룡발자국 군집이 많이 발견 되고 있어 숲이나 산림과 같은 자연 자원이 아니라도 화석의 지형지질구조들이 바다와 절벽과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보인다. 고성군의 전역에 공룡화석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전역에서 풍화 침식으로 해저가 잠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지질구조로 인해 지층 속에 들어 있던 많은 공룡발자국 화석이나 퇴적구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지질 작용의 결과로 하이면 상층해안에 공룡발자국화석과 새발자국 화석, 동해면 남동부 해안에 나타나는 화석, 영현면 계승사의 경내에 보여주는 공룡화석, 물결자국 및 빗방울 자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룡발자국 화석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성만이 가진 독특한 자연유산이면서 유인력을 지닌 자연형 관광자원으로서 상족암으로 대표되는 고성 덕명리 고생물화석군집지역과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고성군 전역에 분포한 중생대 지질구조의 다양한 화석 군락은 지형지질

구조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뛰어나 하나의 테마 관광 상품으로 그 가치가 크다. 이를테면 영현면의물결무늬와 빗방울 자국화석이 있는 계승사를 출발하여 연화산 옥천사의 공룡화석 발자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조류 발자국과 다양한 공룡발자국 군락을 가진 상족암 군립 공원과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공룡화석을 전시한 공룡박물관과, 그리고 당항포 내의 자연사관을 둘러 회화면의 어신리, 동해면 구학포 공룡발자국 화석지로 이어지는 화석 테마 관광자원은 매우 교육적인 자원의 독특성과 유인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성을 대표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고성 계승사 경내에 있는 백악기 퇴적구조는 공룡발자국, 물결자국, 빗방울 자국으로 대표되며 이 화석군락들은 2006년에 천연기념물 제 475호로 지정되었다. 계승사 경내에 들어가면 왼쪽 너른 암반위에 물결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데 이 물결자국은 얇은 물 아래 갈아 앉은 모래와 작은 자갈이 물결운동에 의해 암반에 화석을 만들어 냈다. 옛 대웅전 뒤편에는 아주 선명하여 금방 떨어진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물방울 화석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암반에는 공룡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고 알려진 네다리로 걷는 초식공룡인 용각류의 거대한 발자국이 7개가 찍혀 있는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지역에는 퇴적 구조 층리와 두발로 걷는 육식공룡의 공룡발자국 화석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곳은 백악기의 퇴적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다양한 화석의 환경을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 나다. 고성 계승사는 연화산 틀게이트에서 10분 정도 내에 있으며 연화산의 동쪽 뒤편으로는 옥천사 입구에 공룡화석 군락이 있어 공룡 화석 관광자원의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앞에서 언급 한 적이 있는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지는 1999년에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석유적지로서 상족암이라고 불리는 육지와 공유수면의 넓은 지역에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공룡발자국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곳의 고생물화석은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지층에 형성되었으며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서는 양으로 보나 화석의 다양성으로 보나 세계 3대 화석지로 꼽히며, 특히 중생대 새발자국으로는 단연 세계 최대의 화석보전지이다. 덕명리 화석지대는 상족암에서 실바위 까지 6km의 해안선을 따라 퇴적암 지층의 300개의 성층면에 약 3천개의 공룡 발자국과 5백여 개의 보행렬이 장관을 이루는 최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지이다. 이곳의 공룡 발자국들의 유형을 보면 발통고성룡을 비롯한 이구아나룡 종류, 발굽 울투라 룡을 비롯한 다양한 울투라 룡, 중간 크기의 공룡인 용각류 공룡, 네발로 걷는 초식성 공룡 육식성 큰 공룡 등 그 종류나 양이 아주 많이 분포한다. 그 외에도 도요새와 물떼새의 화석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 공룡박물관 인근에서 공룡의 걸쭉질의 피부가 형성화된 공룡피부인상화석이

발견되어 다른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 알 화석과 함께 고성이 공룡화석의 보고임을 알려준다. 2004년에는 문화재 지정 구역의 뒤편 언덕위에 공룡박물관을 건립하여 교육 목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룡의 화석의 유형과 체험학습의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회화면 어신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는 고성군의 동쪽 해안의 끝에 위치한 공룡화석지로 발자국 길이가 불과 9cm 밖에 되지 않는 소형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화석산지 중에서 가장 작은 공룡화석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어신리 동편 해안의 중형 용각류 발자국은 좌우 앞 뒷발의 크기가 비교적 선명하게 찍힌 좋은 보행렬을 보여주는 화석 발자국의 관찰체험교육장으로 아주 훌륭하다. 어신리 아래 땀의 서남로로 뻗은 남쪽 끝 해안으로는 대형 조각류 공룡들이 나란히 보행하는 모습의 화석류가 있으며 위로 5m 상 위층에서는 중형 조각류 4마리가 보행해 나간 모습도 발견된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회색이 암 층면을 따라 조각류의 발자국이 걸어간 모습이 보이는 등 어신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 가면 다양한 화석의 보행 현장이 마치 지금도 되 살아 나와 걷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화석발자국을 구경할 수 있다.

동해면 남동 쪽 해안의 장좌리와 봉암리 일대에도 다량의 공룡화석이 있다. 작은 구학포라고 불리는 장좌리 발자국 화석지는 공룡발자국 길이가 1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용각류 공룡발자국 화석이 분포하는 지역이면서도 여러 마리의 공룡들이 떼를 지어 보행해 간 보행렬이 매우 뛰어난 공룡화석지이다. 특히 동쪽 방파제 끝에서 해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큰 공룡화석 발자국이 발견되는데 학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추정치를 산정해 볼 때 체고가 5m가량이 넘고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무려 20m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공룡화석 발자국은 굴이나 따개비가 자라는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고 상당 지역이 조선 단지 내에 편입되어 훼손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

큰 구학포라고 불리는 봉암리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마을 선착장이 끝나는 지역의 습곡 모양의 지층의 단면이 지질학적인 형상을 잘 드러낸다. 봉암리 화석지는 마을을 벗어나 장좌리의 작은 구학포 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해안가에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 화석군락지는 해수면이 낮아 질 때 잘 관찰 할 수 있는데 4족 보행렬이 상당히 길게 뻗어 있어 장관이다. 그리고 수면아래에 잠긴다 해도 서쪽 편으로 향하는 발자국 행렬은 자리마다 흰색의 굴이 뒤엎고 있어 형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여행지로서 고성하면 누가 뭐라 해도 공룡으로 대표된다. 고성의 공룡화석지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자연자원과 차별성을 가지는 유일성을 자랑하는 자원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생대 지질 구조가 고성에 준 큰 선물에 비견되어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획득하게 한 배경이 되기도 하여 공룡 엑스포와 함께 고성관광의 유인력을 높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다른 자연 역사자원과의 연계 코스 개발이나 인접 관광지와 연계 상품으로서도 역할 하지만 무엇보다 고성의 상징적인 관광이미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자원가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4) 고성의 자연명소관광: 해돋이와 드라이브 코스

고성의 해돋이 명소는 문수암의 일출과 동해면 해맞이 공원의 일출을 들 수 있다. 해돋이는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동터오는 해맞이와 함께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이 좋은 장소를 찾아 한해의 안녕과 기원을 하는 관광의 형태로새로운 관광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성의 문수암은 한려수도의 풍경이 장관인 무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대표적인 일출 명소이다. 일출 명소로서 문수암은 한려 해상의 해안의 중앙지점에 위치해 무이산에서 해가 수평선에 치솟는 순간에 점점이 숨어 있던 작은 섬들과 출렁이는 바다가 함께 붉게 물들어 황홀한 광경을 연출하여 그리 높지 않은 긴 능선을 따라 일출하는 장면을 수월하게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 매월 정초가 되면 일출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문수암의 일출이 유명한 것은 단지 일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수암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있듯이 문수와 보현보살의 수행처로서 불자들에게는 한해를 기원하는 장소로서 예불을 들이면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맞이하면서 한해 소원 성취를 비는 일출명소이다.

새해 첫날 동해면 내산리 바닷가에서는 고성의 군민들과 마산 창원, 진주 인근에서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함께 하는 동해면 해맞이 공원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해마다 이 해맞이 행사에 4천명이 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참가할 정도로동해면 해맞이 행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동해면 자치단체들이 떡국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주고, 동해면의 농악단이 풍물을 치면서 한해의 기원을 빌어주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축제로 열린다. 새해 첫날에 동진교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가 시골 풍경과 해안의 절리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장소의 해 떠오르기 좋은 장소에 해맞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소에도 아름다운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지 좋은 장소이다.

고성의 드라이브 코스는 해안드라이브 코스로서 주로 부산 마산 쪽에서 고성으로 가는

해안선을 따라 리아스 해안의 절경과 바다를 끼고 가는 코스로서 마산 쪽의 동진교를 지나 동해면 까지 이어지는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가는 코스와 삼산면에서 하이면으로 이어지는 바다는 갯벌과 해안 절경이 포근하게 어우러지는 2개의 코스가 있다.

동진교에서 동해면 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아름다운 붉은 다리인 동진교를 거쳐 77번 국도를 따라 동해면에 이르는 9.7km의 아름다운 코스이다. 동진교를 건너 서안 해안을 따라 오른 쪽으로는 창포만이, 왼쪽으로는 당항만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바다의 풍광은 육지에 거의 둘러싸인 호수 같아 거울처럼 잔잔한 경관을 만난다. 커다란 호수와 같은 바다를 지나면서 곳곳에 산재한 공룡시대의 화석 발자국들이 마치 원시의 시대로 이끄는 듯 바다를 휘휘 돌아가는 길을 따라 사라지는 듯 하다가 언젠 부터 인지도 모르게 살갑게 다가오는 야트막한 산위에 계절 별로 동백 꽃, 진달래 꽃, 연두 빛 밀밭, 노란 유채 꽃 등이 아름답게 피어 운전자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해안선의 멀리에는 바다위에서 조개 따는 어부가 작업하는 뗏목이 뚝뚝 떠 있고, 어촌 마을의 방파제에는 녹색 그물이 수북이 쌓여 서정적인 어촌 풍경과 함께 이곳이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오손 도손 살아가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한다. 결코 화려한 풍경은 아니지만 시골마을의 정겨움 때문에 나그네를 쉬어 가게 하는 곳이며 풍광의 아름다움에 비해 차량이 한적해 여유를 가지고 한려수도의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다.

삼산면에서 하이면으로 이어지는 제2코스는 동해면 바다가 잔잔한 호수를 보는 듯하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과 아름다운 해안 절벽이 어우러져 훨씬 아기자기한 경관을 연출한다. 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면서 즐기기 위해서는 1010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삼산면 근방의 도로 주변의 경관은 바다 물이 빠지면서 돌과 굵은 모래가 된 바닥을 드러내면 인근 어촌 마을에 이주머니들이 삼삼오오 수건을 둘러쓰고 굴을 까며 조개를 채취하는 어촌 생활의 모습들이 정겹게 눈에 들어온다. 소가야 유적지의 고분과 공룡화석의 발자국이 보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 모래와 자갈이 섞인 서해안과는 또 다른 멋을 자아내는 갯벌에서 굴까는 아낙네의 생활터전 감상하기, 부드러운 해안선과 절벽의 풍광이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하며 드라이브 코스를 즐기는데 가장 적격인 인 곳이다.

4) 고성외 문화 관광자원

문화재는 인류문화적인 견지에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보전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고성군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총 71점이다. 그중 국가 지정 문화재가 10점, 도 지정 문화재가 34점, 고성군이 지정 보전하고 있는 문화재 자료가 26점, 근대문화유산 국가 등록문화재가 1점 등 총 71점이다.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로 나누어진다.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군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지정 주체에 따라 나뉜다.

<표>고성의 문화재 현황

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문 화 재 자 료	국 가 등 록 문 화 재
	소 계	보 물	천 연 기 념 물	사 적 지	무 형 문 화 재	소 계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71	10	4	2	2	2	34	19	0	12	3	26	1

국가 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인 보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된 것,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들을 국보로 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유형의 자산으로서 역사, 학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물로 지정한다. 고성군의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인 보물은 4점으로 보물 제 495호인 고성 옥천사 청동 북, 보물 제 1693호인 고성옥천사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보물 제 1317호인 운흥사의 괘불탱,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가 있다.

기념물은 기념물 가운데서 가령 조개무덤, 선사시대의 주거 취락, 궁터, 성터, 교량, 서원, 향교, 제단과 지식묘, 등과 같은 이전의 유적, 제사, 신앙, 정치, 국방, 산업, 교통, 토목, 분묘들 중에 중요한 것을 지정하는 사적, 기념물 중에서 자연 경관이나 동식물 서식지 경관과 전망이 뛰어난 곳인 명승, 사적과 명승, 기념물 중에서 동물, 식물, 지질과 광물, 동굴, 그와 관련된 천연보호구역의 보전적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로 분류 된다. 고성의 기념물은 모두 4점으로 사적 119호인 송학동 고분군과 사적 제 120호인 내산리 고분군이 있으며, 천연 기념물로는 천연기념물 제 411호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75호인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고성의 중요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인 고성오광대와 제 84호인 고성 농요가 지정되어 있다. 민속 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정하는데 고성군 내에는 국가 지정의 민속 문화재가 없으며 단지 경상남도 지정 민속자료인 민속자료 1호 마암면의 석마와 경상남도 지정민속자료 제 16호인 고성 봉동리 배씨 고가, 고성 학림리 최씨 종가 등 3점을 보유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은 급속한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되어가는 근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에 대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두고 있다. 고성군의 문화재 중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국가 등록문화재인 근대 문화유산 담장 제 258호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이 있다.

문화재라고 해서 모두 관광자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재가 인문관광 자원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한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자원으로 관광유인물로서 매력을 가지기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 이외에 관광객의 관광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원래의 목적은 관광 측면의 구성요소로서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그 자체의 학술성과 예술성, 역사성, 희소성의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따름이다. 가령 해인사라는 사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팔만대장경이라는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만을 가지고 평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해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형에 따른 관광욕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인사 전체가 지닌 자원의 위락성, 다양성, 관상성, 계절성, 역사성의 유무에 따라 평가 할 일이다. 관광객들은 팔만대장경을 보러 오지만 해인사 경내의 박물관에 들러 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과 그 역사적, 학술적 보전가치를 느낀다. 그런 점에서 해인사의 가치는 흥류동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아름다운 계곡과 우람한 소나무 숲의 조화, 그리고 해인사 경내에서 만나는 스님들과 사찰 전체가 주는 경건한 사찰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곳의 음식과 쇼핑해가고자 하는 특산품들이 관광객들에게 감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적 관광자원으로서 속성을 지닌 자원이라면 얼마든지 관광자원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가령 고성 운흥사의 경우 관음탱화, 감로탱화, 미타 탱화, 약사 탱화와 같은 도 지정문화 유형문화재와 명부전의 목 조각상, 운흥사 내의 명부전, 영산전 등의 고성군 지정문화재 자료와 같은 문화재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의 측면에서 관광자원 가치는 운흥사의 사찰 경내의 수많은 건축물과 조각, 벽화, 가구와 더불어 사찰 경내에 넓은 연못과 다양한 수목, 화초, 바위, 숲으로 된 정원과 같은 복합적인 매력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여부가 더 중요한 자원 가치척도가 될 수 있다.

자원 유형	자원특성	자원명
유형관광자원	사찰	옥천사, 운흥사, 문수암
	고분	송학동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산성과 성지	거류산성, 소을포성지
	전통마을과 고가	학동마을 옛 돌담장, 장산리 허씨 고가, 소천정, 송계리 이씨고가, 학림리 최영덕씨 고가, 소산정사, 청광리 박진사고가
	향교와 서원	고성향교, 갈천 서원, 수립서원, 도산 서원, 도연서원, 위계서원
	박물관 및 전시관	공룡박물관,
	기념물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지 계승사 백약기 퇴적구조
무형문화 자원	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1) 사찰순례

사찰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관광자원의 하나이다. 원래 불교 사찰은 거의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고성군의 유명한 사찰들도 대개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이 많다. 그리고 옥천사나 운흥사, 문수암과 같은 훌륭한 자원들이 산속에 있게 산세가 좋은 장소에 자리 잡은 것도 고려말기 경에 산천비보설에 따라 명산에는 명찰이 들어서게 마련이었으며, 조선시대 이후로는 역불정책이 생기면서 사찰들이 산속으로 숨어드는 일이 많았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고성의 사찰들도 대개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시대가 지나면서 산속에서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가져 온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고성의 사찰들은 수행도량으로서 유명한 스님들이 거처하면서 수행하던 장소로서, 신자들에게는 보살의 현처로서 기도도량의 역할을 한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산세가 뛰어난 산세와 고즈넉한 산사의 탑, 마애불과 탕화와 같은 불상, 스님들의 염불 소리 등의 어우러짐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사찰을 방문한다. 최근에 사찰은 발우공양, 예불과 산사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인 템플스테이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고성의 사찰은 운흥사, 옥천사, 문수암 이외에도 아름다운 산자락과 계곡과 어우러지는 산악관광자원들과 어우러진 사찰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사찰 몇 군데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옥천사는 도립자연 공원인 연화산에 있는 명찰로서 입구에서부터 졸졸 흐르는 계류가 흐르는 골짜기에 이름드리 고목나무들이 우거진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불교에서 명당

이라 할 수 있는 연꽃 무늬가 피어나는 듯한 형상을 한 연화좌에 전형적인 사원 배치 형식으로 건립된 아름다운 사찰이다. 이 절은 신라문무왕 16년인 676년 의상조사가 당나라 유학시 지엄선사로부터 화엄의 오묘한 뜻을 깨달은 후 국내의 우수한 여지를 찾아 불찰을 세운 화엄십찰에 속하는 명찰이다. 옥천사 사적기에 따르면 조선 영조 때 대웅전과 자방루를 건립하였고 고종 때 용성이 중건하여 지금의 대웅전, 자방루, 심검당, 적묵당,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이 남아 있다. 이 사찰의 중앙정면에 있는 자방루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는 절의 행사에 사용되는 불구용구를 넣어 두는 보와 용문양이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건물이며 뒤편으로 대웅전 좌우에 설법전과 적묵당, 그리고 후면부로는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습합된 삼성각이나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과 같은 건물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어 결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원의 전각배치 형식의 기본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표준양식을 볼수 있는 건축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찰이다. 옥천사의 보장각에는 옥천사 대종, 석장, 바라와 임오년에 만들어 졌다는 연표를 알게 해주는 동제향로, 보물 1693호인 시왕도 탕화, 보물 495호인 청동북 등 120여점의 불교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옥천사라는 절 이름이 되게 한 달고 맛있는 물이 끊이지 않고 솟는 옥샘이 있기도 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옥천사에서는 고즈넉한 절간 생활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불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흥사는 하이면 와룡산 향로봉 중턱에 위치한 천년고찰이다. 운흥사는 천삼백 년 전 신라 문무왕 때 의상조사가 창건한 신라고찰로 임진왜란 때 승병본거지로 사명대왕과 승병 6천명이 머물면서 왜군과 싸웠다 하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수륙양면 작전 논의 차 세 번이나 찾아 왔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불가의 회원양성소로 조선시대의 가장 많은 불화 작품을 남긴 곳이기도 하다. 산내 암자인 천진암과 낙서암을 비롯한 암자와 곳곳에 절터와 대형 맷돌들과 고승의 사리가 안장된 부도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효종 21년에 중창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대웅전, 영산전, 명부전, 보광전, 산신각 등의 전각이 현존하고 있으며, 경남 유형문화재인 대웅전 내에는 보물 1317호 괘불탱과 괘가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을 비롯하여 영산전, 명부전 목각상, 목조원패, 등 30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은 승군이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음력 3월 3일이면 국난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호국영령들을 위한 영산제가 열린다. 운흥사에서 향로봉의 정상에 오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 너머로 수우도, 사랑도와 같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며 주능선을 따라 관목이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 고찰의 풍광과 함께 그들이 좋은 계곡은 한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문수암은 불교 조계종 쌍계사의 말사로 창건 이후에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수도도량으로 유명하며, 산 자체가 산자수명하여 삼국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명산으로서의 조건은 화랑이 한창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시기에 국선 화랑들의 심신을 연마 하던 장소였던 수련장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문수암이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의상조사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관세음보살과 문수 보현보살을 만나자 이곳이 산수수도장으로 여겨 문수암을 세웠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석벽사이에 천연의 문수상이 뚜렷이 보인다고 한다. 이 석벽에 문수, 보현보살이 나타나 있어 문수단이라 불렀으며 현재 문수보살은 석각이나 관세음보살은 목각으로 되어 있다. 이 암자에는 청담 대종사의 사리탑이 있으며 기암 절벽이 암자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절경을 이루며 산정에 오르면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인근에 있는 수태산 보현사와 함께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문수암은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의 현처이자 기도도량이라서 새해 해돋이 때가 되면 한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해맞이 명소이기도 하다.

(2) 소가야의 고분군

고성읍의 초입인 송학리와 기월리의 무기산자락에 소가야 왕족과 장군들이 무덤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119호로 지정되어 있는 7기의 송학동 고분군이 펼쳐져 있다. 송학동 고분군은 당시 정치적 세력자들의 무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성군이 소가야의 번성기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옛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중앙에 우뚝 솟아난 1호분은 3기의 봉토분이 연접하여 축조된 풍경이 어김없이 피 산(山)자 형국을 한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중에 황혈식 서실내부는 붉은 색 채색이 된 고분이라는 특색을 보인다. 고분이 축조된 시기는 서기 4백년 경으로 추정되며 가장 높은 1호 무덤을 위로하고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머지 6기의 무덤들이 있으며, 이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3백 미터 떨어진 곳에 송학동 조개더미가 있어 이곳이 훨씬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선조들이 삶터로 여겨왔던 유적임을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송학동 고분군은 관광적인 가치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물론 송학동 고분군 지적에 고성 박물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고분군의 경관적 의미는 발굴된 유물의 전시를 위한 박물관 뿐 아니라 주변의 풍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조개무덤 지역과 인근 지역을 좀 더 확장하여 체험공간과 숲을 조성하거나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성벽이나 옛 고풍스러운 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뛰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는 이곳의 철의 나라 소가야의 오랜 역사적 풍치를 느끼기에는 고분이외에는 순전히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체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성에는 내산리의 61기의 고분군, 울대리 고분군, 기월리 고분군, 연당리 고분군 등 다양한 축조 형식의 고분군이 있다. 이곳의 가야 무덤군은 소가야가 삼국시대의 해상교역과 교류의 중심지로서 한반도 남부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특히 지배층의 위세품으로서 화려한 옥으로 된 각종 장신구와 철제무기, 농공구류 등이 다량 출토되어 고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성박물관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이 펼쳐진 입구 쪽에 있는데, 소가야의 역사 이전의 시대로부터 소가야 시대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고성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주는 시설이다. 고성 박물관은 동의동 유적으로부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등 고성 지역의 주요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소가야인의 생활 모습을 전시한 장소로서 송학동 고분군에 오르기 전에 소가야의 면모를 미리 공부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박물관이다.

(3) 전통마을과 고가산책

고성의 또 다른 매력은 고성에서 오래 살아온 선조들의 세월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정취가 가득한 농촌 풍경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고가와 전통마을이다. 고성에는 정취 있는 옛 담장이 아름다운 학동마을을 비롯하여 고가 등 성씨 집성촌에서 살아온 조상들의 오랜 생활의 체취를 느껴 볼 수 있는 고풍스럽고 운치 있는 고옥들이 많다.

고성 학동 마을은 전주최씨 들의 집성촌으로 옛 담장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의 집 담장이나 골목길 사이 어디에나 인근 사태산 자락에서 나는 납작한 돌을 쌓고 돌과 돌 사이를 향토를 이겨 발라 만든 돌담이 둘러 있다. 이 학동 마을에는 돌담을 따라 제법 기품이 있는 한옥들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면서 담쟁이와 박 넝쿨이 담장에 뻗어 있어 고풍스러운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데 최근에 이 학동마을 옛 담장은 근대 문화유산 국가 등록문화재 제 25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동 마을의 매력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솟을 대문이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는가 하면 슬레이트 낡은 지붕으로 이은 낡은 집이 어우러져 옛날 농촌 마을의 정서를 오롯이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이 마을에는 경남 문화재 자료인 고성 학림 민박도 가능한 최영덕 고가가 있으며 고가에서 나와 마을 정자 나무를 바라보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최우순의 사당인 서비정이 보인다. 학동마을을 들르는 관광객들은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섬 풍경을 볼 수 있는 솔섬이 있어 마을 구경과 함께 해변의 아름다운 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남도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마을 주변의 대숲과 수백 년을 거슬러 고을 풍경을 마을에 끌어 들인 듯 한 돌담길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을 풍경을 알게 해주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고성의 다른 풍경은 전체 마을이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산록의 골짜

기에 넉넉한 논밭을 일구어온 향리답게 성씨 부락이 있고 마을 안에는 어김없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우리의 혼을 이어온 주거지로서 전통고가가 즐비하다. 이러한 이 전통 한옥은 우리의 고유 주거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통 민박 시설로도 많이 이용된다.

고성에는 양반댁의 고가와 중요한 정자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고가들을 순례 답사하는 고가 탐방관광 상품도 개발해 보면 좋다. 이를 테면 고성의 학동 마을의 최씨 고가를 들른 다음에 회화면 봉동리에 있는 2백년이 더된 흙과 돌로 쌓은 담벽집 건물의 배씨 고가, 구만면에 있는 자연경관을 바라보기 좋은 정자 이면서도 재실의 성격을 가진 소천정, 가옥한 채와 2층 건물이 구분되어 기역자형 바깥사랑채와 2층 구조의 광이 딸린 2층 구조의 화식 평기와의 우진각 지붕으로 솟을 대문을 갖춘 한식목조 건물로서 전통가옥의 배치형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산리 허씨 고가, 약 90년 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ㄷ자형식의 전형적인 남부형 부농의 민가 형태인 송계리 이씨 고가, 이 고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품(品)자형 일제 건물의 특색을 갖춘 소산정사, 그리고 밀양 박씨 대대로 진사와 효자가 태어나 효자 정려라는 현판이 붙어 실용성과 전통성이 조화된 전통 한옥인 청광리 박진사 고가 등 많은 전통한옥들의 건축양식을 따라 옛 선조들의 거주 문화를 둘러 보는 관광은 고성관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4) 산성과 성지, 그 역사의 흔적들

당동만을 끼고 통영과 고성의 경계를 이루는 거류산의 정상에는 자연 지세를 이용한 거류산성이 축성된 유적과 일부 복원된 산성이 있다. 이 거류산성은 2 천년 전 소가야 시대의 신라 침공을 막기 위해 쌓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축조한 가야역사의 전장을 회상하도록 하는 산교육장이다. 이 거류산성은 소가야 마지막 왕이 신라의 침입으로 피신했다가 합병되어 폐성이 된 우울한 소가야의 역사의 상징으로 정상에서 사방으로 바라보면 당동만의 포근한 만의 풍경과 함께 남해안의 절경과 고성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

거류산성이 소가야의 역사적 상흔이 있었던 장소라면 소을 비포성지는 언제 쌓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종실록에 의하면 그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성포이다. 이 소을 비포성지는 낮은 야산에 해안의 경사를 따라 둥근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이용해 축조한 방어용 성이다. 소을 비포성지는 고성읍에서 삼산면 쪽으로 들어가는 남해안 절경을 바라보며 가다가 상죽암에 닿기 전에 동화리라는 작은 포구의 아늑한 느낌을 주는 어촌마을 뒤편에 있다. 소을 비포성지는 조선 초기 왜적을 막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 지어 성안에서는 바다가 잘 보이지만 바다에서 주의해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 축조되어 방어용 성지로서는 최적지이다. 이 소을비포성지의 매력은 성벽이 2m도 채 되지 않는 얇은 성이지만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살려내 성의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이 성은 바닷가에 돌출한 낮은 야산에 위치해 바다와 얇은 산들이 둘러싼 형국과 어촌의 풍경이 아름다워 한번 즈음 둘러 볼만한 고성 of 감추어진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5) 고성의 멋, 무형관광자원

고성에는 오랫동안 전승되어오던 탈놀이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민요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 84호인 고성농요가 있다. 먼저 고성오광대는 경상도 초계 밤마리 장터 광대패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하며, 본래는 정월 대보름에 열리다가 봄, 가을에도 열리면서 오락화하게 되었다. 고성 오광대는 모두 다섯 과장으로 문둥이가 소고를 들고 나와 구성진 춤을 추는 제 1과장인 문둥복춤,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제 2과장인 오광대놀이, 괴물 비비가 양반을 잡아먹으며 희롱하는 제 3과장 비비과장, 중이 각시와 어울려 춤추는 것을 풍자한 제 4과장 승무과장, 큰어미가 제밀주와 다투다 죽어 상여로 나가는 제 5과장인 제밀주 과장의 순서로 펼쳐진다. 고성 오광대의 특징은 춤과 재담, 소리와 몸짓으로 이어나가는 데 특히 덧배기 춤이 돋보이며 통영오광대와 비슷하지만 좀 더 오랜 원형의 특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고성오광대는 전수관에 미리 공연관람을 신청하면 구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성 민요는 들이 넓고 기름진 농토가 많아 이러한 자연환경이 농요가 전승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민속으로 전해 질수 있었다. 고성의 농요는 모판에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기 등지, 모심으며 부르는 모심기 등지, 보리타작하며 부르는 도리깨질 소리, 김 맬 때 부르는 상사소리와 방아타령 등 여러 가지 마당이 있다. 고성 농요의 특징은 경상도 농요에서 흔히 보이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어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의 정서가 물씬 풍기며 노랫말도 이 고장만이 지닌 농민들의 감정이 풍부하게 배인 소리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재 성격의 관광자원은 원래 역사, 예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원을 보전적인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연의 형태로 상품화함으로써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고성의 문화환경 속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멋이 한층 배인 고성오광대와 고성 농요는 이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유산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고성오광대는 전수관에서 관람자가 있을 경우에 미리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고 지역의 행사나 타 지역의 축제에 초청공연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고성 읍내의 소가야 고분군이 송학동 고분군과 고성박물관과 연계한 고성 오광대 탈놀이 상설 공연장

을 만드는 것도 고성의 멋과 흥취를 외부인들에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6) 고성의 박물관과 전시관들

고성에는 고성의 문화적 속성을 잘 드러내 주는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과 전시공간이 많다. 이러한 박물관과 전시공간은 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특색을 수집 보존하는 장소이며 한 지역의 역사적 자료나 생활문화, 자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전시하며 이를 교육현장으로 제공한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박물관과 전시관의 형태는 이용자들에게 위락공간으로서 공개되어 방문객들에게 교육현장으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에 현재에 이르기 까지 현지의 생활문화 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변화 과정을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박물관은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는 화석화 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주제별 전시공간으로서의 체험교육과 연계된 문화적 매력을 가진 공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고성의 박물관의 특색은 고성의 소가야 역사 유물을 전시한 고성 박물관, 그리고 지형지질 자연사를 아우르는 공룡 화석을 주제로 한 공룡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이 밖에도 탈박물관, 산악인 엄홍길의 전시관 등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있다.

고성공룡 박물관은 세계 최대의 공룡발자국이 보존되고 있는 상족암 유적지에 건립된 국내에서 최초의 공룡박물관으로 지상 3층 규모에 공룡화석과 공룡발자국, 공룡시대의 전시, 실외에도 작은 동물원과 꽃동산과 숲 산책길이 조성 된 공룡 전문 박물관이다. 고성 공룡박물관은 5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전시실에는 공룡골격의 화석을 통해 공룡의 계통도를 설명하는 전시관, 고성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의 종류와 형태, 크기를 통해 공룡의 생태를 공부 해볼 수 있는 발자국의 전시, 백악기의 공룡의 생태관, 각 시대별 화석 전시관, 공룡의 뼈 조각을 직접 맞추어 볼 수 있는 공룡체험 전시관 등 공룡의 자연 생성사 뿐 아니라 공룡과 관련된 체험 학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며 놓고 있다. 공룡박물관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가하는 상족암 주변의 지층과 지질, 공룡발자국화석의 탐험을 통한 특징 비교하기, 박물관의 체험과 전시물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설과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박물관은 소가야의 역사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한 역사박물관이다. 고성 박물관은 대표적인 소가야 지배세력의 무덤인 송학동 고분군의 아래쪽에 있다. 건물은 2층 규모이며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나누어져 있고 두 전시실 사이의 통로는 다목적 전시실로 꾸며져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성의 문화예술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박물관의 특징은 무엇보다 소가야의 성립과 이 지역에서 출토된 고분군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다. 전시공간은 고성의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이전의 시대에 이르기 까

지 디오라마를 통해 각종석기 유물을 전해주고, 동외동 유적지, 송학동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삼국시대의 유물과 소가야인들의 생활 모습과 무덤 축조모습을 통해 소가야 생활문화를 알 수 있게 한다. 고성 박물관의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가치는 가야국으로서 고자국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5세기 한반도의 교역의 중심지로서 해상세력으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고성 역사박물관은 송학동 고분군의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가야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소이다.

당항포관광지 내에는 공룡주제의 다이노피아관, 고성자연사박물관, 고성수석전시관, 충무공 디오라마관, 거북선 체험관, 당항포해전관 등 많은 전시관들이 있다. 당항포 관광지 내에는 임진왜란의 전장터로서 이순신과 임진왜란 역사전시관과 고성 엑스포 행사가 매년 열리는 관계로 공룡과 관련된 테마, 자연사 전시관들이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항포 내의 전시관들은 고성공룡엑스포와 당항포 해전축제 행사와 연관 지어 만들어 진 상설전시관이라 할 수 있다. 공룡관련 테마 전시관은 고성 공룡 엑스포는 7월경 전후에 공룡을 테마로 하는 메가 이벤트로서 공룡 모형 전시, 공룡의 발자국 화석, 공룡의 뼈, 다양한 공룡화석들을 볼 수 있는 엑스포 주제관을 운영한다. 특히 다이노피아관은 공룡을 주제로 한 엑스포의 주제관으로 부제의 전시관인 자연사 자료를 전시하는 체험 학습공간이며, 자연 조각공원과 함께 산수경석과 같은 다양한 수석을 전시하고 있다. 당항포 내의 또 다른 테마 전시체험관은 당항포 해전의 역사를 주제로 한 충무공 디오라마관, 거북선 체험관, 당항포 해전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전시관은 당항포의 임진왜란의 해전사와 관련된 볼거리와 체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일화를 소개하고, 거북선 체험관에서는 철갑선인 거북선의 제작과정과 거북선을 조작하고 운영해 볼 수 있다. 당항포 해전관은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해전의 해전 장면과 전략과 기생월이의 설화의 내용을 영상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이 전시관들은 고성의 공룡나라와 당항포관광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결합한 공룡엑스포와 당항포 해전축제라는 행사의 결실로 만들어진 고성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성에 가면 고성의 지역성을 드러내주는 다양한 박물관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고성의 오광대에서 볼 수 있듯이 탈박물관이다. 고성탈박물관은 지상 3층의 건물에 상설 전시실과 특별전시실, 그리고 탈 체험실, 야외에는 장승마당이 갖추어져 있다. 고성 탈박물관에는 고성오광대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탈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 탈, 제사나 신앙목적으로 사용되던 다양한 국내의 탈을 전시하고 있으

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탈 등 540여점의 탈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어 탈의 역사와 문화재적인 가치와 오광대놀음의 고장으로서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고성 탈박물관에 가면 어린이 민속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탈 만들기 체험을 직접 해보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유 민속탈의 전통문화적 의미를 이해시키는데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도원 미술관은 예술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 주는 고성의 유일한 사립미술관이다. 아늑한 전시관에서 다양하고 품격 있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영상 체험실에서는 상시 영상 감상과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미술관에는 전문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향기 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아트 샵에서는 기념품 구입도 가능하다. 미술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영성 프로그램과 치유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상실의 시설은 미리 신청하면 대관도 가능하다. 도원 미술관은 남해안 바닷가에서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카페형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다. 거류면 송학동 거류산 자락에 위치한 엄홍길 전시관은 고성군 출신 엄홍길 대장이 1985년부터 16년 동안 히말라야 8,000m 16좌를 완등한 업적을 기리고 그의 일생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개관했다. 전시관은 엄 대장이 히말라야 등정에 사용했던 등산텐트, 산소마스크 등 192점의 등산용품 전시와 등반과정을 담은 영상관을 마련해 방문객을 무료로 맞이하고 있다.

(7) 고성의 음식관광

고성의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식관광이다. 고성은 옛날부터 넓은 평야를 가져 다른 지역에 비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넓은 바다가 주는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 살기 좋은 고장이다. 이러한 넉넉한 풍요로운 환경은 공직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래서 고성에는 이 지역만이 가진 향토음식도 많다. 고성 인근 바다에서 나는 생산물들이 있어도 굴은 통영이, 미더덕은 마산진동, 장어는 삼천포, 멸치는 남해에 그 명성이 가린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곳들이 가지지 못 하는 고성만이 가지는 계절별로 특산해산물이 많다. 음식의 상품성은 한 고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이며 관광객들의 관광활동 중에서 즐길 거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매력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고성엔 특히 아름다운 산세와 바닷가를 끼고 있어 매우 다양한 향토음식 재료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는 고성의 계절별 특산품을 위주로 소개 해 보고자 한다. 고성의 향토 특산 음식은 청정한 바다의 해물들이 주가되는데, 그 계절별 대표 음식은 봄 도다리 쭉국, 여름의 갯장어 회, 가을 왕새우 구이, 그리고 겨울철의 굴을 들 수 있다.

봄철 도다리썩국

겨울철을 대표하는 음식이 물 메기 탕이라면 고성에서 봄을 대표하는 음식은 도다리썩국이다. 도다리썩국은 썩 향내가 짙은 4월 경 전후 봄철 두 달간 남짓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미라고 할 수 있다. 도다리 썩국의 맛은 산란기가 끝나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한 도다리와 도서의 섬에서 자라 향이 좋은 썩에서 나온다. 도다리 썩국은 도다리 자체가 칼슘 흡수력이 높기도 해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을 주는 생선이며 환자의 원기를 돕는데도 효과가 크다. 도다리 썩국에 들어가는 썩은 바닷바람을 맞은 해썩을 쓰는데 이 재료는 백혈구의 수를 늘여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성의 봄 관광을 오게 되면 식당마다 ‘도다리 썩국 개시’ 라는 광고가 걸릴 정도로 봄철 음식으로서 미각을 자극하는 이지역의 특산음식이다.

여름 갯장어

고성의 여름철 특산물인 갯장어는 하모라고 불린다. 갯장어는 아나고인 붕장어, 멍장어인 곱장어인 멍장어, 민물장어인 뱀장어와는 다른 장어로서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빨이 날카롭고 성질이 아주 사납다고 해도 꼬들한 식감에 단맛이나 맛이 일품이다.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 따르면 입은 돼지 같이 길고 이빨은 개처럼 고르지 못하다고 해 날부터 개 이빨을 한 뱀장어인 견아리라 불렀다.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가 인기 있는 것은 맛도 좋지만 성인병 예방, 허약 체질 개선, 피로회복에 탁월 하며 영양가가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꼽힌다. 갯장어는 잔가시를 잘게 썰어 양파, 양배추 등의 야채로 싸서 생강과 방아를 버무린 초고추장과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데 단단한 살을 오래 씹으면 더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 다른 갯장어 요리로는 하모 샤브샤브 가 있는데 먹기 좋기 다듬은 갯장어를 각종 야채로 국물을 우려낸 탕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육질과 고소함이 배가 되어 살아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갯장어는 통영, 여수 등 남해안에서 5월부터 9월 까지 사이에 잡히지만 삼산면 두포리의 자란만에서 잡히는 것을 제일 맛있는 갯장어로 친다. 10월 이후에는 맛이 떨어져 바닷물이 추워지면 뼈가 역세고 단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고성의 삼산면 일대에서 주로 생산되는 갯장어는 이전에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어 맛보기가 어려웠으나 요즈음은 주로 삼산면 두포리 일대의 여름 한철 갯장어는 아주 유명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가을 왕새우

고성의 삼산면에 가을철 제철 음식은 왕새우이다. 삼산면에 최근 3~4년 사이에 왕새우 양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장의 새로운 향토 특산 음식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다. 삼산면에서 왕새우를 양식하게 된 것은 수온이 서해안 새우 생산지보다 연평균 1~2도 높아 새우양식에 유리한 환경여건을 가진다. 왕새우는 고성의 원래 향토 민물새우인 굴 담구 듯 양념 버무려 구들장에 재웠던 토화와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즐겨 살아 있는 싱싱한 새우를 몸통껍질 벗겨 초장에 베어 먹던 왕새우인 ‘오도리’와 좀 다른 새우종류이다. 처음에는 이전부터 원래 왕새우로 불리어 오던 대하를 키우다가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아지자 새로이 생존율이 높고 맛이 비슷한 흰다리 새우로 대체 하면서 이제는 흰다리 새우를 왕새우라 부른다. 왕새우의 제철은 9월경부터 인데 이때가 되면 왕새우에 알이 딱 차고 단맛이 많이 난다. 왕새우는 소금만 깔고 구워먹는 소금구이, 새우튀김이 대표적이며 새콤달콤한 맛에다가 담백한 새우 탕수육 등으로 조리해서 먹는다. 고성의 삼산면에 오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대하를 대신해 가을철 별미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왕새우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

겨울 굴

고성의 삼산면과 하이면의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를 끼고 돌과 굵은 모래로 된 갯벌이 드러나는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바닷물이 물러간 갯벌 사이로 굴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빨랫줄에 빨래 널 듯 나무토막의 기둥에 굴이 매달린 풍경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굴을 줄을 걸어 매다는 방식은 게가 먹어치우거나 빨에 묻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굴의 종패는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다음에 다시 바다어장에 들어가야 잘 자란다. 여기에서 두포리 까지 해안에는 굴까는 공장이나 종패 단련을 위한 시설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고성의 굴은 유명한 이 지방의 특산품이다. 고성의 바닷기는 바다로 향한 절벽과 암반, 그리고 돌이 많이 있는 바다를 끼고 있어석화라고 불리는 자연산굴이 많이 나온다. 굴은 이른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어 생굴로 먹으면 향긋한 바닷 내음과 뒷맛이 약간 달큰한 맛이 난다. 물론 여러 가지 요리의 부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석쇠를 올려 굴을 구어 낸 굴 구이가 겨울철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끌게 한다.

체험관광 마을

개천무지돌이 체험 마을은 약 500년의 역사를 지닌 7개 산봉우리와 3개의 저수지,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이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전형적 청정 농. 산촌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무지돌이 마을은 옛 부터 산림이 넓게 펼쳐진 고성군내 자연부락으로서 가장 큰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정답게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전체농민들이 농약을 쓰

지 않는 유기농 생명환경농업을 하며 논농사 외에 울금, 수세미, 가죽, 드릅, 밤, 콩, 메밀 등의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마을 주위에는 저수지와 깨끗한 여울물이 흐르고 10여 그루나 되는 정취있는 정자나무와 이름만 들어도 고향 맛이 나는 무지바위, 상여 등병 쉽터와 같은 명소가 많아 농촌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마을을 찾게 되면 하늘의 초롱초롱한 별들과 산야의 온갖 야생화와 산새소리 등을 즐기면서 톱 연주와 특이한 윷판, 옛 우물 두레박질, 옛시조 카드놀이 등 전통놀이 문화를 배워 볼 수 있다. 무지돌이 마을의 계절별로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고추 따기, 감자캐기, 수세미 따기와 같은 각종 농사체험과 천연재료를 사용한 체험학습과 천연 먹거리, 물고기 잡기와 가재 잡기, 물놀이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가득하다. 주변에는 당항포 관광지가 있어 체험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대첩지로서 가족놀이 시설과 자연사관, 자연예술원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겸 목적의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삼계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5년 농림부에서 선정된 체험마을이다. 삼계 마을 앞으로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대가저수지가 있고, 뒤로는 천왕산 자락의 봉수대의 흔적이 있는 봉화산이 펼쳐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삼계 마을에 가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봉화산과 대가저수지를 걷는 등산과 걷기 유산소 운동을 경험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날리기, 썰매타기, 떡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계 마을에서는 고구마 줄기 따기, 고구마, 감자, 감, 산나물 캐기, 단감 따기와 같은 계절별 농사체험도 즐길 수 있으며 마을에서 생산된 각종 곡식과 과일로 웰빙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마을 안에 충효테마 공원이 있는 것도 삼계 마을의 특징이다. 이 테마 공원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참가하여 부모님을 공양하고 충효를 배우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송천 참다래 팜스테이 마을은 사계절 독특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봄에는 참다래 수꽃 채취를 경험할 수 있고, 여름에는 가족 해수체험도 가능한 마을이다. 가을에는 참다래 따기의 수확의 풍성함이 즐겁고 참다래 짬 만들어 가기 체험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서 굴을 까서 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을에는 산채비빔밥과 고성 앞바다의 싱싱한 자연산 회도 맛볼 수 있으며, 마을에서 재배한 참다래와 취나물, 그리고 멸치와 굴 같은 수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해 갈 수 있다. 마을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에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상족암 군립공원,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다는 점도 송천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하일 동화 어촌체험 마을에서는 2005년 체험 마을 기반 공사를 마치고 관광객들에게 어촌 마을 체험을 위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의 장점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감상하며 해양 생물들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 마

을 체험의 특징은 패뻏의 개막이 체험이다. 개막이 체험은 이전에 마을 안에 풍성한 조과를 올렸던 전통어로법인데 해안변의 소나무 말목과 대나무를 박아 그물을 설치한 후 밀물 때 그물을 올렸다가 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밤에 햇불을 들고 나가 낙지, 대하, 벌떡게 등을 잡는 햇불고기 잡기체험과 함께 갯벌 바지락잡기, 고동잡기, 쪽잡기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다. 하일 동화마을에서의 체험은 주로 전통어로와 갯벌채취의 어촌체험과 바닷가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옥천사에 가면 연중으로 고즈넉한 천년고찰에서의 절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옥천사는 반개한 연꽃이 포근히 감싸 안은 명찰로서 청담대종사가 오랫동안 수양하던 절로서 절 주변에 흐르는 계곡에는 청류 옥수가 사시사철 흘러내리며 울창한 숲이 있어 연화산 등반과 옥천 샘에 물을 길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옥천사의 템플 스테이는 발우공양, 선 수행, 새벽예불과 연화산 순행과 같은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서 세속에 찌든 생활을 깨끗하게 씻어 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제 3절 고성의 관광개발 실태와 미래의 관광

1) 고성의 관광개발 실태와 방향

정부와 경상남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발굴에 관한 논의가 진행하여 왔다. 정부와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추진 방향은 고성관광의 미래 발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남해안발전기본구상과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사업들을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고성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추진 가능한 사업을 예측하고 검토함으로써 함으로써 고성의 미래의 발전 과제를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정부의 남해안발전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사업을 검토 해보자면 정부와 경상남도가 추진 중에 있는 남해안발전기본구상에서 관광분야의 발전전략은 동북아 관광·휴양허브 구축 전략이다. 남해안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과제들 모두가 고성의 발전기본구상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분야별 단위 산업 별로 검토한 자연적 조건, 산업과 사회적 조건을 감안하여 미래 고성 관광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개별과제가 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검토사항 중에는 현재 남해안 발전구상의 사업에 채택된 사업도 있을 것이며 향후 발전과제로 채택가능성이 있는 연관 사업 분야로 전략적으로 삼아야 할 과제도 있을 것으

로 본다.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동북아 관광·휴양 허브 구축전략이다. 동북아 관광·휴양 허브 구축전략은 ‘씨 토피아(Seatopia) 환경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아젠다로 설정하고 환경 정비와 테마 거점 개발 그리고 인프라 구축의 3가지 측면에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씨 토피아란 다가오는 시대의 해양의 여가와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바다휴양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씨 토피아’ 건설을 위해 우선 남해안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과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생활문화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그 다음으로 관광수요의 질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레저, 의료·휴양, 스포츠, 역사문화자원 등의 주제별 테마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거점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체류형·휴양형 미래 관광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씨 토피아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남해안 도서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을 추진,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륙·연도교 및 인접 섬들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고성의 경우 동북아 관광휴양허브로서 잠재적인 입지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근 해양관광지들 보다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업의 경우 인근 타시도의 개발전략에 포함된 사항도 있지만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하거나 미래의 추진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동북아 관광·휴양 허브 구축전략의 아젠다와 주요 사업

전략	아젠다	사업 및 과제	주요 내용
동북아 관광 휴양 허브 구축	Seatopia 어메니티 업그레이드	관광환경 정비사업	남해안 미항 가꾸기 생활 문화형 관광사업화 레저휴양도시 조성 섬 관광자원화 사업 Seatopia 크루즈 운항
		Seatopia 테마거점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신규 및 기존 시설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항만 미관개선	남해안항구의 미항개발 경관영향평가제 도입
		고급 의료휴양타운 조성	섬을 활용한 의료휴양타운 조성
		남해안 관광홍보물 제작	남해안 통합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레저도시 개발	관광레저거점도시개발

		남해안크루즈 운항 및 부두 개발	크루즈 항로개발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어시장 국제화	해산물 먹거리 체험시설 개발
		이순신 · 장보고 해양유적벨트조성	이순신 · 장보고 테마관광지 개발
		육로 및 해상관광 연계코스 개발	바다-강-육지 연계관광코스 개발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을 개략적으로 검토 해보자면 2003년에 확정되어 2016년도 까지 추진하는 경남관광개발 계획의 고성관광전략에 나오는 기본 방향은 공룡테마파크의 개발정비, 소가야문화촌개발, 공룡유적지의 특색 있는 개발로 집약된다. 공룡테마 파크 개발정비 사업은 당항포 내의 임진왜란 유적지의 역사테마와 결합하여 2006년부터 공룡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서 공룡박물관이외에도 많은 역사와 공룡테마 전시시설에 대한 시설투자과 관광지 기반투자가 이루어져 당항포관광지를 중요한 관광거점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통영, 거제, 마산과 고성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루트가 출현함으로서 고성인근의 휴양관광 벨트 개발 사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더 높게 한다. 경상남도 개발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의 개발을 위한 중점적인 전략은 해양관광벨트, 역사문화벨트, 의료휴양벨트, 남해안생태관광벨트 등 4대 테마형 관광벨트를 구축전략과 창조적 문화기반구축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경상남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분야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들

분야	추진전략	사업
지역 마케팅 강화	해양관광벨트 구축	· 해양형 관광단지 조성 · 섬 관광자원화 개발 · 마리나 기반시설 조성 · 남해안 크루즈 개발
	역사문화벨트 구축	· 동북아 평화유적벨트 조성
	의료휴양벨트 구축	· 서부권 의료휴양벨트 조성
	남해안 생태관광 구축	· 탐방로 및 생태마을 조성
문화관광	창조적 문화기반 구축	· 해양명품관광도시 건설

남해안 시대 구상 중 지역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남해안 전역의 해양관광벨트 사업이 주가 된다. 그 사업 중 고성군이 주목해야할 사업은 해양형 관광단지 조성, 마리나 기반시설조성과 남해안 크루즈개발, 탐방로 및 생태관광구축 사업이다. 고성은 아름다운 섬들이 주변에 산재하고 있고 해안선이 아름다워 남해안 시대구상 중 해안관광벨트

사업에 매우 적절한 사업추진 분야이다. 또한 인근의 풍부한 갯벌은 생태관광 사업을 펼치기에도 타당하다. 또한 고성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을 아우를 수 있는 마리나 기반시설과 크루즈 해양 관광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나 이 분야의 경상남도의 관광전략 사업과 관련된 단위 사업을 발굴하여 면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고성관광의 미래

고성은 빼어난 해안선의 절경이 만들어 낸 생태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이 만들어낸 공룡 화석 자원과 임진왜란 역사적 자원의 가치성이 매우 뛰어 나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미래 지향적으로 그 잠재적인 가치를 어떻게 이용가치로 드러낼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고성의 미래관광의 방향도 밝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고성관광의 잠재적인 장점은 소가야의 문화 역사성, 북부의 산악과 남쪽의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해안선의 빼어난 경관미, 그리고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의 세 가치를 들 수 있다.

게다가 관광체계상 중요한 요인인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는 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고성군의 관광 접근성은 진주시를 지나 대전 서울 방향으로 대진 고속도로와 진주 분기점에서 서쪽으로는 광주, 순천과 멀리 동쪽으로는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 창원, 부산과 연결되고 거가대교 건설로 마산, 통영, 거제와 아름다운 해안관광루트까지 생겨나 넓은 관광 수요시장과 연결될 수 있어 관광지로서의 발전하기 위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성관광의 첫 번째 장점은 산악과 해안의 절묘한 조화가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는 점이다. 고성북단에서 해안선에 이르기까지는 벽방산, 거류산, 연화산과 같은 산맥이 뻗어 수려한 경관을 지닌 한려수도에 면하고 북동쪽은 진해만과 연결된 배둔만과 당동만, 자란만을 안고 있어 해안선으로 빠져드는 아름다운 산악관광지와 해안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서정적인 어촌 풍광과 해안의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어내 자연적인 자원의 매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고성관광의 두 번째 장점은 고성의 특징적인 지질구조가 공룡발자국의 화석이나 퇴적구조를 잘 보존해 주는 백악기의 퇴적지층을 발달시켜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성의 지질적인 특징은 경관과 고고 자연사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상족암을 비롯한 공룡 화석지를 주제로 삼아 고성공룡엑스포뿐만 아니라 공룡테마 공원과 임진왜란 유적 등과 결합시켜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고성을 공룡나라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또 다른 고성관광의 장점은 소가야국의 역사성,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승전지인 당항포의 호국 충절의 전장터, 그리고 훌륭한 인물을 길러낸 고풍스러운 고택과 전통마을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의 석기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대 가야국의 유물, 임진왜란의 고성

만 해전의 역사적 상흔이 보전된 현장, 그리고 고성의 넓은 들이 길러낸 전통 마을과 고택 들은 고성만이 가진 관광매력을 잘 드러내준다. 뿐 만 아니라 고성에는 좋은 농토가 가져다 준 민속의 원형이 잘 보전되어 무형관광자원도 훌륭하다. 고성에는 민속 탈 놀이인 고성오광 대와 농사 민요인 고성농요의 본고장으로서 이러한 무형문화자산은 문화관광 매력으로서 잠재력이 뛰어나 민속 문화 체험과 역사교육 자원으로서 매우 가치가 크다.

이러한 고성의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당항포 관광지와 공룡테마 공원 개발의 기반 시설구축과 같은 단위 사업으로 그 쳐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먼저 상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관광발전을 주도하는 중앙 정부나 경상남도의 관광개발 방향이나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성군 자체의 관광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상위계획의 단위 관광사업에 고성의 발전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문화관광체육부는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의 수정과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발 핵심 전략은 섬을 활용한 휴양, 의료관광, 섬과 연결된 크루즈 관광, 해양레포츠 관광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섬은 해안의 부두를 통해서 그리고 해안과 연결된 도로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배후지역으로서 해변 휴양지 정비, 해양레포츠 활동을 위한 낚시, 체험, 해안의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한 해안 생태 체험관광마을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성군의 관광의 핵심은 공룡엑스포를 통해 공룡테마공원과 당항포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고성군이 현재 추진 중인 당항포의 해양 마리아나와 해양레포츠 시설과 관광지내 체험 시설 보강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룡테마 공원을 더 높은 수준의 세계적인 해양과 공룡테마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고성 공룡 엑스포는 각종 공룡 주제 전시관과 이순신과 당항포 해전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관으로 발전 시켜 나간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메가 벤트 사업인 공룡엑스포의 새로운 소재발굴을 통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엑스포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공룡 테마파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공룡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외국의 공룡 테마 관광지에 대한 정보교류와 자료 분석, 세계의 새로운 테마공원들의 시설과 이벤트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와 같은 새로운 발전전략 로드맵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성 관광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된다. 고성에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광, 해안 휴양과 레포츠의 입지적인 여건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해양 휴양관광, 임진왜란의 역사교육 관광, 공룡엑스포와 공룡테마공원 등 다양한 관광 소재로서의 자원들이 풍부해 미래의 해양, 역사, 공룡 테마 관광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